

과테말라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2
3. 한국과의 주요이슈 /4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5
2. 주요 산업 동향 /9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6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20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4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26
대한수입규제동향 /28
관세제도 /28
주요인증제도 /30
지적재산권 /30
통관운송 /31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35
- 외국기업 투자동향 /37
- 우리기업 투자동향 /39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39
- 진출형태별 절차 /43
- 투자입지여건 / 50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51
- 조세제도 /58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61

V. 기타 유용한 정보

- 1. 시장특성 /65
- 2. 물가정보 /67
- 3. 바이어발굴 /68
-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 70
- 5.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72
-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73
- 7. 이주정착 가이드 / 74
- 8. 출장가이드 /78



1992 MAGELLAN Geographix/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The Republic of Guatemala(현지어명: La República de Guatemala)
위치	중미, 멕시코 바로 밑
면적	108,890Km ² (내수면적 460Km ² 포함), 한반도의 1/2
기후	열대성(단, 수도권 등 1,500m 이상 고지대는 연평균 20~22도 내외의 상춘 기후)
수도	과테말라시(Ciudad de Guatemala)
인구	13.3백만 명(2007년)
주요도시	Guatemala시(94만 명, 수도권 260만 명), Coban(20만 명), Quetzaltenango(19만 명) 등
민족(인종)	백인(5%), 라디노(혼혈, 40%), 인디오(50%)
언어	스페인어(원주민은 23개 부족언어 사용)
종교	가톨릭(70%), 기독교(30%)
건국(독립)일	1821년 9월 15일(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 Alvaro Colóm - 취임일: 2008.1.14 - 임 기: 4년 - 소속정당: UNE 당 (중도좌파)
시차	한국보다 15시간 늦음

나. 경제지표(2007년 기준)

GDP	U\$ 369억
GDP 성장률	5.7%
1인당GDP	U\$ 2,861
실업률	5.5%(비공식 고용 포함)
물가상승률	8.7%
화폐 단위	Quetzal(Q/케찰)
환율	1U\$=Q7.44(2008.7.30일)
외채	U\$ 41.9억
외환보유고	U\$ 41.4억
산업구조	제조업(18.4%), 개인서비스업(15.2%), 유통업(14.4%), 농림수산업(10.7%), 주택임대(9.5%) (괄호 안은 GDP 비중)
교역규모	○ 수출: U\$ 69.3억 ○ 수입: U\$ 135.8억
교역품	○ 수출: 의류, 화학제품, 커피, 식품류, 사탕수수 등 ○ 수입: 원자재(석유 포함), 소비재, 자본재 등 전반

다. 한국과의 관계

체결협정	무역통상협정, 문화협정, 봉사단파견 교환각서, 투자보장협정, EDCF차관협정,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사증면제협정, 범죄인 인도협정 등 7개 협정
교역규모	○ 한국의 수출: U\$ 391백만(2007년) ○ 한국의 수입: U\$ 86백만(2007년)
교역품	○ 한국의 수출: 직물(총수출의 40.3%), 자동차(13.4%), 경유(9.7%) 등 ○ 한국의 수입: 원당(총수입의 92.6%), 알루미늄스크랩(2.8%) 등
투자교류	한국의 과테말라 투자: 71건 / 10,192만 달러(2007.12월 기준)
교 민	약 8,000명(대부분 섬유봉제 분야 종사)

2. 정치사회동향

가. 독립, 독재 및 내전

과테말라는 1821년 스페인의 식민 지배에서 독립하였으나, 1944년까지는 대부분의 기간을 독재 체제 하에서 신음하였다.

1944~54년 기간 중에는 Juan José Arévalo 및 Jacobo Arbenz가 이끄는 진보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사회 및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미국계 다국적기업 United Fruit사를 포함한 대지주 계급 및 당시 미국 아이젠하워 정부 등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다.

1954년 선거로 선출된 Arbenz 정부가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군부 쿠데타로 전복되면서 공산당은 불법화되고 좌익계 정당, 노동조합은 물론 심지어 중도파에 대해서도 무차별한 탄압이 자행됨에 따라 이에 대항하여 일부 군대가 가세한 좌익 게릴라가 탄생하였다.

쿠데타 이후 군부 및 민간 정부가 교대로 정권을 잡으면서도 게릴라 진압은 계속되었고 게릴라 역시 빈민층을 대상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정부군과 내전을 지속하였다. 1978~82년 정권을 잡은 Romeo Lucas García 장군 시절 특히 게릴라 진압작전이 치열하였다.

1982년 3개의 게릴라 부대가 URNG(과테말라 혁명군: Unidad Revolucionaria Nacional Guatemalteca)로 통합되었으며 같은 해에 José Efraín Ríos Montt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으면서 시골 마을을 초토화 시키는 등 게릴라 진압 작전을 더욱 강화하였다.

나. 민주 정치 회복

1983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Oscar Mejía Víctores 장군은 선거를 통한 민주 정치를 회복시키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 1985년 기독교민주당의 Vinicio Cerezo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나 군부를 통제하지는 못하였다.

1990년 기독교 개신교 신자인 MAS당(단결행동당) Jorge Serrano Elías 후보가 집권, URNG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하면서 1993년 의회 및 대법원을 해산하는 쿠데타를 시도하였지만 국내 및 국제적 반대에 직면, 하야하고 뒤를 이어 옴부즈맨에 선출된 Ramiro de León Carpio가 Elías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나 그 역시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인권 보호에 별다른 공헌을 하지 못하였다.

다. 내전종식 및 평화협정

1996년 1월 취임한 PAN당(진보당/Partido de Avanzada Nacional)의 Alvaro Arzú 대통령은 UN 후원 하에 1996년 12월 URNG와 내전을 종식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하였다.

평화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평화협정 이행을 위한 금융 지원을 위해 1997년 1월 World Bank, IDB, 중미경제통합은행(BCIE), 미국, 영국, 스페인 및 독일 등으로 구성된 자문 그룹이 설립되었다.

평화 협정 체결 당시의 게릴라 부대 해체 및 군 병력의 1/3 수준(약 3만 명) 감소 조건은 지켜졌으나 이 외의 약속 이행은 지지부진하였다. 국가의 다언어, 다문화, 다인종적 특성 수용, 토착 인디오의 권리 인정, 사법부 개혁, 군부의 통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47개의 개헌안이 1999.5월 주로 도시 지역의 반대로 국민 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평화 협정 이행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민간경찰이 세워졌으나 경찰의 인권유린은 끊이지 않았고 내전 기간 중 잔학 행위자에 대한 면책 및 이에 따른 정부 불신도 지속되었다. 급증하는 흉악 범죄에 대한 경찰 및 사법부의 무능은 자경단의 설립을 부추기고 이들에 의한 피의자 폭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2000년 출범한 FRG(공화전선/Frente Republicano Guatemalteco)의 Alfonso Portillo 정부는 2003년 10월 인권 유린으로 악명높았던 대통령 친위부대(EMP/Estado Mayor Presidencial)를 해산하기도 하였으나 극심한 부패 및 인권 남용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재계, NGO 등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었다. 특히 마약 단속 미흡, 돈 세탁 연루 등의 의혹으로 對美관계도 악화되었다.

라. Berger(베르세) 정부

군소 연립정당인 GANA당(대연합당/Gran Alianza Nacional) 후보이지만 재계의 강력한 지원으로 UNE당(희망당/Unidad Nacional de la Esperanza) Alvaro Colóm 후보를 누르고 2004년 1월 집권한 Oscar Berger Perdomo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부정부패에 대한 사정을 실시하였다.

미국의 후원을 업고 전임 Portillo 정부의 고위 간부, 검찰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군부 고위자들의 비리를 파헤쳐 기소하였다. 파나마의 비밀 계좌를 통한 불법거래 증거가 드러난 Portillo 전 대통령은 헌법 재판소에서 중의위원으로서의 면책 특권을 박탈한다는 판결을 받아 2004년 초 멕시코로 도피했다.

이와 같이 Berger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에 노력하였으나 전임 정권과는 달리 의회 내 소수 정당으로 머물러 있어 개혁정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평화협정 이행 지원을 위해 과테말라에 파견된 UN 옵저버단은 내전 시 가혹 행위자에 대한 면책상태 지속, 토착 인디오에 대한 차별 및 평화협정에 명시된 사회복지 분야 정부지출 미흡 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2004.12월 철수하기도 하였다. 과테말라 정부는 2005.1월 UN 고등판무관실과 인권보호에 관한 협약을 맺음에 따라 7월부터 UN 대표가 상주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친기업적 안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對미 자유무역협정(DR-CAFTA) 및 對대만 자유무역협정 등을 체결, 2006.7월 발효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도 증대되는 등 경제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2007년에는 5.7%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마. Colóm(콜롬) 정부

지난 2008년 1월 14일 취임한 중도좌파의 콜롬 대통령은 100일간 중점 정책을 통해 극도로 악화된 사회치안 확립, 지방개발, 사회통합 증진, 원주민 권익신장 및 교육보건 서비스 향상 등을 추진하였으나 이전 정부의 누적된 부채 및 이로 인한 자원 부족, 행정조직의 비효율 등으로 인해 가시적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과테말라의 최대 사회문제인 치안 안정은 빈곤, 실업 등 여타 구조적인 사회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 전 중도좌파 성향에 대한 일부 우려와는 달리 신 정부는 국민의 열망인 경제발전을 위해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한 온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콜롬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파나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EU 및 캐나다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한-과테말라 양국 간 정부 차원의 협정체결 및 KOICA(한국국제협력단) 무상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협정체결 현황

- 무역통상협정(1978.4월 발효)
- 문화협정(1978.9월 발효)
- 봉사단 파견 교환각서(2002.5월 발효)
- 투자보장협정(2002.8월 발효)
- EDCF 차관 협정(2002.8월 발효)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협정(2003.12월 발효)
- 범죄인 인도협정(2006.2.20 발효)

나. KOICA 협력사업 추진현황

- 과테말라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에 있어 중미지역 중점 협력대상국임에 따라 KOICA의 협력사업 규모도 매년 증가 추세임.
- 1991~2007년 지원 실적: 총 1,200 만 8,000 달러(연평균 70 만 6,000 달러)
 - 연수생 초청: 총 220명
 - 전문가 파견: 7개 분야 7명
 - 봉사단 파견: 4개 분야 10명
 - 개발조사: 1건(1994~98년 광물자원 타당성 조사)

- 기자재 지원: 컴퓨터, 자동차 직업훈련 장비 등
- 재난구호: 허리케인 ‘스탄’ 피해 재건복구사업 지원
- 프로젝트: 10건(직업훈련 6건, IT 2건, 보건 1건, 지역개발 1건)
 - 제1 아동복지원 건립사업(1993~95)
 - 제2 청소년직업훈련원 건립사업(1997~99)
 - 제3 청소년직업훈련원 건립사업(1997~99)
 - Zacapa주 기술교육훈련원 건립사업(2003~05)
 - 섬유기술훈련원 지원사업(2005~06)
 - 청소년 기술훈련원 자동차정비 훈련센터 건립(2007~08)
 - 외교부 e-Library 구축사업(2002~03)
 - 한·과테말라 ICT 교육센터 건립사업(2006~08)
 - 치말떼낭고(Chimaltenango)주 모자보건 개선사업(2007~09)
 - 난민정착 및 교육강화사업(2007~09)

□ 2008 년도 추진 계획: 총 363 만 달러

- 청소년 직업훈련원 자동차 정비훈련소 건립
- 치말떼낭고주 모자보건 개선
- 난민 정착지원 및 교육 강화: Petén주 등 6개 지역
- 과테말라 시 ICT 훈련센터 건립
- 전자정부 행정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한 웹포탈 시스템 구축
- 연수사업 등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연도별 거시경제 지표

구 분		단위	2003	2004	2005	2006	2007
인 구		백만 명	12.3	12.7	12.9	13.1	13.3
인구증가율		%	2.5	2.4	2.4	2.5	2.4
GDP		U\$억	249	280	317	350	369
1인당 GDP		U\$	2,062	2,061	2,392	2,694	2,861
GDP 성장률		%	2.5	3.2	3.3	5.3	5.7
물가상승률		%	5.6	7.6	9.1	6.6	8.7
실업률		%	8.9	9.0	8.9	7.5	5.5
이자율(연말/대출)		%	14.11	13.50	12.67	12.88	12.89
교역 규모	수출	U\$억	44.6	50.4	53.8	60.1	69.3
	수입	U\$억	81.3	94.7	104.9	119.1	135.8
무역(상품)수지		U\$억	-36.7	-44.3	-51.1	-59.0	-66.5
외환보유고		U\$억	29.2	35.3	37.8	40.6	41.4
외채		U\$억	34.7	38.4	37.2	39.6	41.9
연평균환율		Q:U\$	7.94	7.95	7.63	7.60	7.63
해외이전소득		U\$억	21.1	25.5	29.9	36.1	41.3

자료: 과테말라 중앙은행 (Banco de Guatemala / www.banguat.gob.gt)

나. 경제 정책

1) 조세 정책

과테말라 정부는 1991년부터 경제안정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물가가 안정되고 1990년대 후반에는 인플레이션을 1자릿수로 억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화 정책은 조세수입 감소 및 이에 따른 재정적자라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1990년대 과테말라의 조세수입은 GDP의 10% 미만으로 중미 역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낮은 세수로 인해 정부재정이 허약해지고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조세제도의 개혁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를 실시하지 않아 조세 문제는 과테말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1996년 평화협정 체결에 따라 교육, 의료 및 치안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세수 확보가 아닌 자문그룹(1997년 평화 협정 이행을 위한 금융 지원을 위해 IDB 등 3개 국제금융기관 및 미국 등 4개국으로 구성) 차관으로 충당함에 따라 국제수지는 더욱 악화되었다.

1999년 재정적자가 GDP의 2.8%에 이르자 2000년 집권한 Portillo 정부는 단안을 내려 일련의 세제개혁을 실시하였다. 2001년 8월의 부가세(IVA) 인상(10%→12%) 및 농업·상업에 대한 영업세(IEMA) 인상 등이 주요 조치들이다. 이로 인해 2002년도 세수는 GDP의 10.6%에 이르렀고 재정적자는 GDP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민간 부문은 2004년 초 헌법재판소를 통해 IEMA 인상조치를 취소시켰다.

2004년 초 출범한 Berger 정부는 IEMA 인상 취소에 대응, 그해 6월 다시 조세개혁을 실시하여 법인소득세 인상, 알코올 소비세 복원 및 평화협정세(IETAAP/Impuesto Extraordinario y Temporal de Apoyo a los Acuerdos de Paz/평화협정 지원을 위한 특별잠정세) 신설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006년 8월에는 '조세 행정 강화를 위한 일반 규칙'(Disposiciones Generales para el Fortalecimiento de la Administración Tributaria)을 제정하여 조세 행정을 엄격히 감독하였다.

자문그룹은 Berger 대통령에게 평화협정에 명시된 세수액 GDP 12% 수준 확보를 위해 임기중 재차 세제개혁을 권유한 바 있으나, 의회 내 지지 기반이 미약한 데다 레임덕 현상을 보인 Berger 대통령은 이를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세제개혁의 공은 2008.1월 출범한 Colóm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2) 재정 정책

Berger 정부 역시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긴축정책을 기조로 경제를 운용하였으나 2007년도 정부재정은 GDP의 2.2% 적자를 기록하였다.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15.8% 증가하였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부지출 역시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한 La Aurora 공항 증축, 허리케인 Stan 피해 복구, 고유가에 대비한 버스 전용도로 Transmetro 건설, 종합 경제회복정책 Vamos Guatemala 수행, 범죄 억제를 위한 치안 유지 비용 증가 등도 Berger 정부의 재정을 압박한 주요 요인들이다.

5.7%의 높은 2007년 경제성장률은 이러한 정부지출 증대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재정적자는 결국 Colóm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7월 말 Colóm 대통령이 Berger 前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과테말라 정부는 2008년도 재정적자 목표를 GDP 1.6%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3) 금융 정책

과테말라의 인플레이션은 국제고유가 등의 원인으로 2004년 7.6%, 2005년 9.1%를 기록하였는데 중앙은행은 2006년 중반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2006년 인플레이션을 6.6% 수준으로 억제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에는 정부의 정책금리 인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대통령 및 지자체장 선거로 인해 중앙은행 목표치인 5%를 훨씬 넘긴 8.7%를 기록하였다.

2008년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생필품 가격 역시 급속히 인상됨에 따라 Colóm 정부는 서민용 식료품을 긴급 수입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재정적자 압박 외에도 사회치안 확보 등 산적한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지출 증대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4) 임금 정책

과테말라는 전 산업부문에 걸쳐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었으나 지난 2000년 Alfonso Portillo 정부 출범 이후 2000.3월 개정된 노동법에 의해 매 6개월마다 경제상황을 검토하여 임금을 재조정함에 따라 임금수준이 급속히 상승하였다.

법정 최저임금은 매년 노사정이 참여하는 임금조정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Salario)에서 합의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는데,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발표한다.

2008년도 과테말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농업부문 1일 47.00께찰(월 1,410께찰), 섬유봉제 부문 1일 47.75께찰(월 1,432.50께찰), 비농업부문 1일 48.50께찰(월 1,455께찰) 수준이다

과테말라 정부는 현재 시급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시급제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노동부 및 INTECAP(직업훈련원)은 관심 기업에 대해 기술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면적 시행에는 법적·제도적 정비에 따라야 하며 노동조합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1) 최근 동향

과테말라 경제는 2007년에 5.7%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성장률은 199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과테말라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07년도 경제성장은 특히 DR-CAFTA(미국-중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 및 투자 증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La Aurora 공항 증축 등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공사 시행 및 선거특수 등에 따른 정부지출 증대도 경제활황에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해외 거주 교포들의 본국송금 증대(2007년도 41.3억 달러로 GDP의 11.2%) 및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공여 확대 등도 국내수요를 부추겼다.

연도별 GDP 성장률

(단위: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성장률	2.5	3.2	3.3	5.3	5.7

자료: 과테말라 중앙은행

분야별로는 교통·통신(19.1%), 금융·보험(15.6%), 건설(12.0%), 광업(11.3%) 농업(3.9%)등이 특히 성장을 주도하였다.

통신산업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급속 보급된 이동통신이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2007년 말 기준 휴대폰 보급률은 69%로 전년 대비 14%p 증가하였으며 이용자 수는 28%가 늘어났다. 2008년도에는 대형통신업체 3개사간 제3세대 서비스 경쟁이 시작되고 있으며 제4 통신업체(Digicel)가 하반기 중 통신시장에 뛰어 들면 더욱 활황을 띌 것으로 보인다.

금융 분야는 특히 건설산업 호황과 맞물려 주택구입 시 융자 등으로 호황을 보였으며 보험은 DR-CAFTA에 따른 미국 보험회사 진출로 시장이 팽창하였다.

건설 분야는 라아우로라(La Aurora) 공항 증축 등 정부주도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및 선거에 대비한 각 지자체의 건설사업 등이 성장을 견인하였다. 또한 2007년도 GDP의 11.2% 수준에 달하는 해외이전소득(주로 미국거주 교포들이 송금) 및 금융권의 신용공여 확대로 민간부문의 주택 수요도 대폭 증가하여 도처에서 아파트 등 주택 건축이 이루어졌으며 대형 쇼핑몰 및 사무실 빌딩 등도 활발히 건축되었다.

광업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수출 증대로 높은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과테말라는 정유시설 부재로 석유제품을 전량 수입하는 상황이다.

전통적 농업국가인 과테말라는 커피, 사탕수수, 바나나, 카르다몸(생강의 일종) 등이 주요 수출 농산물인데 2007년도에 매우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커피의 경우 브라질의 가뭄 및 인도네시아 지진 여파로 세계 커피시장에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5억 8,000만 달러 규모를 수출, 전년 대비 25% 증가한 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전 세계적 바이오 에너지 개발 붐에 따라 사탕수수 수출도 호조를 보였고 바나나 및 카르다몸 역시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다.

2) 향후 전망

2007년 과테말라 경제성장을 가져 온 주요 요인들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DR-CAFTA 발효 3년차인 2008년 들어 과테말라의 對미 수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1~5월 중 對미 수출액은 15.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3.2% 증대해 2007년도 3.1% 대비 10.1%p 상승하였다. 그러나 석유 순수입국인 과테말라는 최근의 높은 국제유가로 인해 수입비용 상승, 물가압박 및 대외수지 악화를 겪고 있다.

또한 과테말라의 가장 큰 교역 및 투자 대상국인 미국의 경기침체로 과테말라의 중장기적 대외수출 및 투자유치도 영향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미국의 경기둔화 및 이민법 강화 등에 따라 미국 거주 과테말라 교포의 국내송금이 예년 대비 축소 예상됨에 따라 소비재 및 주택 구입 등 국내소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5년에 발생한 허리케인 Stan 피해복구 작업이 거의 완료되고 La Aurora 공항 증축 프로젝트도 1단계가 끝남에 따라 별도의 대형 프로젝트가 시행되지 않는 한 공공부문 투자도 감소할 예정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현지 전문가들은 2008년도 경제성장은 3.9%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개황

과테말라의 산업은 전통적으로 농업을 바탕으로 한 식음료 및 연초, 커피, 설탕 생산 등 1차 소비재 및 기초 의약품 생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건설, 교통·통신, 에너지, 금융 및 제조업 등으로 다변화되어 가는 추세다.

2007년도 기준 GDP 비중은 식품 및 봉제의류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18.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어서 의료, 법률, 회계, 컴퓨터 프로그램 등 개인서비스 산업이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업(주택건축 및 임대 포함)도 15%를 점유하였다. 건설분야와 맞물려 최근 급팽창하고 있는 유통업은 14.4%, 농업은 10.7%를 기록하였다.

GDP 점유율이 높지는 않으나 최근 휴대폰 및 인터넷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통신산업, 건설분야 호황과 맞물린 금융산업,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수출의 광업 등은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별 성장률 및 GDP 비중

(단위: %)

분야	2005		2006		2007	
	비중	성장률	비중	성장률	비중	성장률
농림수산업	12.4	2.1	11.3	1.3	10.7	3.9
광업	1.2	-3.2	1.4	17.6	1.6	11.3
제조업	18.7	2.6	18.7	3.3	18.4	3.0
전기·수도	2.6	2.7	2.5	3.0	2.5	5.5
건설업	4.7	4.5	5.2	13.1	5.5	12.0
유통업	14.8	3.2	14.7	3.8	14.4	4.0
교통·창고·통신	6.1	11.3	6.6	18.9	7.4	19.1
금융·보험	2.7	15.0	2.7	16.0	2.7	15.6
주택임대	9.9	2.4	9.7	2.7	9.5	3.9
개인서비스	15.3	2.3	15.5	5.4	15.2	5.4
공공행정국방	6.6	2.4	6.4	5.3	6.2	4.1
기타	5.1	-1.4	5.2	-1.0	5.9	-1.1
계	100.0	3.3	100.0	5.3	100.0	5.7

자료: 과테말라 중앙은행

나. 농업

과테말라는 농업 부문이 GDP의 11%(2007년 기준), 경제활동인구의 14%를 점유하는 전통적 농업국이다.

과테말라의 주요 농산물은 커피, 옥수수, 바나나, 사탕수수, 까르다몸(Cardamóm-생강의 일종), 콩, 깨, 완두, 밀, 쌀, 생고무 등이며 특히 커피, 사탕수수, 바나나, 까르다몸 등은 과테말라의 주요 수출품이다.

과테말라 정부는 농업을 통한 고용증대 및 외화획득을 위해 내외국인 투자유치, 기술개발, 수출시장 개척, 관개시설 확장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토지기금(Fonatierra)을 설치하고 대지주의 유휴농지를 구매하여 중소농가에 재분배함으로써 경작 면적 확대 및 생산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내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수출용 작물의 기업 영농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과테말라가 개발한 브로콜리와 중국 완두콩은 정부지원을 통한 신제품 개발로 수출에 성공한 경우이다.

2007년도 과테말라의 농업 부문은 커피 및 설탕 등의 국제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년 대비 3.9%의 성장률을 보였다.

다. 광업

과테말라는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아니며 2007년도 광업의 GDP 비중은 1.6% 수준에 불과하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11.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과테말라 정부의 광업정책은 1974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대서양 방향 이사발(Izabal) 호수 부근 및 동북부 뻬텡(Petén)주 인근의 유전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원유 매장량은 20억 배럴 수준으로 채굴된 원유는 간단한 1차 가공을 거쳐 거의 전량 미 국으로 수출된다. 정부는 2005년부터 뻬텡과 끼체(Quiche) 지역에서 신규로 5대 유전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원유 외에 대리석 및 석회석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 희귀광물이나 JADE 등도 소량 생산되고 있다. 산마르코스(San Marcos) 지역에서는 2004년부터 금광 채굴 작업이 시작되었다.

라. 제조업

1) 식품산업

과테말라는 농업에 기반을 둔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식품산업이 비교적 발달되어 있다.

주요 생식품목은 담배(Rubios, Belmont 등), 과자, 통조림, 빵, 치즈, 햄, 위스키(Old Friend 등), 럼(Venado), 맥주(Dorada, Gallo, Monte Carlo 등) 등이다.

1969년 설립된 Conservas y Alimentos사는 통조림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미국, 중미 지역에 수출하고 있으며, 1976년에 설립된 Helios사와 Gama사는 과자류, Industria Nacional Alimenticia사는 케이크와 빵류 등을 생산·수출하는 대표적 기업들이다.

수년 전부터는 맥주 및 음료수 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외국계 기업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벨기에 InBev사가 설립한 Cervecería Rio는 Brahma 맥주를 생산하여 토종의 Gallo 맥주와 경쟁하고 있으며 펄시콜라도 과테말라 시장에 진출하였다. 과테말라의 제1위 치킨 체인 Pollo Campero는 미국에 20개 지점을 오픈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국 상하이에도 진출했다.

DR-CAFTA에 따라 미국의 엄격한 식품포장 기준을 맞추기 위한 양질의 포장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2) 섬유봉제산업

과테말라에서 비교적 활발한 산업 분야 중 하나이다. 2007년도 의류 수출은 14억 달러로 총수출의 20%를 점하고 있으며 VESTEX(과테말라 섬유조합)에 의하면 2008. 6월 현재 봉제업체는 176개사, 섬유/염색업체는 15개사가 있다. 그 중 한국계 업체는 봉제 103개사, 섬유·염색 6개사로 과테말라 전체 섬유봉제 업체의 57%가 한국계 업체이다.

그러나 현재 과테말라의 봉제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테말라산 의류의 주 시장은 미국인데 2005년 섬유쿼터가 해제되면서 중국산 의류가 미국시장을 휩쓸고 있으며 지난 2007.1월 베트남의 WTO 가입으로 최근에는 베트남산 의류도 미국시장에 다량 진출하는 등 아시아산 의류의 경쟁력에 밀려 현재 과테말라 봉제업계는 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한 Quick Delivery 제품에 의존해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과테말라 봉제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된 주된 이유는 지난 2000년 Alfonso Portillo 정부 출범 이후 2000.3월에 개정된 노동법에 의해 매 6개월마다 경제상황을 검토하여 임금을 재조정함에 따라 임금수준이 급속히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인근국 대비 전기료도 높은 수준이며 DR-CAFTA 역시 Yarn Forward 규정으로 인해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동 규정은 미국 또는 역내산 원사를 사용하여 생산된 의류에 대해서만 對미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인데, 고가의 미국산 원사 사용 시 의류의 경쟁력은 더욱 저하되며 또한 DR-CAFTA 역내에서는 원사 공급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섬유 비즈니스 환경 악화로 일부 고급 바이어들이 다시 과테말라로 회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의 주문에 응할 수 있는 내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마. 건설업

지난 1999년부터 지속 침체되었던 과테말라의 건설경기는 2005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6년 13.1%, 2007년 12%의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성장은 정부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주도하였다. 2005년 허리케인 Stan 피해복구를 위한 대규모 주택건설 프로젝트가 2008년 초에 거의 마무리되었고, 2006년

말에는 과테말라시티에 Transmetro(지하철을 대신한 지상 버스 전용차도)가 개통했으며 La Aurora 공항 증축 프로젝트도 2007년 말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다. 2007년 하반기 선거에 대비한 각 지자체의 인프라 구축사업도 건설분야 활황에 기여하였다. 또한 해외 이전소득(주로 미국거주 교포들이 송금, 2007년도 GDP의 11.2% 수준) 증가 및 금융권의 신용공여 확대로 민간부문의 주택 수요가 대폭 증가하여 도처에서 아파트, 콘도미니엄 등 주택 건축이 이루어졌으며 대형 쇼핑몰, 사무용 빌딩 등도 활발히 건축되었다.

그러나 향후로는 건설경기가 예년만 같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주류를 이룬다. 국제 유가 폭등에 따른 건축자재 가격 상승, 2006년 10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미국의 경기하락 및 이에 따른 국제유동성 경색, 금리상승 등이 주요 근거이다. 특히 미국의 경기둔화 및 이민법 강화 등에 따라 미국 거주 과테말라 교포의 국내송금이 예년대비 축소될 것으로 보여 민간부문 주택수요 침체를 예상하게 한다.

과테말라 정부는 2008.5월 초 카라브해 상의 산토 토마스 데 까스띠야(Santo Tomás de Castilla) 항구 확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총 사업규모는 4억 달러 수준으로 BCIE(중미 경제통합은행/Banco Centroamericano de Integración Económica) 자금지원을 받을 예정인데 현재 예비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바. 금융업

과테말라는 1980년대 말부터 금융부문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형적으로는 금융업이 급성장, 2008년 7월 현재 과테말라에는 국책은행(1개/중앙은행 제외) 포함 20개 은행이 있으며 제2 금융회사는 14개가 영업 중이다.

2002년 과테말라는 금융부문 현대화를 위해 금융회사 감독법(Ley de Supervisión Financiera), 은행 및 금융그룹법(Ley de Bancos y Grupos Financieros) 등을 제정하고 기존 화폐법(Ley de Monetaria) 및 중앙은행법(Ley Orgánica del Banco de Guatemala) 등을 개정하여 국내적으로는 상당한 실효를 거두었다.

그러나 2001년 외환거래법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시중은행의 Offshore 영업에 대한 감독 기능 미비로 은행 부실화가 초래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최근 사례로는 2006년 10월 당시 4위 규모의 Bancafé가 중앙은행 통화위원회(Junta Monetaria)의 영업정지 명령으로 도산하였으며, 2007년 1월에는 상업은행이 도산하였다.

최근에는 그동안 지연되어 온 금융기관 합병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2006년 말 Citigroup이 Uno 은행 및 중미 전역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Cuscatlán 은행을 매입함에 따라 유일한 외국계 은행인 Citi은행은 자산규모 5위로 상승하였다. Continental 은행과 G&T 은행이 합병한 자산규모 2위의 G&T Continental 은행은 2006년 12월 Banex 은행을 매입하였다. 자산 측면에서는 산업은행(Banco Industrial)이 가장 큰 규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자본상태가 취약하며 높은 대출이자율(11~15%)로 인해 외국 기업들은 국내은행 대신 해외에서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 대부분 과테말라 은행의 단기 금융은 180일로 제한되며 11~15% 수준의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각종 커미션 및 요금도 부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많은 외국기업은 모기업으로부터 기업 간 대부 및 공급자 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민간 상업은행이 단기금융의 주요 공급원인데 특정 산업단체나 기업그룹이 상업은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금융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며 제2 금융권 역시 자신들이 속해 있는 경제단체의 회원업체에 대해 주로 대부를 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이용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중장기 금융은 대부분 은행과 협약으로 단기금융이 수차례 반복된 후 이루어진다. 따라서 외국업체가 중장기 금융을 얻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과테말라 국책은행은 외국 기업에 대해 중장기 금융을 지원하지 않는다.

최근 과테말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BCIE(중미경제통합은행/Banco Centroamericano de Integración Económica), IIC(미주투자공사/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IFC(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사. IT 산업

1) 통신기본법

과테말라 국영통신공사 Telgua사(Telecomunicaciones de Guatemala)는 오랜 기간 고정 전화 시장을 독점하였으며 Comcel사(네델란드 지분 50%)는 1991년부터 아날로그 방식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독점 공급하였다. 과테말라 정부는 이러한 독점상태에서 탈피, 통신시장 자유화를 통한 통신서비스 향상을 위해 1996년 통신기본법을 제정하고 통신시장개방 및 통신감독청(SIT/Superintendencia de Telecomunicaciones)을 설립하였다.

1998년 통신기본법에 따른 Telgua 민영화(멕시코 América Móvil사가 50% 지분획득)를 계기로 신규업체의 통신시장 진입이 이루어지고 민영화된 Telgua는 1999년 초 14개 통신업체와 interconnection 계약을 체결,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통신시장의 경쟁 체제가 갖춰지게 되었다. 스페인 Telefónica사 및 미국 BellSouth사도 1999년부터 과테말라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데 2004년 Telefónica가 58.5억 달러에 BellSouth의 중남미지역 자산을 매입 하면서 과테말라의 이동통신 사업도 접수하였다.

2008.7월 현재 과테말라 통신시장에서는 최대 점유율을 보이는 Telgua를 비롯, Comcel 및 Telefónica 3개사가 유무선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통신업체로 자리 잡고 있다. 2008년 하반기에는 Digicel사가 제4 통신업체로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2) 이동통신 현황

과테말라 IT산업은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최근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1년도 이용자는 115만 명 수준이었으나 2007년에는 922만 명으로 5년간 연평균 41%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07년 말 현재 보급률은 69%를 보이고 있다.

과테말라에서는 Telgua(이동통신 자회사는Sercom), Comcel, Telefónica 3개사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06년 말 현재 업체별 점유율은 Sercom 41%, Comcel 32%, Telefónica 27% 수준이다. Telgua사는 2008년 상반기부터 제3세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타 업체들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2008년 하반기 Digicel사가 제4 통신업체로 시장에 진입하면 통신시장은 더욱 활황을 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현황

(단위: 개, %)

구분	단말기(이용자) 수	성장률	보급률
2001	1,146,423	33.80	9.81
2002	1,577,085	37.57	13.15
2003	2,034,777	29.02	16.53
2004	3,168,256	55.71	25.02
2005	4,510,067	42.35	36.08
2006	7,178,745	59.17	54.75
2007	9,222,748	28.47	69.17

자료: SIT/통신감독청

3) 기타 분야별 현황

이와 같이 이동통신 분야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IT산업의 발전 정도는 낮은 수준이다.

전 세계 102개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된 세계은행의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3-2004 보고서에 의하면 과테말라의 IT 관련법규 정비 정도는 92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지표가 열악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IT산업 육성정책은 101위로 최하위이며 인터넷 서비스 접근성 지표가 68위로 그나마 나은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S/W 제조 및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전자상거래 등 일부 분야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도 세계은행 및 IDB(중남미개발은행) 등의 차관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동통신 이외의 IT 분야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하드웨어

○ 컴퓨터

- 2007 년 상반기 기준 보급률 8.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6 년 컴퓨터 판매 대수는 약 25 만 대, “수입품: 국내조립품” 비중은 50:50 정도로 추산된다. 약 15 개 조립업체가 월 12,500 대 정도를 조립 생산하며 자체 브랜드로 인근 중남미 국가에 수출도 실시하고 있다.

○ 무선통신 단말기

- 수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며 이동통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시장규모도 급속 확대 되고 있다. 2006 년도 판매대수는 총 194 만 5,000 대로 휴대폰 178 만 대, WLL 16 만 5,000 대로 추산된다. 정품 휴대폰은 170 만 대 판매되었으며, 브랜드별로는 Motorola 34%, Nokia 28%, 삼성 18%, Sony-Ericsson 11%, 기타 9% 등이다. 제3 세대 서비스 개시에 따라 향후 첨단 휴대폰 수요가 증가할 예정이다.

○ 소프트웨어

- 최근 소프트웨어 산업이 붐을 보이고 있다. 2006 년도 시장규모는 1 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며 수출 103 만 달러, 수입 4,500 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약 200 개 S/W 업체가 프로그램을 제작, 미국 및 인근중남미 국가로 수출하고 있으며 SOFEX(소프트웨어 협회)는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 SI
 - Guatecompras(통합정부구매시스템) 및 Bancasat(온라인 세금납부 시스템) 등 5 개의 정부부문 통합시스템이 운영 중이다.
- 인터넷
 - 2007. 3 월 현재 인터넷 이용자 100 만 명, 보급률 7.6% 수준이며 15 개 ISP, 약 2,400 개 사이버 카페가 있다. 전반적으로 전자상거래는 발달하지 않았으나 최근 인터넷 뱅킹이 확대 추세이며 Cemaco, Paiz 등 대형유통업체 위주로 온라인 판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커피협회(Anacafé)는 인터넷을 통한 국제경매로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
- 정부지원정책
 - CONCYT(과학기술심의회)는 세계은행, IDB(미주개발은행) 등의 차관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Multicyt, Prointec 등의 프로그램은 첨단기술 및 기계류 도입 지원 프로그램이다.
- e-government
 - 전 베르체(Berger)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COPRE(개혁, 현대화 및 강화위원회)가 추진을 담당하였는데 현 콜롬(Colóm) 정부 출범후인 2008.4 월 COPRE 가 해체되고 INAP(공공행정청/Instituto Nacional de Administracion Publica)에서 담당하고 있다. 추진 초기단계로 현재 전자서명법(안)이 국회 회부상태이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지원하고 있다.

IT산업 인프라 현황(2006년 말 기준)

구 분		현 황
컴퓨터	보급률(총인구 대비)	8.6%
	조립업체 수	약 15개사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수		약 200개사
고정전화	라인 수	1,354,926라인
	보급률(총인구 대비)	10.3%
	서비스 업체	16개사
이동전화 (2007년 말)	단말기(이용자) 수	9,222,748개(명)
	보급률(총인구 대비)	69.17%
	서비스 업체	3개사(Telgua/Sercom, Comcel, Telefónica)
기타 전화		공동전화 8,57개소, 공중전화 46,840개소
인터넷	이용자 수(2007.3월)	약 100만 명
	보급률(총인구 대비)	7.6%
	ISP	15개사
	Cybercafé	약 2,400개소
	등록 도메인(2007.3월)	6,405개
정부 부문	SI	Guatecompras(통합정부구매시스템) 등 5개 시스템 운영
	지원정책	분야별로 Multicyt, Prointec 등 8개 과학기술 지원프로그램 실시
	e-government	추진 초기단계로 KOICA에서 지원

자료: 공업회의소(Cámara de Industria), 소프트웨어협회(SOFEX), 통신감독청(SIT), Valle 대학교, 과학기술심의회(CONCYT), KOICA 등

아. 관광업

과테말라는 1979년 UNESCO에 의해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 받은 Antigua시(중남미 도시 중 스페인 식민시대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음) 및 Tikal의 마야유적 외에도 이사발(Izabal) 호수 및 카리브 해안, 아티틀란(Atitlán) 호수, 빠까야(Pacaya) 화산 등 역사와 변화무쌍한 자연환경이 겸비된 관광자원을 보유한 나라로 관광업은 주요 성장산업의 하나이며, 관광객 수와 외화수입이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2007년도 과테말라 총 방문객 수는 163만 명(순수 관광목적 44%, 친지 방문 21%, 비즈니스 및 업무 21%, 기타 14%)으로 2003년 88만 명 대비 4년 만에 85%가 증가하였다. 또한 이들로 인한 수입 역시 2003년도 60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120억 달러로 거의 2배 증가하였다.

과테말라 관광청(INGUAT)은 관광객 지원프로그램(Asistencia al Turista)을 마련하여 관광객에 대한 정보제공과 치안유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관광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도미니카 공화국과 FTA 협상, 99년 쿠바와 외교관계 재개 등을 통해 중미-멕시코-카리브 간 트라이앵글을 형성,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관광객을 맞아 들일 수 있는 호텔 객실 등 관광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정부는 관광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DR-CAFTA (미-중미 자유무역협정)

중미국가들의 무역을 크게 좌우할 미국과 중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상이 2003년 1월부터 시작하여 총 9차에 걸친 협상을 통해 최종 결말을 이루었다. 2006.3.1일 엘살바도르, 4.1 일 니카라과 및 온두라스, 7.1일 과테말라 순으로 발효되었다. 코스타리카는 아직 미발효 상태이다.

DR-CAFT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산품

미국의 공산품의 80%는 중미 국가에 무관세로 즉시 수출할 수 있으며 중미를 원산지로 하는 거의 모든 공산품과 소비제품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나머지 20%는 5년, 10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2) 농산품

미국산 농축산물의 50%는 무관세로 중미국가에 수출할 수 있으며 품목은 쇠고기, 면제품, 밀, 포도주, 콩 등이다. 나머지 50%는 1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무세화 된다.

3) 섬유

중미가 원산지인 원부자재는 즉시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할 수 있다. 역내(미국 및 중미) 공급이 절대 부족한 원단에 대해서는 제3국산 원단을 사용해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역내 공급이 부족한 원단의 범위 및 종류는 미국 및 중미국 업계의 자문을 받아 정한다.

4) 의류

TPL(역내에서 봉제, 제조된 의류의 경우 쿼터 범위 내에서 제3국산 직물, 원사 수입 시 특혜관세 부여)은 니카라과에 대해서만- 연간 1억 S/M 범위 내 -허용기로 함에 따라 향후 중미 봉제산업의 니카라과 진출이 예상된다. 또한 NAFTA 파트너인 캐나다 및 멕시코산 직물을 사용한 일부 의류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북미와 중미 섬유 산업의 통합을 가속화하여 치열해지는 세계시장의 경쟁에 대비토록 하였다.

5) 노동

중미국 기업들은 노동법 위반 시 최고 1,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한편, HS 2 단위별 98가지 품목에 대한 세부 관세협정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HS	품목	미국→과테말라	과테말라→미국	예
1	살아있는 동물	15년 이후 관세면제	즉각 관세 면제	칠면조, 소, 닭, 오리 등
2	육류	5,10,15년 이후 관세 면제	즉각 관세 면제 소고기만 15년 후	
3	해산물	5년 이후 면세	즉각 면세	바다고기, 게, 홍합 등
4	우유 및 우유 관련 제품	5년, 15년 이후 면세	20년 이후 면세	치즈, 우유류, 등
5	기타 먹지 않는 육류	즉각 면세	즉각 면세	고기뼈, 털 등
6	식물, 꽃	즉각 면세	즉각 면세	
7	채소, 건강 식물	5,10,15년 이후 면세	즉각 면세	브로콜리, 버섯, 토마토 등
8	과일	5,10,15년 이후 면세	즉각 면세	사과, 배, 귤 등
9	커피, 차	5,15년 이후 면세	즉각 면세	
10	곡물	15년 이후 면세, 쿼터제	즉각 면세	쌀, 밀 등
11	곡물 가공 식품	10,12,15년 이후 면세	즉각 면세	밀가루 등
12	씨, 기름식물	10년 이후 면세	15년 이후 면세	콩, 해바라기 씨 등
13	주스, 식물성 주스	즉각 면세	즉각 면세	과일주스
14	기타 식물	즉각 면세	즉각 면세	대나무 등
15	식물, 동물성 기름	10년 이후 면세	즉각 면세	
16	육류, 해산물 가공식품	5,10,15년 이후 면세	10년 이후 면세	참치, 게맛살 등
17	설탕	5,10,15년 이후 면세	쿼터제	설탕, 사탕 등
18	카카오	5,10년 이후 면세	쿼터제	
19	곡물 가공 및 빵	5,10,15년 이후 면세	쿼터제, 20년	
20	과일통조림 및 주스	5년, 10년 이후 면세	5, 15년 이후 면세	
21	식품 가공 제품	5, 10, 15년 이후 면세	아이스크림 쿼터제,	녹는 커피, 수프,

			20년 이후	기타 식품
22	주류, 음료수	맥주 즉각 해제/ 양주 포도주, 미네랄 등 5년-15년 이후 면제	미네랄, 맥주쿼터제, 그 외 20년	맥주, 소주, 식수 등
23	동물 사료	5-10년 이후 면제	즉각 면제	
24	담배	15년 이후 면세	15년 이후 면세	
25	소금, 유황, 돌 등	10년 이후 면세	즉각 면세	
26	광물	즉각 면세	즉각 면세	시멘트, 광물
27	원유, 석유	즉각 면세	즉각 면세	원유, 가스 등
28	무기화학 원료	10년 이후	즉각 면세	염소, 요오드 등
29	유기화학 원료	5, 10년 이후	즉각 면세	벤졸, 톨루엔 등
30	약품	5년 이후	즉각 면세	약품, 비타민 등
31	비료	10년 이후	즉각 면세	
32	페인트 종류	10년 이후	즉각 면세	
33	화장품, 향수	5,10년 이후	즉각 면세	
34	비누	10년 이후	즉각 면세	
35	접착제	5~10년 이후	즉각 면세	
36	폭발물	10년 이후	즉각 면세	
37	사진 제품	10년 이후	즉각 면세	영화필름, 사진필름
38	기타 산업용 화학물	5, 10년 이후	즉각 면세	흑연, 콜타르 등
39	플라스틱 및 제품	5~10년 이후	즉각 면세	PVC 및 플라스틱
40	고무 및 제품	5, 10년 이후	즉각 면세	
41	가죽	5, 10년 이후	즉각 면세	
42	가죽 완제품	10년	즉각 면세	
43	모피	즉각 면세	즉각 면세	
44	목재 및 목제품	5~10년 이후	즉각 면세	
45	코르크 및 제품	즉각 면세	즉각 면세	
46	광주리, 짚 제품	즉각 면세	즉각 면세	
47	목재 펄프	즉각 면세	즉각 면세	
48	종이	5, 10년 이후	즉각 면세	
49	산업 인쇄 제품	10년 이후	즉각 면세	앨범, 달력 등
50	비단	즉각 면세	즉각 면세	
51	양모	즉각 면세	5~10년 이후	
52	면	즉각 면세	10년 이후	
53	아마포 원단	즉각 면세	즉각 면세	
54	합성 섬유	즉각 면세	즉각 면세	
55	불연속 합성 섬유	즉각 면세	즉각 면세	
56	심지, 접착섬유	즉각 면세	즉각 면세	
57	양탄자	즉각 면세	즉각 면세	
58	특수 원단	즉각 면세	즉각 면세	자수원단 등
59	방수 원단	즉각 면세	즉각 면세	
60	모든 종류 니트 원단	즉각 면세	즉각 면세	
61	의류 완성품(니트)	즉각 면세	즉각 면세	
62	의류 완성품(우븐)	즉각 면세	즉각 면세	

63	기타 의류	즉각 면세	즉각 면세	
64	신발	10년 이후	10년 이후	
65	모자류	10년 이후	10년 이후	
66	우산	즉각 면세	즉각 면세	
67	솜털, 깃털	즉각 면세	즉각 면세	
68	석고, 돌 제품	10년 이후	즉각 면세	
69	세라믹	10년 이후	즉각 면세	
70	유리	10년 이후	즉각 면세	
71	보석류	즉각 면세	즉각 면세	
72	주물, 철, 철강	10년 이후	즉각 면세	철근, 철사 등
73	철제 가공 제품	10년 이후	즉각 면세	못, 볼트 등
74	동 및 동제품	10년 이후	즉각 면세	
75	니켈 및 제품	즉각 면세	즉각 면세	
76	알루미늄	5~10년 이후	즉각 면세	
78	납	즉각 면세	즉각 면세	
79	아연	즉각 면세	즉각 면세	
80	주석	즉각 면세	즉각 면세	
81	기타 철	즉각 면세	즉각 면세	
82	철 연장 기구	10년 이후	즉각 면세	
83	기타 철 제품	10년 이후	즉각 면세	
84	산업용 기계	10년 이후	즉각 면세	보일러, 컴프레서 등
85	전기용 기계	10년 이후	즉각 면세	모터, 발전기 등
86	기차, 전철	즉각 면세	즉각 면세	
87	자동차	10년 이후	즉각 면세	
88	비행기	즉각 면세	즉각 면세	
89	선박	즉각 면세	즉각 면세	
90	안경, 사진기 등	즉각 면세	즉각 면세	
91	시계	즉각 면세	즉각 면세	
92	악기	즉각 면세	즉각 면세	
93	무기, 탄약	즉각 면세	즉각 면세	
94	가구, 형광 등	5, 10년 이후	즉각 면세	자동차의자, 형광등 등
95	장난감, 스포츠 용품	10년 이후	즉각 면세	
96	각종 제조 용품	10년 이후	즉각 면세	약통, 연필, 칫솔 등
97	예술품, 골동품	즉각 면세	즉각 면세	
98	미국 고유 제품			

DR-CAFTA는 한국 입장에서는 제3자들과의 협정 배경에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북-중미를 타깃으로 삼는 한국 기업들은 심도 있게 DR-CAFTA를 분석하고 최대한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대만은 과테말라와 FTA를 체결, DR-CAFTA와 동일인 2006.7.1일 발효하였다.

나. 중미경제통합협정

이 협정은 1961년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하였다. 과테말라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와 체결하였다. 과테말라의 주

수출품목은 식품, 음료, 화학품, 섬유 등이며 수입품은 식품, 음료, 화학품, 플라스틱, 철 등이다. 역외 공동관세는 현재 시행 중이며 세관 통합도 논의되고 있으나 커피, 석유, 설탕 등의 코스타리카의 자체 관세 문제로 인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

다. 對 멕시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자유무역협정

이 협정은 2001년 체결되었다. 과테말라는 동물성, 식물성 식용유, 소고기, 식품, 음료, 플라스틱, 섬유 등을 수출하고, 수입품은 식품, 음료, 플라스틱, 화학품, 철, 기계, 전기제품 등이다.

라. 對 도미니카 공화국 자유무역협정

이 협정은 2001년에 체결되었으며 과테말라의 주 수출품목은 설탕, 배터리, 비누, 세척제, 목재, 박스, 플라스틱, 섬유 등이며 주 수입품목은 식물성, 동물성 식용유, 화학 제품, 섬유 등이다.

마. 對 파나마 쌍방 특혜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양국간 특혜무역협정은 1975년에 체결되었으며 과테말라 주 수출품목은 화학제품, 기계, 가전, 채소 등이며 주 수입품목은 화학제품, 섬유, 기계, 가전제품 등 주로 공산품이다. 그리고 2008.2월 콜롬 정부 출범 직후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바. 對 대만 FTA

2006.7.1일 DR-CAFTA와 동시에 발효하였다. 이 협정은 대만의 對 미 우회진출을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한 것으로 과테말라는 수출품목 중 약 6,000개의 품목이 제외되었으며 과테말라산 설탕 및 파생제품은 무관세 품목으로 분류되어 과테말라 설탕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무역 수치

과테말라의 2007년도 수출은 69억 3,000만 달러, 수입은 135억 8,000만 달러로 66억 5,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로 국제 고유가 현상에 기인하고 있으며 기계류 및 전자제품 등의 수입 증대도 주 요인이다. 국가별로는 제1의 교역 파트너인 對 미 무역 에서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과테말라의 무역수지

구 분		단위	2003	2004	2005	2006	2007
교역 규모	수출	U\$억	44.6	50.4	53.8	60.1	69.3
	수입	U\$억	81.3	94.7	104.9	119.1	135.8
무역수지		U\$억	-36.7	-44.3	-51.1	-59.0	-66.5

자료: 과테말라 중앙은행

나. 수출 동향

1) 국별 수출동향

과테말라 제1의 수출대상국은 미국으로 2007년도 총수출의 42%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도 대미 수출비중은 50%, 2006년도 46%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2005년부터 전 세계적인 섬유 쿼터 철폐에 따른 중국산 의류의 미국시장 진출 급증 및 이에 따른 과테말라산 의류의 對 미 수출 감소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7월 발효한 DR-CAFTA (중미자유무역협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대미 수출비중은 다시 회복할 전망이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인근 중미국에 대한 수출은 그 비중이 조금씩 증대하고 있다. 2003년도 4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5% 수준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28%를 기록하였다. 2004년 3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3개국 간 무관세 교역 실시도 이러한 중미지역 역내 교역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한국은 2007년도 과테말라의 수출 대상국 중 제11위를 기록하였는데 원당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국별 수출동향

(단위: U\$ 백만)

구 분	2005	2006	2007
총 계	5,380.8	6,012.8	6,925.7
미 국	2,686.4	2,783.2	2,932.4
엘살바도르	653.0	699.6	842.1
온두라스	394.0	481.6	593.5
멕시코	215.8	354.4	464.0
니카라과	213.2	235.3	267.6
코스타리카	205.2	227.8	257.8
파나마	80.5	98.2	119.6
캐나다	73.3	99.6	111.3
도미니카 공화국	49.1	78.5	92.0
독 일	73.8	75.1	85.6
한 국	8.4	84.2	74.8

자료: 과테말라 중앙은행

2) 품목별 수출동향

커피, 사탕수수, 바나나, 카르다몸(Cardamom: 생강의 일종)은 과테말라의 전통적인 4대 수출 품목이다. 1996년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원유를 개발·수출함에 따라 5대 주요 수출 품목의 비중이 2007년도에 24%를 기록하고 있다.

과테말라는 세계 제5위 설탕 수출국으로 2007년도 사탕수수 수출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3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5년 허리케인 피해에 따른 미국의 설탕 생산 감소로 인한 수입 수요 확대, 세계 최대 설탕 수입국 러시아의 수요 증대, 카리브 지역 사탕수수 생산국에 대한 EU 보조금 지원 축소 및 이에 따른 국제가격 상승, 차량연료

에탄올 생산을 위한 아시아 및 브라질의 사탕수수 수요 증가, DR-CAFTA 및 對 대만 FTA 발효에 따른 기대감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2006년 정제되었던 커피 수출은 주요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의 가뭄 및 인도네시아 지진 등으로 인한 세계 커피시장 공급부족, 이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2007년 5억8,0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다.

바나나 역시 국제가격 상승으로 2007년도 3억1,100만 달러를 수출,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으며 최근 생산이 감소하고 있으나 고유가로 인해 원유 수출액도 6.8% 증가하였다.

2003년 자유무역지대 및 Maquila(보세가공업체/주로 섬유봉제업체) 수출이 통계 작성에 포함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수출 품목이 된 의류는 2007년도 14억 달러 수출로 전년 대비 10.3% 감소했다. 임가공 또는 full package 방식으로 생산되는 의류는 對미 수출이 거의 대부분인데 2005년 섬유쿼터 폐지 이후 미국시장에서 중국산 대비 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부진한 실정이다.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US\$ 천)

구 분	2005	2006	2007
총 계	5,380,817	6,012,840	6,925,749
전통 수출품목	1,232,194	1,294,247	1,633,025
- 사탕수수	236,579	298,558	358,122
- 바나나	236,170	215,481	311,064
- 커피	463,971	463,574	577,533
- Cardamom (생강)	70,361	83,438	137,206
- 원유	225,114	233,197	249,100
비전통 수출품목	4,148,623	4,718,593	5,292,724
- 의류	1,527,975	1,564,974	1,403,612
- 화학제품	512,468	536,074	633,622
- 식품류	324,511	394,519	507,010
- 과일/가공식품	246,757	286,069	393,125
- 섬유사/직물	142,941	157,522	178,871
- 건축자재	134,193	153,634	179,683
- 플라스틱제품	111,575	129,018	143,335
- 광물	14,612	125,779	211,896
- 천연고무	81,837	120,968	153,288
- 야채/채소	111,200	115,021	147,209

자료: 과테말라 중앙은행

다. 수입 동향

1) 국별 수입동향

과테말라의 제1 수입대상국 역시 미국으로 2007년도 對 미 수입은 총수입의 34%인 4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과테말라는 석유제품을 거의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DR-CAFTA에 따라 향후 대미 수입은 지속 증대할 전망이다.

미국에 이어 멕시코 8.7%, 중국(홍콩은 별도) 5.7%, 엘살바도르 4.6%, 쿠라사오/안틸레스 및 한국이 각 3.3% 코스타리카 3.0%를 점유하고 있다. 제6위 수입 대상국인 한국에서는 식물 등 섬유류와 자동차 등을 주로 수입하였다.

주요 국별 수입동향

(단위: U\$ 백만)

구 분	2005	2006	2007
총 계	10,492.6	11,914.5	13,578.1
미 국	3,982.4	4,115.1	4,642.7
멕시코	794.2	950.8	1,184.2
중 국	331.9	594.3	778.0
엘살바도르	503.0	544.8	620.8
쿠라사오/안틸레스	96.3	220.0	448.6
한 국	499.9	579.4	444.2
코스타리카	339.3	372.0	405.9
파나마	461.5	401.4	400.2
일 본	275.2	316.7	395.6
브라질	234.7	391.0	309.1

자료: 과테말라 중앙은행

2) 품목별 수입동향

2007년도 석유 및 광산물의 수입은 25억 달러로 총수입의 1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이 주요인이다. 기계류 및 전기전자제품 16.8%, 화학제품 11.7%, 섬유류 9.7%, 수송기계류 7.7%, 철강·금속제품 7.2%, 플라스틱·고무제품 6.7% 등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품목별 수입동향 (HS 분류기준)

(단위: U\$ 천)

품 목 명	2005	2006	2007
산 동물·동물성 생산물	204,225	202,095	235,385
식물성 생산물	340,571	394,339	507,438
동식물 유지 및 납	110,699	118,352	177,121
식료품, 음료, 알코올, 담배 등	510,151	556,174	665,923
광물성 생산물	1,670,659	1,958,556	2,512,798
화학제품	1,287,530	1,405,647	1,582,317
플라스틱·고무 제품	707,962	809,842	904,293
가죽·모피제품	36,326	45,360	41,862
목재·목탄·코르크 제품	30,515	38,272	50,581
펄프·종이제품	468,024	538,807	590,978
섬유류	1,423,366	1,404,489	1,321,105
신발·모자·우산, 조제우모 및 造花 제품	83,683	92,715	97,689
석, 석고·시멘트, 세라믹, 유리제품	107,616	127,566	141,011
보석·귀금속류·모조 신변장식품	44,390	47,839	52,067
철강·금속제품	704,804	829,387	976,561
기계류·전기기기	1,607,583	2,018,241	2,275,411
수송기계류	848,929	989,131	1,048,497
광학기기 등 정밀기기	118,114	134,889	176,151
무기·탄약류	5,699	8,360	10,855
기타	181,286	193,925	209,205
골동품·예술품류	431	525	809
총 계	10,492,562	11,914,510	13,578,055

자료: 과테말라 중앙은행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무역 수지

한-과테말라 교역에서 한국은 지속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4년도 한국의 對 과테말라 수출은 5억 5,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에 달했으며, 흑자폭도 4억 8,800만 달러로 최고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2007년도 흑자액은 3억 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흑자폭 감소는 DR-CAFTA로 인해 양국 간 교역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며 특히 우리의 수출이 수입 대비 더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도 한국의 수출은 3억9,1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8%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8,600만 달러로 11% 감소하였다.

한국의 對 과테말라 무역수지

(단위: U\$ 백만)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출	523	550	499	546	391
수입	66	62	83	96	86
무역수지	457	488	416	450	305

자료: KOTIS 통계

나. 품목별 수출현황

한국의 전통적인 對 과테말라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류로 2004년의 경우 총수출의 70%를 점유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석유류 비중이 높은 이유는 과테말라에 진출한 한국 석유 봉제 업체(2008년 6월 기준 109개사)들의 수요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 석유 쿼터 철폐에 따른 중국 석유제품의 미국시장 진출 급증 및 이에 따른 과테말라산 제품의 경쟁력 저하, 과테말라 국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최근 과테말라의 봉제 분야가 위축됨에 따라 한국의 對 과테말라 석유류 수출도 급감하고 있다. 2007년도 석유류 수출은 전년 대비 26.9% 감소한 1억 9,500만 달러로 비중은 49%에 불과한 수준이다.

석유류 이외에도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최근 과테말라의 건설 붐으로 인해 지난해까지 호조를 보였던 건설중장비 수출도 2007년도에 하향세를 보였다.

그러나 철강제품 및 무선전화기 등 일부 품목은 과테말라의 건설경기 및 통신시장 활황에 힘입어 양호한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단일 품목별로는 식물(2007년도 점유비중 40.3%), 자동차(13.4%), 경유(9.7%) 등이 주요 수출 품목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품목별 수출현황

구 분	2005		2006		2007	
	금액(U\$천)	증감(%)	금액(U\$천)	증감(%)	금액(U\$천)	증감(%)
농림수산물	782	-2.1	1,524	95.0	1,428	-6.3
- 면류	386	-17.2	633	64.1	702	10.9
광산물	52,697	717.8	75,602	43.5	37,959	-49.8
- 경유	52,673	719.9	75,565	43.5	37,932	-49.8
화학공업제품	46,753	83.2	58,998	26.2	38,138	-35.4
- 합성수지	30,262	172.0	32,251	6.6	10,183	-68.4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20,039	7.8	16,715	-16.6	14,990	-10.3
- 타이어	8,029	69.7	6,924	-13.8	7,346	6.1
섬유류	266,910	-30.4	266,345	-0.2	194,725	-26.9
- 섬유원료	1,326	-4.6	1,880	41.8	2,159	14.8
- 섬유사	18,219	-24.6	18,587	2.0	11,543	-37.9
- 직물	220,572	-32.9	213,812	-3.1	157,731	-26.2
- 편직물	197,484	-32.4	195,443	-1.0	148,002	-24.3
- 섬유제품	26,794	-8.2	32,067	19.7	23,292	-27.4
생활용품	4,897	-4.7	5,705	16.5	4,649	-18.5
철강금속제품	9,143	24.2	12,260	34.1	15,680	27.9
- 철강제품	8,589	38.0	11,502	33.9	15,004	30.5
기계류	84,154	17.1	97,336	15.7	72,662	-25.3
- 섬유기계	6,302	-5.5	7,429	17.9	4,473	-39.8
- 재봉기	2,999	-37.2	2,497	-16.7	1,959	-21.6
- 건설중장비	1,736	273.7	6,477	273.1	5,555	-14.2
- 자동차	64,112	26.7	73,683	14.9	52,465	-28.8
- 자동차부품	1,995	-21.1	2,026	1.6	1,954	-3.5
전기전자제품	12,202	-58.9	10,154	-16.8	9,619	-5.3
- 무선전화기	4,517	-79.8	865	-80.8	1,054	21.8
- 컴퓨터	1,315	329.5	1,207	-8.2	194	-83.9
- 냉장고	995	-25.7	1,620	62.8	1,040	-35.8
- 축전지	3,143	25.8	3,100	-1.4	5,057	63.1
잡제품	1,410	55.3	1,368	-3.0	1,521	11.5
- 무기류	515	9.2	666	29.3	878	31.8
계	498,986	-9.3	546,007	9.4	391,375	-28.3

자료: KOTIS 통계

다. 품목별 수입현황

한국의 對 과테말라 주요 수입품목은 원당으로 2007년도 총수입의 93%를 점유하고 있다. 알루미늄 스크랩도 2007년도 중 대폭 수입이 증가한 반면 동 스크랩은 대폭 감소하였다. 커피, 천연고무 등도 소량이나마 지속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품목별 수입현황

구 분	2005		2006		2007	
	금액(U\$천)	증감(%)	금액(U\$천)	증감(%)	금액(U\$천)	증감(%)
농림수산물	80,022	32.0	92,071	15.1	80,814	-10.8
- 커피	435	-3.4	1,730	297.6	753	-56.5
- 원당	79,015	32.5	89,807	13.7	79,398	-11.6
- 천연고무	346	-18.7	381	10.1	404	6.0
광산물	236	-45.8	154	-34.5	155	0.7
화학공업제품	50	13,632.0	2	-95.9	13	544.3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4	-79.5	0	-96.3	2	1,230.7
섬유류	1,136	45.6	550	-51.6	574	4.4
- 편직물	154	447.2	163	5.6	0	-
- 의류	640	24.6	313	-51.1	503	60.8
생활용품	8	-50.9	57	618.1	123	116.6
철강금속제품	1,252	996.1	3,101	147.7	3,242	4.6
- 알루미늄스크랩	81	-	311	285.8	2,405	672.7
- 동스크랩	1,163	920.9	2,788	139.7	703	-74.8
기계류	569	576.5	141	-75.2	535	278.7
전기전자제품	18	-53.5	24	38.8	237	873.8
잡제품	1	-26.8	2	255.0	1	-59.3
계	83,296	34.1	96,102	15.4	85,697	-10.8

자료: KOTIS 통계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금지 품목

과테말라는 1988년도 UN의 마약 및 향정신성약물 거래금지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동 품목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다.

나. 수입허가/등록 품목

1) 개 요

각종 법령에 의해 수입 시 사전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품목은 다음과 같다.

관련 코드	구 분	관련법규	담당부서
AA	농수산물	. Decreto 36-98 . Reglamento 745-99 . Acuerdo Ministerial 679-99 . Acuerdo Ministerial 1029-99 (조류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검역법) . Acuerdo Ministerial MAGA 1090-2001 (수상/수중생물자원 및 부산물 수입 규칙)	농업부 (Ministerio de Agricultura)
AM	무기/탄약	. Decreto 123-85 . Acuerdo Gubernativo 14-74	국방부 (Ministerio de Defensa)
EM	에너지/광산	Decreto 109-97 (탄화수소 거래법)	에너지광산부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
LE	환경규제	Decreto 17-2001	환경부 (Ministerio de Medio Ambiente)
PC	중고타이어	Acuerdo Gubernativo 900-83	과테말라시청 (Municipalidad de Guatemala)
PF	화약류	Acuerdo Gubernativo 28-2004	노동/사회안전부 (Ministerio de Trabajo y Prevención Social)
SA	식품류	Decreto numero 90-97 del Congreso de la Republica (Código de Salud)	보건부 (Ministerio de Salud)
SM	의약품	. Decreto numero 90-97 del Congreso de la Republica (Código de Salud) . Acuerdo Gubernativo 712-99 Reglamento para el Control Sanitario de los Medicamentos y productos afines . Acuerdo Gubernativo 54-2003	보건부 (Ministerio de Salud)

자료: 국세청(SAT / Superintendencia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

2) 품목별 내용

- 육류, 생선, 낙농제품 등은 농업부의 동물검역 INSPECTION 을 받아야 한다.
- 식물, 채소, 식물성제품, 과일, 커피, 차, 곡물 등은 농업부의 식물검역 INSPECTION 을 받아야 한다.
- 설탕 수입 시는 농업부의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음료, 알코올, 식초 등은 재무부의 조세검토와 농업부의 사전 INSPECTION 이 필요하다.
- 의약품 수입 시는 성분검사 등 SANITARY INSPECTION 후 보건부 의약관리청에 등록해야 한다. 위생등록에는 품목당 약 5백 달러가 소요되며 4개월 정도가 걸린다. 등록 유효 기한은 5년이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 유기 및 무기화학품은 보건부의 마취성 여부 검역이 필요하며, 방사성 원소와 관련 폐기물 등은 에너지광업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제품, 건전지, 배터리 등의 찌꺼기와 폐기물 등은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 중고신발, 의류 등은 수출국 보건당국이 방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 자동차, 전자제품을 포함한 사치성 소비재 및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이프 가드를 허용, 관세조정(과테말라의 경우 최고 45%)이 가능하다.
- 철강제품의 경우 건설업체나 최종 소비자들은 상공회의소가 제시하는 건축의 사전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건물의 붕괴에 대비, 사전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에서는 특별한 검사가 없으므로 수입상이나 판매대리점들이 특별히 수입품에 대한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 건축자재의 경우 자재종류에 따라 수입허가 조건이 다르다. 타일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ASTM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자재의 스펙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사전에 샘플을 제출, 수입자로 하여금 증명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이와 같은 조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현재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실시되고 있지 않다.

5. 관세제도

가. 수입관세

과테말라는 인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코스타리카 등과 함께 중미 경제 통합 기구(SIECA/Secretaria de Integración Económica Centroamericana)의 공동 관세율(SAC)을 채택하고 있다.

SAC에 의하면 대부분의 품목은 0~17%의 종가세(CIF 기준)가 적용되나 알코올 음료는 최고 40%, 옥수수(white, 과테말라산), 설탕, 궤련(담배를 함유한 것, HS240220), 일부 차량 및 무기·탄약 등은 최고 20%까지 적용된다.

나라마다 관세가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및 부품 등인데 과테말라의 경우 승용차, 밴 및 미니밴은 20%, 픽업 15%, 버스 및 트럭은 각 5%이다.

□ SIECA 관세율 찾는 방법

<http://www.sieca.org.gt> > 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 SAC - > 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 (찾고자 하는 품목의 HS 관세율표상) 해당 부 선택(표

왼쪽에 로마자 표기 / I: 제 1 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물 ... XXI: 제 21 부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 (찾고자 하는 품목의) HS 2 단위 선택 > Partida: HS 번호 / Descripción: 품목명 / DAI: 관세율

나. 수출세

과테말라는 커피 및 비전통상품(일시 수출 및 자유무역지대 수출 예외) 수출 시 FOB 1%의 수출세를 부과하며 소고기는 kg당 U\$0.02, 바닷가재(Lobster)는 kg당 U\$0.1을 부과한다.

모든 수출업체는 수출상품 가격의 1.5%(FOB 기준)에 해당하는 세금면제 혜택을 받으며 커피, 면화, 설탕, 목재, 바닷가재, 바닷새우 등의 수출 시에는 생산가격의 65%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다. 예외

1) 중미 3국간 무관세 교역

2004년 3월 과테말라-엘살바도르는 상호 간 상품, 서비스 및 사람의 자유왕래를 실시하였으며 온두라스는 2004년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3국간에는 커피, 사탕수수, 에틸 알코올, 증류주, 석유제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품 수출입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 FTA

과테말라는 현재 멕시코, 미국, 대만 등과 FTA를 체결하고 단계적인 무관세 교역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6년7월 발효된 對미 FTA(DR-CAFTA/중미자유무역협정)로 對미 수입 품목의 80% 이상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3) 수출진흥법(Ley de Maquila) 및 자유무역지대법

Maquila 산업(보세가공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1989년의 수출진흥법(Ley de Fomento y Desarrollo de la Actividad Exportadora y de Maquila) 및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관한 1989년의 자유무역지대법((Ley de Zona Franca)에 따라 장비 및 기계류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세,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유예 등의 혜택이 있다.

4) 기 타

□ 기타 특별법에 의한 관세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다.

재생에너지 및 광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제정된 환경보호법 및 재생에너지 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기계류 및 장비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된다. 수력발전(지열발전 제외)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자본재 수입 시에도 관세가 면제된다.

관광법에 따라 과테말라 또는 중미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 건축자재, 관련기계, 전기기구, 차량, 선박, 식탁용 철물, 가구 및 엔터테인먼트 장비 등의 수입 시 10년간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면제된다.

석유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5년간 생산요소의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고 재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보증담보 없이 관세부과가 유예된다.

과테말라의 주요 산업공단인 Santo Tomás de Castilla 자유무역지대 및 CACAO 산업공단 등의 입주기업들은 수출입 시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6. 주요인증제도

과테말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증제도는 식료품 인증제도로 모든 수입 식료품은 보건부의 위생증명서(Certificado de Fitosanitario)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외에 화학제품 등은 위험품목(Dangerous Goods)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배터리의 배터리 액은 반드시 사전 위험품목 수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7. 지적재산권

가. 개 황

다수의 지적재산권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과테말라는 10년 전에 비해서는 다소 나아졌으나 아직까지 지재권 보호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USTR 보고서에 의하면 과테말라는 1999년부터 우선감시대상국에 속해 있었으나 2001년 일반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된 이래 2007년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0년 과테말라는 미국의 압력으로 새로운 특허, 상표 및 지적재산권법(Decreto 57)을 제정하였으며 1998년의 저작권법도 일부 수정하였다. 그러나 위조상품 및 불법 소프트웨어 제작 등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은 DR-CAFTA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과테말라 국회는 2005년 기존 산업재산권법(Ley de Propiedad Industrial)의 개정 법안 및 2000년 지재권법의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재산권법의 개정으로 인해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약품(generic)의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특허권자는 generic 약품의 제조업체에 대해 불공정 상행위에 따른 제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수정 지재권법은 약품 및 농업용 화학제품의 시험데이터에 대해서도 5년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BSA(사무용소프트웨어 연합회/Business Software Alliance)는 과테말라를 전 세계에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가장 성행하는 20개국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데 BSA에 의하면 2006년도 과테말라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81%, 이에 따른 피해액은 2,600만 달러로 추산된다.

과테말라 검찰은 2001년 지적재산권 침해사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불법 CD 및 DVD 판매를 가کم씩 단속하고 있으며 2005년 수정 지재권법은 소프트웨어 및 음악의 불법 복제에 대해 1만 달러 수준의 벌금부과 및 4년간의 징역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미약하다.

한편 중미경제통합의 일환으로 체결된 중미 산업재산권 보유협약에 따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어느 나라에서 등록을 하든 역내에서는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테말라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가입 및 협약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국제기구 가입: WTO,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국제협정 체결
 - Paris Convention, Bern Convention, Rome Convention, Phonograms Convention, Nairobi Treaty, WIPO Copyright Treaty,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Budapest Convention on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Washington Convention), UPOV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지적소유권의 등록은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등록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나. 특허권

과테말라는 1985년 특허법을 2000년에 개정하였다. 개정법에 의해 특허권은 2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유기체, 화학물질, 의약품 및 농산물 등이 특허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다. 수확 공식, 과학이론, 경제법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005년 초의 개정법으로 인해 일반 약품(generic)의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농산물 및 화학제품에 대한 보호도 강화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약 품 및 화학제품의 시험 데이터도 5년간 특허로 보호된다.

다. 상표권

과테말라는 1992년 상업상표에 관한 파리협약에 가입했으나 위조상품 방지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라. 저작권

로마협약 및 제네바협약 가입에 따라 과테말라 정부는 1998년 녹음, 예술작품, 소프트웨어 및 케이블방송 등의 보호를 위한 법령(Decreto) 33/98호를 제정한 바 있다. 케이블 방송을 통제하는 과테말라 통신부(Ministerio de Comunicaciones)는 해적방송을 범죄로 단속하고 있으며 BSA 역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및 위성방송의 해적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8. 통관/운송

가. 통관

1) 개황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심사 및 물품검사, 반출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과테말라 세관은 검사가 까다로운 편으로 2일 내 통관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컨테이너

헤드 부족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사 및 물품 검사 시 선적 서류 하자로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보통 하주가 지정한 통관사 또는 운송회사(통관 서비스도 실시)가 통관을 완료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하게 된다.

최근 한국으로부터의 화물에 대해서는 인스펙션이 강화되는 추세로 인보이스상 기재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전체 통관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금액도 재책정 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통관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 수입신고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 수입신고서(Poliza de Importacion) 또는 중미공동수입 신고양식(중미 5개국에서 수입 시)
 - 상업송장(Factura comercial)
 - 선적서류(Carta de Porte, Guia Aerea, Conocimiento de Maritimo)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도착통지서
 - 기타 서류(제세 면제시의 관련서류 등)

한편 일시수입(Importacion Temporal)인 경우에는 일시 수입신고서, 재수입(Reimportacion)의 경우에는 재수입신고서 등 수입형태에 맞는 수입신고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최근 과테말라 국세청은 세관 수입신고서를 전산 처리하므로 통관수속 시간이 훨씬 단축되었으며, 국제특배의 경우는 물건 도착 이전 Invoice만 있으면 통관수속을 미리 밟아 물건 도착 시 배송할 수 있다.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12%)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과테말라는 CIF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므로 FOB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Invoice 금액으로 과세하게 되며, 또한 물품검사 과정에서 Invoice상 기재되지 않은 화물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과세한다.

2005년 6월부터 국세청은 10만 개찰(U\$13,160 수준/환율 U\$1=7.6Q 기준) 이상의 관세납부는 서류로 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3) 서류 및 물품검사

수입신고 관련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상업송장의 각 항목과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한다. 일반적으로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결과 청색신호(Semaforo Verde)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되나 적색신호(Semaforo Rojo)가 떨어진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전량 대조한다.

서류심사는 보통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대개 중남미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적색신호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단 적색신호가 떨어져 전량조사를 하는 경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상업송장과 포장 명세서 등 각종 신고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화물의 반출

각종 세금, 벌금 납부가 완료되면 화물을 반출할 수 있다.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의 경우 12 일까지는 기본 창고료(인보이스 금액 또는 화물의 양에 따라 상이/보통 10 CBM 기준 60달러 수준)가 부과되며 통관지연으로 그 이상 경과한 경우 추가 창고료를 납부해야 한다.

나. 운 송

과테말라의 주요 항구는 태평양의 깨찰항(Puerto Quetzal), 카리브해의 바리오스항(Puerto Barrios) 및 산토 토마스 데 까스띠야항(Puerto Santo Tomás de Castilla) 등이 있다.

아시아 및 미국 서부지역과의 교역은 깨찰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과테말라시티까지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미국 동부 및 유럽과 교역이 이루어지는 바리오스항 및 산토 토마스 데 까스띠야 항에서 과테말라시티까지는 약 6시간이 걸린다.

항공화물은 과테말라시티에 위치한 라 아우로라(La Aurora) 공항을 통해 반출입 된다.

한국-과테말라 간에는 Maersk, NYK, CCNI, CSAV, Maruba, CMACGM, China Shipping, MSC 등 8개 정기화물 라인이 보통 주1회 운항되며 L.A.에서 과테말라로 직접 오거나 도중 멕시코를 거쳐 오기도 하는데 소요기간은 20~22일 정도이다.

20피트 컨테이너 1대당 운임은 3,300달러 수준인데 월 몇 대, 연간 몇 대 등으로 대량 물량 계약 시 3,000달러 이하로 낮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대량물량 거래 시 바이어들은 CIF 거래를 원하며 소량물량인 경우 FOB 가격을 요구, 운임은 자신들이 지불하기도 한다.

세부 운송비용은 다음과 같다.

- Ocean Freight (부산-과테말라시티 기준)
 - 20 " 컨테이너: 3,300 달러
 - 40 " st 컨테이너: 4,350 달러
 - 40 " hq 컨테이너: 4,550 달러
 - 선사 및 forwarding 업체, 시즌 등에 따라 상기 rate 는 다소 차이가 있음.
- 통관비용
 - MBL (Master B/L) 인쇄: 20 달러
 - D/O (Document) Fee: 45 달러
 - 통관 수수료: 100 달러(제품에 따라 편차 있음)
 - 기타 부대비용(소독, seal, 서류 등): 25 달러
 - Inspection fee: U\$90~125 (Random 검사에서 적색 불이 나온 경우/녹색 불이 나오면 검사 없이 통과)
- 참고: 깨찰항까지만 화물이 오는 경우 ocean freight 는 상기 부산-과테말라시티보다 낮지만 아래 비용이 추가되어 전체 비용은 더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급적 과테말라 시티(Ciudad de Guatemala)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다.
 - D/THC (Destination Terminal Charge): 120 달러
 - Muelleaje(계선료): 125 달러
 - IN-LAND(내륙운송비용): 500 달러

다. 통관 및 운송업체

1) 통관업체

- Sertobar
 - 주소: 14 avenida 25 - 06, zona 5, Guatemala, C.A.
 - 전화: (502) 2360-4430
 - 팩스: (502) 2331-2294
 - E-mail: aurora.hernandez@ges.com
 - Website: www.sertobar.com
- Ancarsa
 - 주소: 5 avenida 13-48, zona 9, Guatemala, C.A.
 - 전화: (502) 2361-3377
 - 팩스: (502) 2332-3838
 - E-mail: info@ancarsa.com
 - Website: N/A
- Logistica Aduanal
 - 주소: 7 avenida 4-44, zona 9 CC Galeria oficina 15, Guatemala, C.A.
 - 전화: (502) 2384-9400
 - 팩스: (502) 2384-9444
 - E-mail: mercadeo@mega-transport.com
 - Website: www.mega-transport.com
- Corsina
 - 주소: 10 avenida 12-18, zona 1, Guatemala, C.A.
 - 전화: (502) 2253-8321
 - 팩스: (502) 2253-9888
 - E-mail: eflf@inteln.net.gt
 - Website: N/A

2) 운송업체

- Consolidados 807, S.A.
 - 주소: 25 Av. 31-23, zona 12 Colonia Santa Elisa, Guatemala, C.A.
 - 전화: (502) 2429-0900 ext. 260
 - 팩스: (502) 2485-0060
 - 담당자: 이주하(Ricardo Lee / Project Director)
 - E-mail: jhlee@consolidados807.com
 - 핸드폰: (502) 5708 - 8062
 - Website: www.consolidados807.com
- Maersk Logistics
 - 주소: 13 calle 3-40, zona 10, Edif. Atlantis, Of. 902, Guatemala, C.A.
 - 전화: (502) 2379-7272

- 팩스: (502) 2366-1972
- E-mail: gmalogmng@maersk-logistics.com
- Website: www.maersklogistics.com

- Cañiz
 - 주소: Avenida Hincapie 5-13, zona 13, Guatemala, C.A.
 - 전화: (502) 2420-8080
 - 팩스: (502) 2334-8511
 - E-mail: caniz@caniz.com
 - Website: www.caniz.com

- Transmares S.A. (일본 NYK 선사의 에이전트)
 - 주소: Diagonal 6, 10-01, zona 10, Edif. Las Margaritas, Nivel 8, Guatemala, C.A.
 - 전화: (502) 2429-8191
 - 팩스: (502) 2429-8180
 - E-mail: mngtrans@transmares.net
 - Website: www.transmares.org

- Kuehne + Nagel
 - 주소: 15 calle A, 14-44, zona 10, Edif. Maria Melia, Of. 402, Guatemala, C.A.
 - 전화: (502) 2364-5060
 - 팩스: (502) 2364-5061
 - E-mail: info.guatemalacity@kuehne-nagel.com
 - Website: www.kuehne-nagel.com

- Rique(아르헨티나 Maruba 선사의 에이전트)
 - 주소: Diagonal 6, 10-01, zona 10, Edif. Las Margaritas, Of. 301, Guatemala, C.A.
 - 전화: (502) 2379-9100
 - 팩스: (502) 2379-9150
 - E-mail: rique@rique-gua.com
 - Website: www.maruba.com.ar

- Cropa Panalpina
 - 주소: 3 Calle 6-70, zona 13, Pamplona, Guatemala, C.A.
 - 전화: (502) 2474-9000
 - 팩스: (502) 2472-3413
 - E-mail: informacion@cropa.com.gt
 - Website: www.cropa.com.gt

IV. 투자

1. 투자환경

과테말라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투자 승인도 철폐하고 과실송금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문호는 거의

완전 개방되어 있다. 또한 수출진흥법(Maquilla법) 및 자유무역지대법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태평양과 카리브해에 연해 있는 지리적 위치상 북미, 아시아 및 유럽과의 해상운송이 용이하며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인구 3억2,500만 명의 북미시장과 인접해 신속한 딜리버리가 가능한 점은 과테말라의 가장 유리한 투자여건이다. 이러한 이점은 2006년 7월 발효한 DR-CAFTA(중미자유무역협정)로 더욱 강화되었다.

안정적 환율, 지속적 경제성장 등 거시경제의 착실한 운영도 투자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있으며 지난 1996년 과테말라 내전 종식을 계기로 중미지역이 정치적 안정을 회복함에 따라 최근에는 각종 인프라 개발도 활기를 띠고 있다.

해안지방부터 최고 4,000m나 되는 고도의 산악지대까지 지형에 따라 매우 다양한 기후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이 다양하며 수도권을 포함한 1,500m 이상 고지대는 연평균 18~20도 내외의 온대성 상춘 기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행정력의 후진성, 2000년대 들어 급속 인상된 임금수준 및 높은 전기료 등은 외국인 투자 증대의 저해 요인이다.

특히 기초공업이 빈약하기 때문에 자체 원자재 조달이 어려우며 자체생산이 가능한 원자재의 경우도 규모의 생산성 문제로 가격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제반 기술수준도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마약밀수 성행, 극심한 빈부차 등으로 사회치안이 극도로 불안하여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각종 범죄가 빈발하며 컨테이너 분실, 현금 도난, 공장 주요시설 절도 등의 조직적인 범죄도 자주 일어난다. 美 상부무에 의하면 과테말라에 진출한 대기업들은 경상비용의 25%를 안전 대책 수립에 지출하고 있다.

중전 과테말라에 진출한 업체는 대부분 미국, 스페인 및 독일계 등이었으나 최근 멕시코 등 인근 중남미국 기업의 진출이 증대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對 대만 FTA 발효 이후 對 미 우회 수출을 위한 대만 및 홍콩계 기업 진출도 두드러지고 있다.

섬유봉제 분야에서는 한국업체가 단연 압도적이거나 2005년 이후 과테말라 봉제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진출업체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 한때 250개사 이상의 한국계 업체가 있었으나 2008년 6월 현재는 109개사가 존속하고 있다.

과테말라의 외국기업들은 대부분 단독투자 형태로 진출하여 있다. 과테말라 기업과의 합작투자 또는 지분매입의 경우도 있으나 주로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모기업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합작투자 시 외국기업은 주로 지분만을 인수하고 경영은 과테말라 업체가 맡는 경우가 보통이며 수입 원자재 구입은 외국기업이, 영업과 생산은 과테말라 기업이 수행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과테말라 상법에 의하면 합작투자(negocios en participación)는 기업이나 법인이 아니라 계약 그 자체로 간주된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투자동향

1) 연도별 동향

과테말라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4년 친기업적인 Berger 정부가 출범하고 2006년 DR-CAFTA 및 對 대만 FTA가 정식 발효되면서 최근 큰 폭으로 증대하고 있다.

과테말라 중앙은행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외국인투자액은 1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으나 2005년 47%, 2006년 56%, 2007년 51%가 증대되었다. 2007년도 투자액은 5억4,0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과테말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단위: U\$ 백만)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105.5	110.6	131.0	154.7	226.8	353.8	535.8

자료: 과테말라 중앙은행

2) 업종별 동향

과테말라 중앙은행은 전체적인 외국인투자 금액만 발표할 뿐 업종별, 국별 투자액은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 동향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과테말라 투자청(Invest in Guatemala)은 자신들이 유치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만 업종별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투자청 자료에 의하면 투자청 설립 이후 2004~2007년 기간 중 총 8억4,00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중점 유치대상 분야는 풍부한 농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분야, 전자,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등의 조립분야, 콜센터 및 관광 인프라 분야 등이다.

과테말라의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업종	투자금액(U\$천)	고용인원(명)
농산물 가공	164,650	3,260
제조 및 조립	321,350	4,710
콜센터 및 BPO	39,860	5,070
관광	55,250	745
기타	259,330	8,450
계	840,440	22,235

주: 2004~2007년 누적/ 투자청 유치

자료: 과테말라 투자청(Invest in Guatemala)

나. 주요 외국투자기업

최근의 주요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은 다음과 같다.

- Banco Azteca Centroamérica
 -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전문품 판매업체이며 소비자 금융, 은행업 및 금융서비스 업체인 멕시코 Electra 그룹의 자회사로 2007년 5월 과테말라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Electra 그룹의 가정용품 판매장을 이용해서 저소득층 대상, 저리용자 및 소규모 저축 예금 등을 취급하고 있다.
- Royal Bank Trinidad & Tobago Merchant Bank
 - 과테말라 Xalbal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1억8,200만 달러의 자금을 조성하여 온두라스 Tierra 그룹(프로젝트 총괄), 이스라엘 Solel Boneh(발전소 건설) 등과 함께 참가하고 있다.
- Aero Union
 - 멕시코의 항공화물 운송업체로 2006년 6월부터 과테말라에 진출, 영업을 하고 있다.
- Envases Universales
 - 멕시코의 음식 포장용기 생산업체로 2006년 6월 과테말라에 진출, 과테말라시티 인근 Flor del Campo 산업단지에서 수출진흥법(Ley de Maquila)의 관세혜택으로 알루미늄 캔을 생산하고 있다. 투자액은 3,500만 달러 규모이다.
- Endesa
 - 스페인 전기회사로 IDB(미주개발은행) 자금 지원 하에 콜롬비아 전기회사 ISA 및 중미 6개국 전기회사와 함께 EPR(Empresa Propietaria de la Red) 사를 설립, 중미지역을 횡단하는 송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 총 투자규모는 3억2,000만 달러이다.
- Big Cola
 - 콜라를 생산하는 페루 기업으로 2005년 600만 달러 규모의 초기투자 이후 지속 재투자를 실시하여 2007년 투자규모는 18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Bimbo
 - 멕시코 기업으로 2005년 1,800만 달러, 2007년 2,000만 달러 총 3,8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단빵(sweet bread)을 생산하고 있다. 2007년도 판매액은 5,400만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다.

한편 최근의 주요 지분 매입 사례로는 2005년 월마트의 Hiperpaiz 지분 매입이 있다. 월마트는 2005년 10월 네덜란드 Royal Ahold사의 CARHCO(중미소매지주회사/Central American Retail Holding Company)사 지분을 33.3% 매입하였으며 2006년 3월에는 51%까지 증대시켰다. 이에 따라 월마트는 과테말라의 대형 슈퍼마켓 Hiperpaiz를 포함,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 등 중미 전역의 슈퍼마켓 체인점을 장악하고 있다.

3. 우리기업 투자동향

우리나라 기업의 對 과테말라 투자진출은 한국은행 투자승인 기준으로 2007년 말 현재 71건, 1억 달러 규모이며 대부분 섬유·봉제 분야에 진출해 있다.

과테말라 섬유협회(VESTEX)에 의하면 2008.6월 현재 한국계 업체는 봉제 103개사, 섬유 및 염색 6개사 총 109개사가 있다. 지난 2005년 전 세계적 섬유 쿼터 폐지 및 과테말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미국시장에서의 중국산 대비 경쟁력 약화로 많은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베트남 등으로 이전해 현재는 과거 전성기의 절반도 안 되는 실정이다. (과테말라의 전체 봉제업체 수는 176개사, 섬유/염색 업체는 15개사로 총 191개사가 있음). 한국계 봉제업체의 상당수는 현지에서 자생한 업체들이다.

이 외에 LG전자, 삼성전자 지사가 있으며 건설 분야에도 소수 업체들이 있다.

한국의 對 과테말라 투자현황

(단위: U\$천/건)

구 분	2005	2006	2007	누계(1986~2007)
제조업	12,892 / 2	113 / 2	0	84,806 / 69건
기타	0	0	17,059 / 1	17,115 / 2건
계	12,892 / 2	113 / 2	17,059 / 1	101,921 / 71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 관련법 개요

1) 외국인 투자법

- 기존의 타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외국인 투자 관련 내용을 통합해 시행령(Decreto) 9-98 호로 발표된 1998 년의 외국인 투자법(Ley de Inversión Extranjer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투자가는 직접 또는 과테말라 국민이나 기업과 합작을 통해 투자하는 외국의 개인이나 기업을 의미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승인 철폐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전 재산권 인정 및 몰수, 내부적 2·3중 과세 금지
 - 외국 기업은 과테말라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관련법의 보호를 받으며 과테말라의 법률 및 사법 시스템에 종속됨.
 - 교통, 무선통신, 위성통신 및 주택건축 분야에 대한 과테말라 국내 자본의 참여조건 폐지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위한 투자청(Invest in Guatemala) 설립
 - 국내항공 및 육상운송 등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 제한 철폐(2004년 개정법)
- 한편 1995 년의 개정 중앙은행법(Ley Orgánica del Banco de Guatemala)에 따라 외국 은행은 은행감독원(Superintendencia de Bancos)에 등록만하면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수출진흥법(Ley de Maquila, 일명 ‘마킬라’법)

- 보세가공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촉진 및 수출진흥을 위해 1989 년 시행령(Decreto) 제 29-89 호로 수출진흥법(Ley de Maquila/ Ley de Fomento y Desarrollo de la Actividad Exportadora y de Maquila)이 발표되었다.
- 동법에 따라 마킬라(Maquila) 업체(조립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무관세로 관련장비 및 자재를 수입, 생산품을 과테말라 외의 나라로 재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승인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 기계류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 원부자재 및 포장재 수입 시 1년간(2년간 연장가능) 관세유예
 - 소득세 10년간 면제(2015년까지/2016년 이후 對 과테말라 투자업체는 면세혜택 없음)
 - 평화협정세(IETAAP/2008년까지 존속) 면제
- 동 법에 의하면 마킬라 기업이 위치한 장소는 과테말라 국내 어디든 관계 없이 자유 무역지대로 간주되며 기업 폐쇄 시 설비의 이동도 보장된다.

3) 자유무역지대법

- 자유무역지대 설치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1989 년의 자유무역지대법((Ley de Zona Franca/ Decreto 65~89)도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의 승인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
 - 제조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 기계류, 공구, 원부자재, 반제품, 컨테이너 및 포장재 등의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등 수입 관련 제세 면제
 -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발생한 제조 또는 서비스에 대한 12년간 소득세 면제
 - 자유무역지대 간 이전된 상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업체
 - 판매를 위해 자유무역지대내에 보관된 상품 및 부속품에 대한 관세, 부가세 및 수입 부대 비용 면제
 -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상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5년간 소득세 면제
 -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또는 자유무역지대간 이전된 상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4) 환경 및 문화유적 관련법

- 과테말라에서 시행되는 모든 투자 프로젝트는 환경보호규칙(Reglamento de Evaluación, Control y Seguimiento Ambiental)에 따라 환경자연자원부 (MARN/ Ministerio de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의 환경영향 검토를 받아야 한다.
- 또한 고고학적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적지 인근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는 문화 스포츠부(Ministerio de Cultura y Deporte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투자 장려 분야

1) 농산물 가공

전통적 농업국인 과테말라는 전 세계 제5위의 설탕 수출국이며 과테말라산 아라비카(arábica) 커피는 국제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 외에 바나나, 카르다몸

(생강의 일종) 등도 주요수출 품목이다. 이와 같이 농업이 발달된 배경에는 정부와 Asazgua(과테말라 설탕협회) 등 민간부문이 상호 협조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수행한 전략적 개발 노력이 있었다. 이에 따라 농업 부문의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산업은 과테말라의 가장 유망한 투자대상 분야이다.

농산물 가공분야 투자 시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캐나다 등 북미(인구 3 억 2,500 만 명), 멕시코(1 억 명) 및 중미(3,700 만 명) 시장과의 지리적 근접성
- 360 가지 이상의 미(微)기후에 따른 농산물 원자재의 다양성
- 농업분야의 풍부한 숙련 노동력
- 포장산업(플라스틱, 카톤, 유리 및 알루미늄 등) 발달
- 태평양 및 카리브해의 항구를 통한 화물운송 용이
- 관련단체(AGEXPORT 등) 지원 등

과테말라 투자청(Invest in Guatemala)은 2004~2007년 기간 중 동 분야에서 1억6,000 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풍부한 설탕생산을 활용할 수 있는 캔디 및 단빵(sweet bread) 생산, 열대과일 및 야채를 활용한 주스, 음료 및 통조림 생산 등의 분야이다.

2) 제조 및 조립산업

현재 과테말라의 주요 제조업은 대부분 섬유봉제 및 식품생산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데 향후 과테말라 정부는 전자, 자동차부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조립생산을 전략분야로 선정하고 DR-CAFTA를 활용,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3) 콜센터 및 BPO

콜센터 및 BPO 산업은 과테말라에서 약 15년 전에 시작된 산업으로 현재 약 50개 콜센터에 9,000명의 교환원이 있다. GE Money, 24/7 Customer 등 미국계 업체들이 많이 있으며 스페인 Digitex 등도 진출해 있다.

과테말라는 중미지역에서는 비교적 첨단 기술과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 관광

과테말라는 1979년 UNESCO에 의해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 받은 Antigua시(중남미 도시 중 스페인 식민시대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음) 및 Tikal의 마야유적 외에도 이사발(Izabal) 호수 및 카리브 해안, 아티틀란(Atitlán) 호수, 빠카야(Pacaya) 화산 등 역사와 변화무쌍한 자연환경이 겸비된 관광자원을 보유한 나라로서 관광업은 주요 성장산업의 하나이며, 관광객 수와 외화수입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관광객을 맞아 들일 인프라는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2007년 기준 과테말라의 총 방문객 수는 163만 명(순수 관광목적 44%, 친지방문 21%, 비즈니스 및 업무 21%, 기타 14%)으로 지난 2003~2007년의 4년간 방문객은 연평균 17%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7년도 호텔 객실은 20,840실로 지난 4년간 연평균 4.5% 증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각종 등급의 호텔 건축을 포함한 관광 인프라 개발은 유망한 투자대상 분야가 되고 있다.

관광분야 투자의 경우 관광법(Ley de Turismo / Decreto 1701, 22-71, 22-73, 68-85)에 따라 과테말라 또는 중미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 건축자재, 관련기계, 전기기구, 차량, 선박, 식탁용 철물, 가구 및 엔터테인먼트 장비 등의 수입 시 10년간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면제된다. 또한 기존 구조물의 확장 또는 건물 신축 시 부동산세도 면제 된다.

5)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및 광업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제정된 환경보호법(Ley de Protección y Mejoramiento del Medio Ambiente / Decreto 68-86) 및 재생 에너지 개발촉진법 (Ley de Incentivos para el Desarrollo de Proyectos de Energía Renovable / Decreto 52-2003) 등에 의해 기계류 및 장비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되며 소득세도 100% 까지 감면된다. 2003년 개정법에 의해 소득세 감면기간은 10년으로 연장 되었다. 수력 발전(지열발전 제외)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자본재의 수입 시에도 관세가 면제된다.

6) 원유개발

석유 프로젝트의 경우 탐사 및 채굴 비용의 100%가 소득공제 가능하며 투자자들은 5년간 생산요소의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고 재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보증담보 없이 관세부과도 유예된다. 또한 해외에 외환보유가 가능하며 유전 발견 시 매장량 및 질에 따라 탐사 및 시추비용을 100% 보전 받을 수도 있다.

7) 기 타

카리브 해안지역의 주요 산업공단인 Santo Tomás de Castilla 자유무역지대 및 CACAO 산업공단 등의 입주기업들은 수출입시 무관세 혜택을 받으며 공단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 및 장비에 대한 지방세도 면제를 받는다. 정부 승인을 받은 경우 12년간 소득세도 면제된다. 상기 공단 이외의 보다 소규모 산업공단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이 있다.

다. 투자 금지/제한 분야

특별한 투자금지분야는 없으며 다음의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제한이 있다.

- 회계감사
 - 외국기업이 직접 영업할 수 없으며 적법하게 설립된 과테말라 회계업체를 통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상법 213, 214, 280조)
- 보험
 - 외국기업이 보험분야 진출을 위해서는 과테말라 상법상의 주식회사(S.A./ Sociedad Anónima)를 설립하여야 한다. (시행령 473호 1조) 그러나 DR-CAFTA(중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 업체는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자신의 상호로 영업이 가능하다.

- 임업
 - 과테말라 삼림청(INAB/Instituto Nacional de Bosques)은 자국인 및 자국기업에게는 삼림의 관리 및 개발을 위해 개발권을 부여하나 외국인에게는 부여치 않고 있다. (산림법/시행령 101-96호) 이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 시에는 최소 20,000 s/m 이상의 임야를 구입, 등기해야 한다.
- 부동산 취득
 - 부동산이 주 사업분야가 아닌 한 외국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가 소유인 강, 바다, 국경지역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를 제한한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개 요

외국인 투자업체는 ‘외국기업’이 아닌 ‘현지기업’으로 등록(상업등기) 할 수 있다. 현지기업 등록 시 절차가 간편하고 소요비용도 저렴하다. 그러나 과테말라 내국인 또는 거주 외국인(영주권 취득 필요)을 법적대표자로 임명해야 한다. 이하는 ‘외국기업’ 등록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테말라 정부의 투자승인은 1998년 폐지되었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진출시 “상업등기 → 납세자번호 (NIT) 취득 → (공장 설립의 경우) 부동산 등기 및 건축허가 → 사회보장보험(IGSS) 가입 →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자코드 획득 및 세제혜택 신청”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과테말라 상법(Código de Comercio)은 외국기업에 대해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상법 제 8 조는 “외국인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면 상행위를 하고 법인을 대표할 수 있으며 과테말라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10 조는 주식회사(S.A.) 등 5 가지 형태의 상사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과테말라 상업등기소(Registro Mercantil)는 외국기업의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외국기업은 개인기업(Empresa Individual) 또는 법인기업(Persona Jurídica / 상사회사 - Sociedad Mercantil - 와 동일)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인기업에는 합명회사(Sociedad Colectiva), 합자회사(Sociedad en Comandita Simple), 유한회사(S.R.L./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주식회사(S.A./Sociedad Anónima) 및 주식합자회사(Sociedad en Comandita por Acciones / 유한책임사원이 주식으로 지분 획득) 등이 있다.

상기의 5개 형태중 주식회사(S.A)가 가장 많고 유한회사(S.R.L.)도 있으나 나머지는 극소수인데 상업등록을 하지 않으면 영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외국기업 지사들은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로 등록하고 있다.

나. 상업등기

1) 사전 준비사항

상업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과테말라 변호사와 협의,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와 현지에서 준비할 서류로 구분해 준비해야 한다. 한국에서 준비하는 서류는 한국의 공증 및 과테 말라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과테말라에서 준비하는 서류 역시 변호사 공증이 필요하다.

또한 현지에서 설립할 회사의 명칭, 목적, 대표자, 주소지, 자본금(최소 5,000 께찰/약 667 달러), 사원(최소 2 명) 등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 자본금 및 과테말라 내에서 의무이행 보증금(5 만 달러)을 과테말라 내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모든 서류가 갖추어진 후 변호사 검토를 거쳐 상업등기소에 제출, 등록증을 받기까지 근무일 기준 15 일 정도 소요되며 변호사 비용은 3,000~4,000 달러 수준이다.

2) 등기절차

상업등기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상업등기소(Registro Mercantil)에 제출하면(등기비용 1,275 께찰) 등기소는 서류심사를 해 문제가 없으면 가등기(Inscripción Provisional)를 하고 관보에 1 회 공고한다(공고비용 15 께찰). 공고절차가 끝나면 확정 등기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공고에 따른 문제가 없으면 공고일로부터 근무일수 기준 8 일 후 확정 등기(Inscripción Final)를 하고 등록증(Patente)을 교부한다.

3) 제출서류

가등기를 위해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 상업등기신청서
- 당해 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회사 정관(변경사항 포함) 사본
- 회사의 적법 기관에 의해 결정된 과테말라 내 법인설립 의향서
- 현지법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하 ‘법적대표자 증명서’)
- 자본금(최소 5,000께찰) 예치 증명서
- 보증금(5만 달러) 예치 증명서
- 과테말라 내에서 당해 기업의 모든 행위 및 사업에 대해 과테말라 내 보유자산뿐만 아니라 외국보유 자산으로도 책임을 진다는 확인서
- 과테말라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 및 사업에 대해 과테말라의 재판관할권 및 법률에 종속되며 당해 기업, 대표자 또는 종업원은 외국의 법률에 호소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 과테말라에서 철수 시 법적 요구조건을 준수한다는 확인서
- 최근의 일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사본)
- 과테말라에서 선임한 변호사에 대한 사법대리인 위임장 등

관보 공고 후 확정등기 전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 확정등기 신청서
- 관보의 가등기 공고 페이지 전체
- 회사 정관(사본)
- 법적 대표자 증명서(사본)
- 등록증 인지대(200 께찰)

4) 임시등기

외국기업의 과테말라 내 영업활동 기간이 2 년 이하인 경우 임시등기(Inscripción Temporal)를 할 수 있다.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며 심사 후 이상이 없으면 등록증을 교부한다.

- 상업등기신청서 ('임시등기' 란에 표시)
- 당해 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과테말라에서 선임한 변호사에 대한 사법대리인 위임장 등

□ 연락처

- 기관명: Registro Mercantil(상업등기소)
- 관련부서: Registro Mercantil(상업등기국)
- 주소: 7 avenida 7-61, zona 4, Guatemala, C.A.
- 전화: (502) 2331-0119
- 팩스: (502) 2331-0120
- 홈페이지: www.registromercantil.gob.gt

다. 납세자번호 취득

상업등기가 완료되면 과테말라 국세청(SAT/Superintendencia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에 납세자번호(NIT/Número de Identificación Tributaria)를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납세자번호 신청서
- 법적대표자 신분증(Cédula) 또는 여권 사본
- 상업등기 등록증 사본
- 법적대표자 증명서 사본
- 회계장부 검인 신청서
- 인보이스(factura) 인쇄승인 신청서 등

□ 연락처

- 기관명: SAT(국세청/ Superintendencia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
- 관련부서: Atención al Contribuyente(납세자 등록국)
- 주소: 7 avenida 3-73, Zona 9, Guatemala, C.A.
- 전화: (502) 2229-7000
- 팩스: (502) 2233-7273
- 홈페이지: www.sat.gob.gt

라. 부동산 등기 및 건축허가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부동산을 임차 또는 매입하고 부동산 등기부에 등록후 시청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 등기신청서
-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계약서(공증 필요)
- 등기 계약서 사본
- 등기수수료 (기본 160궂찰 + 매매가격 1,000궂찰당 1.5궂찰) 등

□ 연락처

- 기관명: Registro General de la Propiedad(부동산 등기소)
- 관련부서: Registro General de la Propiedad(부동산 등기국)
- 주소: 9 avenida 14-25, zona 1, Guatemala, C.A.
- 전화: (502) 2220-9040
- 팩스: (502) 2220-9042
- 홈페이지: www.registro-propiedad.org.gt

2) 건축허가

□ 건축허가 시 시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건축허가 신청서(비주거용/수정 또는 교정 불가/프로젝트 종류에 따라 요건 상이)
- 건축주(또는 법적대표자)의 신분증 및 주민세 납부영수증 사본
- 부동산 등록증 사본
- 법적대표자 증명서 사본
- 환경영향 검토서류
- 위치도
- 건축허가 수수료(공사비의 4.5%) 등

□ 연락처 (과테말라시 기준)

- 기관명: Municipalidad de Guatemala (과테말라 시청)
- 관련부서: Construcción Urbana (도시건축국)
- 주소: 21 calle 6-77, zona 1, Guatemala, C.A.
- 전화: (502) 2285-8000
- 팩스: (502) 2285-8010
- 홈페이지: www.muniguate.com

마. 사회보장보험(IGSS) 가입

3인 이상 작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회보장보험(IGSS)에 가입시켜야 한다. 동 보험의 근로자 부담은 월 급여의 4.83%, 사용자는 5.84%로 근로자당 월 급여의 10.67%를 납부한다. IGSS에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IRTRA(근로자 휴양시설 / 사용자는 근로자 월 급여의 1% 부담) 및 INTECAP(직업 기술훈련원 / 상동)에도 등록된다.

IGSS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사 등록

먼저 IGSS 에 회사를 등록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IGSS 등록신청서
- 최소 3인의 근로자를 고용한 날짜, 당시의 근로자 수 및 근로자의 급여내역 등에 대한 공인회계사 확인서
- 상업등기 등록증 사본
- 회사정관 사본
- 법적대표자 증명서 사본
- NIT 사본 등

2) 사용자 서명 및 근로자 등록

회사 등록이 이루어지면 IGSS 에서 다음의 서류를 교부한다.

- 사용자 번호(Número Patronal)
- 사용자서명 등록 양식
- 근로확인서 등

사용자는 사용자서명 등록 양식 및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면 IGSS 등록이 이루어진다. 이후 근로자는 IGSS 를 이용 시 근로확인서에 사용자 서명을 받아서 IGSS 에 제출하면 된다.

□ 연락처

- 기관명: IGSS(사회보장보험청 / Instituto Guatemalteco de Seguridad Social)
- 관련부서: Seccion de Inscripciones(등록국)
- 주소: 7 avenida 3-72, Zona 1, Guatemala, C.A.
- 전화: (502) 2412-1224
- 팩스: (502) 2412-1230
- 홈페이지: www.igssgt.org

바. 수출자코드(Código de Exportador) 획득 및 세제혜택 신청

수출진흥법(Ley de Maquila) 또는 자유무역지대법((Ley de Zona Franca)에 의해 수출 시 세제 혜택을 원하는 경우 과테말라 경제부(Ministerio de la Economía)의 수출지원센터(Ventanilla Unica para las Exportaciones)에 수출자코드(Código de Exportador)를 신청, 부여 받은 후 산업정책국(Dirección de Política Industrial)에 세제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1) 수출자코드 신청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자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 다음의 서류를 수출지원창구에 제출하면 수출자코드를 부여한다.

- 신청서(수출지원창구에서 교부)
- 상업등기 등록증 사본
- 법적대표자 증명서 사본

- NIT 사본
- 법적대표자의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 회사발행 인보이스 샘플(무효 표시)

□ 연락처

- 기관명: Ministerio de Economía(경제부)
- 관련부서: VUPE (수출지원센터, Ventanilla Unica para las Exportaciones)
- 주소: 14 calle14-30, zona 13, Guatemala, C.A.
- 전화: (502) 2422-3535 / 3538
- 팩스: (502) 2422-3540
- 홈페이지: www.export.com.gt

2) 수출진흥법에 의한 세제혜택

수출진흥법(Ley de Maquila)에 의한 세제혜택 신청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 신청서(당해기업 및 법적대표 또는 소유주 관련정보 포함)
- 당해 기업의 기술적, 경제적 정보
 - 기업정보: 상호, 법적대표자, 공장 및 사무소 위치, 주소, 영업개시일자, 신청근거(시행령 29-89 호/Ley de Maquila), 투자국
 - 생산정보: 생산활동 분야, 수출품목별 생산과정, 전체 생산시설 배치도(면적 포함)
 - 영업정보: 품목별 설치능력 및 가용능력, 품목별 생산액 및 판매액, 과테말라산 및 외국산
 - 원자재 사용 예상액(개찰화), 조직도, 전체 투자계획, 예상 재무제표(생산비용, 손익 계산, 대차대조), 부가가치(과테말라 국내), 순이익, 혜택 세금액
 - 기타정보: 수출품목 리스트(세번 포함), 기계류/장비 리스트(수량 및 CIF 가격 포함), 수입 원자재 리스트(세번 포함)
- 상업등기 등록증 사본
- 정관(변경사항 포함) 사본
- 법적대표자 증명서(개인기업인 경우 신분증) 사본(위의 서류들은 변호사 공증을 받고 전체 페이지에 인지를 첨부해야 함)
- NIT 사본
- 수출자코드 사본
- IGSS 등록증(사용자번호) 사본
-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

3) 자유무역지대법에 의한 세제혜택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지대 관리자가 입주기업의 영업 활동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
- 법적대표자 증명서 사본
- 상업등기 등록증 사본
- NIT 사본

- 수출품목 리스트(규격 및 세번 포함)
- 수입 기계류, 장비 및 공구 리스트(세번 포함 / 올림차순 정리)
- 수입 원자재, 중간재, 반가공품, 용기 및 포장재 리스트(세번 포함/올림차순 정리) 등

□ 연락처

- 기관명: Ministerio de Economía(경제부)
- 관련부서: Política Industrial(산업정책국)
- 주소: 8 avenida 10-43, Zona 1, Guatemala, C.A.
- 전화: (502) 2412-0259
- 팩스: (502) 2412-0488
- 홈페이지: www.mineco.gob.gt

사. 개설요원 참고사항

1) 체류비자 취득

한-과테말라 양국은 3 개월간 무비자 체류 가능하다. 기한이 되면 이민청(Dirección General de Imigración)에 가서 여권 및 신용카드(또는 여행자수표)를 제시하면 3 개월 연장해 준다.

상기 6 개월 기간이 만료되면 2 년간의 임시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5 년간 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세부내용은 이주 정착가이드 참조)

2) 사무실 확보

현지 도착 후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설립등기나 비자연장, 비품구입, 종업원 채용 등의 설립 준비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일반 사무실의 경우는 대체로 과테말라 시내의 신도심지역인 ZONA 8, 9, 10 등이 무난하며, 영업의 성격상 공장이나 공단이 인접한 지역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산업 시설이 소재한 곳으로 물색한다.

과테말라 시내에서는 아무리 멀어도 약 20~30 분 내에 도심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주거지와 거리에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다만 특히 구도심 지역은 치안이 매우 불안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3) 주거 확보

현지 지사의 대표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사무실 물색과 병행해 추진하거나 우선적으로 이를 추진한다. (세부내용은 이주 정착가이드 참조).

4) 은행구좌 개설

개인 은행구좌는 여권으로 개설 가능하나 법인 은행구좌는 상업등기 완료 후 개설 가능하다. 개설 시 구비서류는 회사정관, 상업등기 등록증,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또는 여권사본 등이다.

5) 비품 구입, 전화 가설

사무실이 정해지면 필연적으로 입주시기를 대비하여 사무용 가구를 알아보고 전화 가설 신청도 해야 한다. 가구는 주문을 하면 2~3일 내에 배달되며 최근에는 전화도 3일(근무일수 기준) 정도면 설치된다. 인터넷은 Telgua(인터넷 서비스 명칭 Turbonett), Convergence 등과 같은 ISP 업체에 의뢰하는데 설치에 15일 정도 소요된다.

6) 종업원 확보

사무실과 비품, 전화가설 등이 완료되면 종업원 채용에 들어간다. 주요 일간지 광고에 구인 광고를 내고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사전 인터뷰를 거쳐 선발하는 것이 보통이나 주변의 지인이나 업체 등을 통해 추천을 받아 채용하는 방법도 편리하다.

진출 초기에는 현지 실정에 밝은 사무직 직원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경험 많은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이 좋다.

사전에 채용조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나 개설 준비단계에서는 현지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지정 개설 시까지는 일단 임시 채용하고 지정 개설이 완료된 후 근무태도나 업적 등을 검토하여 정식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정개설이 완료되면 현지 노동법도 꼼꼼히 공부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조건 등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7) 마무리 단계

상업등기, 납세자번호 취득, 수출업체 등록 등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일단 필요한 기본 사항은 완료됐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시간을 두고 차츰 보완한다.

6. 투자입지여건

마킬라법에 따라 마킬라 업체가 위치한 장소는 자유무역지대로 간주되어 세금 특혜가 있었기 때문에 종전에는 마킬라 기업 대부분이 인력자원이 풍부하며 교통과 전기사정이 좋은 과테말라시티 또는 인근 므스꼬(Mixco) 및 비야 누에바(Villa Nueva) 지역에 위치하였으나 최근 수도권 지역이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인프라 시설이 좋고 통관도 편리한 자유무역지대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2008년 7월 현재 과테말라에는 13개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가 있는데 그 중 Zofraco 및 Parque Industrial Z. La Unión 2개소가 규모가 크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ZOFRACO

- 주소: 18 Avenida 40-23, zona 12, Guatemala, C.A.
- Tel: (502) 2485-0850 / 1
- Fax: (502) 2485-0860

- Web-site: www.zofraco.com
- 담당자: Patricia Caal (Marketing Manager)
- e-mail: patricia.caal@zofraco.com
- 설치시기: 1998년
- 소유주: Cropa Panalpina 그룹(과테말라)
- 위치: 과테말라시티 Zona 12 지역
- 입주기업: 60개사
- 한국기업: 없음
- 총면적: 25,000 m²
- 월임차료(m²당): 창고 U\$ 2.00 ~4.00, 사무실 U\$ 3.00~5.00(면적에 따라 상이)
- 구입가격(m²당): 창고 U\$ 225.00~300.00, 사무실 U\$ 250.00~350.00(면적에 따라 상이)

□ PARQUE INDUSTRIAL ZETA LA UNION

- 주소: Km. 30.5, Carretera CA-9 Sur, Guatemala
- Tel: (502) 6633-1601 / 1612
- Fax: (502) 6633-1631
- Web-site: www.zetaonline.com
- 담당자: Ana Lucia Marroquin (Sales Manager)
- e-mail: amarroquin@zetaonline.com
- 설치시기: 1990년
- 소유주: Zeta 그룹(이탈리아)
- 위치: 과테말라시티에서 태평양 쪽으로 30.5 km 지점
- 입주기업: 66개사
- 한국기업: 20개사
- 총면적: 28,000 m²
- 월 임차료 및 구입가격: 상기 ZOFRACO와 유사한 수준

7. 노무관리

가. 개 황

과테말라의 경제활동인구는 전체 인구의 30% 수준인 380 만 명으로 추산되나 실업률이 높아서 유휴 노동력은 풍부한 편이다. 과테말라 정부가 발표하는 비공식 고용을 포함한 실업률은 낮은 편이나 비공식 고용을 제외 시 실제 실업률은 4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2006 년 기준 산업분야별 경제활동인구는 농업 39.8%, 교육 2.9%, 상업 19.7%, 운송 2.5%, 건설 5.3%, 서비스 8.1%, 은행금융 2.2%, 제조업 16.7%, 공공부문 2.5% 등 이다.

과테말라는 대체로 숙련 노동력이 부족한 편이다. 미국 이민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현상도 이러한 양질의 노동력 부족의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는 과테말라 이민자가 100 만 명 이상인데 이들의 대부분은 불법이민자로 추정됨) 미숙련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노동집약 산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건축, IT 등의 분야에서는 고급 노동력 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미 우회 수출기지로 발달한 섬유 봉제 분야에는 숙련 노동력이 많은 편이다.

나. 노동법

1961 년 시행령(Decreto) 제 1441 호로 제정된 과테말라 노동법은 그동안 수차례 개정되었다. 특히 1992 년 미국 AFL-CIO 의 GSP 혜택철회 제소 움직임에 따른 개정과 2001 년 ILO 및 미국의 압력에 따른 개정 시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2001 년 개정법은 근로자 권익보호, 노조원 신변안전 보장, 노동분쟁 시 사법적 처리 등 ILO 의 11 개 요구 사항 중 9 개를 반영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확기 농업 노동자의 파업권 부여(단, 기본적 생산활동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 대통령에 대해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파업을 유예시킬 수 있는 재량권 부여)
- 교통, 보건, 에너지공급, 통신 및 수도 등의 분야에 대한 파업의 기술적 제한
- 군인 및 경찰의 파업 금지
- 노조결성에 참여한 근로자의 해고 금지
- 노조결성 최소 인원 20명
- 노동부의 벌금부여 및 제재권한 강화 등

과테말라 노동법에는 급료, 근무시간, 보너스, 휴가, 파업 및 공장폐쇄 규칙, 해고조건, 분쟁 시 법적 관할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섬유봉제 분야에서는 1996 년 노동자의 대우 및 작업환경 등에 관한 행위규약(Código de Conducta)을 채택한 바 있다. 노동분쟁의 사법적 판단을 위한 특별노동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노동법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다.

다. 고용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공장설립 당시에는 사규 1 부 및 각 근로자와 체결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노동총국/Dirección General de Trabajo)에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사회보장기구(IGSS/Instituto Guatemalteco de Seguridad Social)에 보고해야 한다. 대부분 투자 업체에서는 관련업무를 현지인 노무사에게 일임시켜 처리하고 있다.

개별적 고용 시 고용계약은 근로관계 개시일에 서명하여 15 일 이내에 노동부에 제출 해야 한다.

채용 후 계약의 갱신 또는 수정이 있는 경우 매년 별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회보장기구(IGSS)에는 매달 인원 변화를 보고해야 한다.

라. 외국인 고용

외국인 고용 시 법적으로는 반드시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는 노동부(Ministerio de Trabajo)내 고용총국/Dirección General de Empleo)에 신청한다.

외국인 고용은 해당업체 총 고용인원의 10%,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과테말라 내에서 구할 수 없는 기술인력은 예외이다. 노동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근로에 투입 가능하다.

노동허가서 유효기간은 1 년으로 매년 갱신해야 하는데 발급이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노동부의 업체실사 또는 미국 바이어의 공장 Inspection 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취득 여부를 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노동허가 취득은 필요하며 따라서 과거 노동 국이나 이민국 퇴역관료 등 선이 달는 인사를 통해 수속을 진행하기도 한다.

1) 관리인력 고용

경영층, 매니저, 관리자, 감사, 부서장 등의 관리인력은 원칙적으로 2 명까지 고용할 수 있으며 고용 시에는 다음 서류를 작성, 노동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외국인 고용신청서
- ② 신청자가 당해 기업의 법적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③ 피고용자 여권 사본(거주비자 첨부/거주비자 없을 시 비자절차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 ④ 피고용자의 행위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부담 공증서류
- ⑤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과테말라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수 및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에 대한 확인서
- ⑥ 피고용인의 직위가 명시된 문서 사본
- ⑦ 스페인어 어학능력 증명서
- ⑧ 외국인 고용이 2 명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분야에 대한 과테말라 노동자의 교육훈련 계획
- ⑨ 외국인고용 신청서 1 매당 3,000 껀찰(약 400 달러) 납부 영수증

2) 기술인력 고용

과테말라 내에서 구할 수 없는 기술인력의 고용 시 상기 ①, ②, ③, ④, ⑤, ⑦, ⑨ 서류 외에 기술자격증명서(San Carlos 대학 또는 관련단체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경우 관련서류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당해 기술관련, 과테말라 노동자의 교육훈련 계획도 제출한다. (상기 ⑧ 서류 / 관리인력은 2 인 초과 시 제출)

3) 일반 노동자 고용

일반노동자 고용 시에는 상기 ①, ②, ③, ④, ⑤, ⑦, ⑨ 서류 외에 당해 노동자가 최근 근무한 기업에서 발행한 추천서(과테말라 영사 서명 필요)도 제출한다.

마. 근로시간

1) 정규근로

주간근로(오전 6 시~오후 6 시)는 1 일 8 시간, 주당 4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과테말라 노동법에는 주당 48 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과테말라 헌법 제 102 조에 44 시간으로 규정됨. 헌법에 따른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건강을 해치지 않거나 위험하지 않은 환경인 경우 주간근로를 2 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주당 4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농업, 목축업 및 근로자 10 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는 주당 44 시간을 채워야 한다.

야간근로는 1 일 6 시간, 주당 36 시간, 주간근로와 야간근로가 혼합된 혼합 근로는 1 일 7 시간, 주당 4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보안 및 경비분야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1 일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장근로

정규 및 연장근로를 합쳐 1 일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보안 및 경비분야 예외) 근로자가 정규근로 시간 중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작업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급여

1) 임금

지난 2000 년 Alfonso Portillo 정부 출범 이후 2000.3 월에 개정된 노동법에 의해 매 6 개월마다 경제상황을 검토하여 임금을 재조정함에 따라 임금수준이 급속히 상승하였다.

법정 최저임금은 매년 노사정이 참여하는 임금조정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Salario)에서 합의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하지만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발표한다.

2008 년도 과테말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농업부문 1 일 47.00 껀찰(월 1,410 껀찰), 섬유봉제 부문 1 일 47.75 껀찰(월 1,432.50 껀찰), 비농업부문 1 일 48.50 껀찰(월 1,455 껀찰) 수준이다.

그러나 도시권에서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규모가 갖추어진 봉제공장의 경우 생산라인 투입 미숙련공에 대해 평균적으로 실제 지불하고 있는 임금은 250~300 달러 정도이며 2 회의 보너스, 초과근무수당 및 사회보장 부담금을 합산하면 노동자 1 인에 대해 400 달러 정도의 인건비가 투입된다.

산업부문별 월평균 명목임금(2006 기준)

산업부문	월임금(껀찰)	산업부문	월임금(껀찰)
농업	1,158	광업	3,044.0
전기·가스·물	2,729	제조업	1,826
건설업	1,848	상업	2,221
교통통신업	2,401	개인서비스	1,983

자료: 노동부

한편, 직종/학력별 급여(초임) 수준은 다음과 같다.

- 대졸 사무직 남자: 월 800~1,500달러
- 고졸 사무직 남자: 월 400~500달러
- 대졸 비서직 여자: 월 500~600달러
- 고졸 비서직 여자: 월 300~400달러

- 생산라인 반장급: 월 400~500달러
- 생산라인 고참급: 월 300~400달러
- 생산라인 평균: 월 200~250달러

2) 연장 근무수당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급여의 50%를 근무수당으로 추가 지급한다. 각 근로자의 연장 근무수당 지급은 임금대장에 기록돼야 한다.

3) 보너스

노동법에 따르면 1 년에 2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여금은 매년 7 월에 지급하는 BONO 14(보너스)와 12 월에 지급하는 AGUINALDO(특별수당)로 구성된다.

BONO 14 는 시행령(Decreto) 42~92 호에 의거, 매년 1.1~12.31 일을 기준으로 월 급여의 100% 를 지급한다. 근무일수가 1 년에 미달되는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한다.

AGUINALDO 는 시행령 76~78 호에 의거, 전년 12.1~당해년 11.30 일 기준으로 월 급여의 100%를 지급한다. 근무일수가 1 년에 미달되는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한다.

4) 사회보장보험(IGSS)

3 인 이상 작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동 보험의 근로자 부담은 월 급여의 4.83%, 사용자 부담은 5.84%로 각 근로자당 월 급여의 10.67%를 납부한다.

사용자는 이외에 근로자 휴양시설(IRTRA) 관리비와 근로자 기술훈련비(INTECAP)로 각 노동자 월 급여의 1%씩을 부담한다.

5) 부가급부(Fringe Benefit)

기타 급여성 경비는 다음과 같다.

- 퇴직금(정상적 퇴직 시): 근무기간 1년당 1개월
- 기술훈련기금(INTECAP): 1%
- 근로자 휴양시설(IRTRA) 관리비: 1%
- 유급휴가비: WORKING DAY 기준 15일분(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미지급)

사. 휴가제도

동일한 사용주 밑에서 계속 일을 해왔으면 1 년마다 WORKING DAY 기준으로 연간 15 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실시치 않았을 경우는 금액으로 환산 지급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 30 일, 출산 후 54 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출산 5 주 전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3 일간, 본인 결혼 시 5 일간, 자녀 출생 시(남 자의 경우) 2 일간 각각 유급휴가를 준다.

아. 보험제도

일반 현지 근로자들 대상으로는 대부분 사회보장보험(IGSS)에 가입하는 수준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 과테말라에도 단체종합보험(COLLECTIVE SECURITY) 제도가 있으나 비용 부담은 큰 반면 실효는 적어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해당 근로자 가족과의 협상이 관행화되어 있다.

과테말라 진출 섬유봉제업체들은 종전에는 시설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에 소극적이었으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사 사건으로 인해 현재는 과테말라나 미국 또는 한국 보험회사를 통해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자. 해 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로 해고 시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한다. 해고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해고의 정당한 사유(노동법 제77조)

- 근로자가 근로 중 공개적으로 비도덕적 행위를 하거나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해 근로와 관련하여 모욕을 주거나 비방, 대항하는 경우
-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상기 행위를 동료 근무자에게 행하여 질서가 심하게 무너지거나 작업 중단을 초래한 경우
- 근로자가 작업장 밖에서 근무시간 외에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근로와 관련해 모욕을 주거나 비방, 대항해 작업장 내 공동생활 및 화합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 근로자가 작업장 내에서 범죄 또는 실수로 사용자, 동료 근로자 또는 제3자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근로자의 고의, 부주의, 태만으로 기계, 공구, 원자재, 생산품 및 기타 근로와 관련된 물건에 즉각적 또는 의심할 여지없이 실질적 피해를 준 경우
- 근로자가 제63조 제9항에 언급된 비밀(상품의 기술, 영업 및 생산관련 비밀 또는 회사내부 관리상의 비공개 사항)을 누설하는 경우
-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월(月)에 2일간 전일을 연속적으로 결근하거나 또는 매번 반일씩 6일간 결근한 경우(사용자가 근로자가 결근 중이어서 해고 통보를 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출근했을 때 함)
- 근로자가 사고나 질병의 회피를 위한 예방조치 또는 지시절차를 거부하거나 사용자나 그 대리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분명하게 지시한 규정이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의 1차 서면경고를 받은 후에도 제64조의 금지행위(아래 참조) 또는 적법하게 승인된 내부 근로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 술에 취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사용자의 재산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는 경고가 필요 없음.
 - 정당한 사유나 사용자 또는 직속상관의 승인 없이 근로시간 중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 근로 중 작업장 내에서 정치적 또는 헌법의 민주적 규정에 반하는 선전을 하거나,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술에 취하거나, 환각제를 복용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비정상 상태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
- 사용자가 제공한 비품이나 도구를 정상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근로시간 중 또는 작업장 내에서 종류에 관계없이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 / 단, 법에 의해 승인된 경우 또는 근로도구나 비품의 일부를 형성하는 칼이나 송곳 등을 취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근로규칙 위반행위 포함, 기업의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명백한 사보타지 행위를 하는 경우
- 근로자가 계약 체결 시 특별한 자격, 조건, 지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명백히 그 러한 능력이 없는 경우, 제출한 신상조회서 또는 개인증명서 등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특정 분야 근로를 위해 고용되었으나 당해 근로수행 능력이 없음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 근로자가 중범죄로 체포되어 형벌을 받거나 확정판결로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 근로자가 계약상의 의무 이행 시 기타 중대한 실수를 한 경우 등

상기의 경우 외에도 근로자가 형법의 제재를 받으면 사용자의 소송이 없어도 관행적으로 해고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해고수당(Indemnización)

정당한 사유 외의 사유로 해고 시에는 근로자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한다. 해고수당은 근무기간 1 년당 1 개월 급여(최근 6 개월 급여 평균치)를 지급한다.

해고수당 외에 퇴직금(Pago de Prestaciones Laborales)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당해 월 급여
- 미휴가 일수: 연간 15일 기준 1개월 급여(최근 6개월 급여 평균치)로 환산 지급
- Bono 14 및 Aguinaldo: 연간 1개월 급여(최근 6개월 급여 평균치) 기준 근무일수로 환산

정당한 사유로 해고 시에는 퇴직금만 지급한다. 해고수당(퇴직금 포함)을 지급하고 고용 계약 해지서(Finiquito Laboral)에 노사간 서명, 보관해야 한다.

차. 노 조

1) 결성요건

근로자 20명 이상이 서명하고 집행부를 구성하여 정관 및 내규사본 1부를 갖춰 노동부 및 산하 노동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결성이 되며 과거와 같이 노동부가 해당 작업장 사용자에게 동 신청서 접수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삭제되어 노조 구성은 사용자가 사전에 전혀 고지 받지 못한 채 결성 가능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2) 노조활동보장

노조집행부 전원은 매달 6 일 이내의 노조활동을 위한 유급 휴무기간을 보장받으며, 모든 노동 자들은 노조가입을 이유로 해고 될 수 없다.

노조집행부는 노조설립 사실을 對노동부(총감독관실) 통보시점부터 사용자에게 대해 해고불능 혜택을 받게 되며 동 권리는 집행부에서 직무수행이 끝난 후에도 12개월간 보장된다.

3) 노조활동실태

공식 통계는 없으나 실업률이 높은 과테말라 형편상 노조 결성률이 10%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며 노조설립에 대한 정부 승인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공공 부문에 노조가 많이 조직되어 있는데 인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에 비하면 과테말라의 노조활동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나 최근 민간부문에도 노조가 확대됨에 따라 노동쟁의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과테말라 노조는 미국 노조 및 국제노동조합단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1999 년 과테말라 바나나 농장사건 발생 시 미국은 GSP 및 CBI 특혜와 연계, 압력을 행사하여 2001 년 과테말라 노동법 개정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섬유봉제 분야에서는 과테말라 노조와 연계한 미국 노조 단체가 바이어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업체 제품을 불매하는 경우도 있다.

8. 조세제도

가. 개 황

과테말라는 세금구조를 단순화하고 1996 년 평화협정에 명시된 GDP 12% 수준의 조세 수입을 위해 2004 년 7 월 조세제도를 개혁, 법인세 부과방법을 변경하고, 평화협정세(IETAAP/2008 년 말 종료)를 신설하였으며, 2006 년 6 월에는 탈세방지법(Ley Contra la Evasión Fiscal)을 제정해 공공부문, 수출업체, 신용/현금카드 업체 등에 대한 부가세 원천징수를 실시하는 등 세수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6 년도 과테말라의 조세수입은 GDP 의 10.5%로 전년도의 9.6% 대비 0.9%p 증대되었으나 GDP 12% 수준이 되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과테말라의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에는 법인/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소비세, 부동산세, 인지세, 평화협정세(2008 년 종료)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는 Arbitrio Municipal(우리 나라의 주민세 해당) 등이 있다.

나. 법인세

과테말라 국내외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법인 및 개인은 과테말라 내에 보유한 자본 및 자산 또는 과테말라 내에서 이루어진 서비스 및 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다.

1) 세 율

2004 년 조세법에 따라 법인세는 순수익의 31% 또는 총수입의 5% 중 1 가지를 택해 납부한다.

법인세율

세 율	비 고
순수익의 31%	- 평화협정세 미 부과 - 배당금의 해외송금 시 미 과세
총수입의 5%	- 총수입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원천과세 방식으로 징수

자료: 국세청(SAT)

2) 세금공제

- 기술서비스 수수료: 총수입의 1% 또는 과테말라 직원 급료총액의 15%까지(과테말라 경 제부 승인 필요)
- 로열티: 순 판매의 10% 또는 총수입의 5%까지(과테말라 경 제부 승인 필요)
- 약성채무: 총 채무액의 3%까지
- 급료소득: 8.33%까지
- 기계류 및 장비구매: 구입가격의 15%까지
- 기타
 - 이윤의 재투자 시 세금공제 폐지(2004 년 개정)
 - 신규설립 기업에 대해 최초 5 년간 당해년도 영업손실의 차년도 이월 폐지(2004 년 개정)
 - 비인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할부금은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
 - 계열회사 간 환차손실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없음.
 - 2 년 이상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한 경우 국세청(SAT)의 자금대장 검사 가능

3) 법정 원천징수율

- 지점이윤, 로열티, 특허권/상표권 등의 수수료: 31%
- 배당금: 10%(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순수익의 31%-를 납부한 경우 해외송금 시 0%)
- 이자, 라이선스 비용: 해외송금 시 10%

4) 감가상각

과테말라는 정액 감가상각(straight-line depreciation)만 인정하며(국세청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 감가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 건물: 매년 5%까지
- 삼림, 과일 및 채소 묘목: 15%
- 가구 및 비품: 20%
- 기계, 장비 및 수송수단: 20%
- 공구, 컴퓨터 장비: 33%
- 기타 감가상각 자산: 10%

5) 납부시기

과테말라는 1 분기 순소득을 근거로 추정 세액을 매 분기별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회계 연도 종료 후 90 일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표준 회계 연도는 역년 (calendar year)과 동일하지만 사전승인을 얻어 별도의 회계 연도를 적용할 수 있다.

6) 자본이득

자본이득은 소득으로 처리되며 10%가 부과된다. (비거주자의 지분매각에 따른 자본 이득도 동일) 자본손실은 자본이득이 있는 경우에 세금공제 가능하다.

다. 부가가치세/소비세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서비스의 매매, 수입, 리스 등의 거래가격에 과세되며 세율은 12%이다.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상업송장 가액 기준으로 과세된다.

2004년 개정법 및 2006년 탈세방지법에 의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알코올성 음료: 맥주 6%, 포도주 7.5%, 기타 증류주 8.5% 소비세 추가
- 주식회사에 대한 자산양도 및 2년 미만의 중고차 구입 시 부가세 납부
- 월수입 10만 께찰(U\$13,513.51/환율 U\$1=7.4Q 기준) 이상인 수출업체의 경우 공급업체에 대해 부가세 징수
- 신용/현금카드 업체는 모든 거래에 대해 부가세 15% 원천납부
- 5만 께찰(약 U\$6,757) 초과하는 모든 지급은 현금지급 불가하며 은행시스템을 통해 지급

이 외에 관광분야에는 10% 관광세가 부과되며 담배, 유류제품, 신차 등의 구입 시에도 소비세가 부과된다.

라. 재산세

과테말라 재산세(토지, 건물 등 부동산 및 기계류 포함)는 자산 가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되며 주택저당권 매입 시에는 3% 세금이 부과된다.

- 2,000~20,000 께찰: 0.3%
- 20,001~70,000 께찰: 0.6%
- 70,001 께찰 이상: 0.9%

마. 인지세

민사 또는 상업상의 계약에는 서류 등록비용의 3%에 해당하는 인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외국 공급업체의 상업송장, 수입서류 또는 이미 해당 세금을 납부한 확정가격의 행위 및 계약과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면세된다.

바. 개인소득세

과테말라의 개인소득세는 타 중남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많은 편은 아니다. 거주자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과테말라 내에서 발생한 소득(계량화 가능한 부가급부 및 자본 이득, 자본손실 포함)에 대해 부과된다. 모든 납세자에 대해 3만 6,000 께찰의 세액공제가 있으며 보험할부금, 전문서비스 수수료, 의료비용 등도 일정 한도까지 공제된다. 영수증이 첨부되면 총 소득의 7%까지 기지급 부가세가 공제된다.

개인소득세는 과세대상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세액 + (실소득 - 소득군별 최저소득) × 세율’이 부과된다. 연간소득이 20 만 께찰인 경우 32,750 께찰 + (200,000 께찰 - 180,000 께찰) × 0.25 = 37,750 께찰 이다.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

과세대상 소득군	기본세액	세율	비 고
0~65,000 께찰	0	15%	실소득에 대해 부과
65,000~180,000 께찰	9,750 께찰	20%	‘실소득 - 65,000 께찰’에 대해 부과
180,000~295,000 께찰	32,750 께찰	25%	‘실소득 - 180,000 께찰’에 대해 부과
295,000 께찰 이상	61,500 께찰	31%	‘실소득 - 295,000 께찰’에 대해 부과

자료: 국세청

사. 지방세

우리나라의 주민세에 해당하는 Arbitrio Municipal이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개인소득에 따라 연간 최저 15 께찰에서 최고 100 께찰까지 과세한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관리

1) 개 황

과테말라는 1980 년대 말부터 외환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외환과 관련된 제한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1989 년 과테말라는 환율자유화 조치를 단행,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 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외채지불을 포함한 모든 외환거래 시 자유시장 환율이 적용되고 있다. 중앙은행은 은행 간 거래, 세금, 관세산정 등의 목적으로 일일 고시 환율을 발표하고 있다.

1993 년에는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시행, 외환거래에 대한 일체의 규제가 없어졌는데 단, 외환 거래는 인가된 금융기관(은행, 환전소, 제 2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해야 하고 내역을 중앙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중앙은행의 자율권 및 시중은행 감독기능 등을 강화한 1995 년의 개정 중앙은행법(Ley Orgánica del Banco de Guatemala)은 2 만 께찰(약 U\$2,703)까지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며 동 법에 따라 외국은행 진출도 가능하게 되었다.

1998 년의 외국인투자보호법(Ley de Protección a la Inversión Extranjera)은 과실송금 및 투자 자본 회수에 관한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2001 년의 외환거래법(Ley de Libre Negociación de Divisas)은 수출대금의 중앙은행 매각을 폐지하였으며 국내외 외환구좌 보유도 허용함에 따라 외국 인 투자자의 환리스크를 감소시켰다.

55 년간 지속된 구 화폐법을 개정한 2002 년의 개정 화폐법(Ley Monetaria)은 개인 또는 법인 간 임금 등 각종 계약상의 지급을 외환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2) 투자자본 회수

과테말라는 투자자본의 사전신고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본회수에도 제한이 없다. 그러나 청산 시에는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에 재정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3) 과실송금

이윤 또는 배당금의 송금 역시 제한이 없으나 통계목적상 중앙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국내 거주 기업이 법인세(순수익의 31%)를 납부한 경우 배당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배당금 송금 시 10%가 원천 과세되며 배당금 및 이자소득에 대해 추가로 10%가 부과된다.

4) 상업차관

과테말라 시중은행 이자율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기업 및 현지 대기업 들은 상업차관을 선호하는데 차관 도입 시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하며 투자자들은 외환 으로 보유할 수 있다.

이자 지급에는 제한이 없으며 지급액에 대해 15%까지 원천과세가 가능하나 다음의 3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면세된다.

- 소재지 국가에서 적법하게 등록된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지급될 것
- 차관 도입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할 것
- 과테말라 중앙은행 또는 기타 은행, 금융기관 등을 통해 현지화로 환전될 것

5) 로열티 및 수수료 송금

로열티나 수수료 지급 또는 그러한 계약의 기간 및 조건 등에 제한은 없으나 송금 업체는 지급 내역을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과테말라 비거주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로열티 지급 또는 특허권, 상표권 등의 사용료 지급 시 31%가 원천 과세된다. 라이선스 관련 수수료, 수당, 커미션 등에 대해서는 10%가 과세된다.

6) 무역대금 지급

과테말라는 2001 년 외환거래법에 의해 수출대금의 중앙은행 매각을 폐지했으며 수입 대금의 지급에도 제한이 없다.

수출입 대금의 사전 또는 지연 지급도 제한이 없다. 전통적으로 과테말라 농산물은 외국 바이어가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수출업체를 통해 사전에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외국 바이어의 사전 자금지원은 농산물 수출을 담보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나. 자금조달

1) 개 황

과테말라는 1980년대 말부터 금융부문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형적으로는 금융업이 급성장, 2008년 7월 현재 과테말라에는 국책은행(1개/중앙은행 제외) 포함 20개 은행이 있으며 제2 금융회사는 14개가 영업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자본상태가 취약하며 높은 대출이자율(11~15%)로 인해 외국 기업들은 국내은행 대신 해외에서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

2002년 과테말라는 금융부문 현대화를 위해 금융회사 감독법(Ley de Supervisión Financiera), 은행 및 금융그룹법(Ley de Bancos y Grupos Financieros) 등을 제정하고 기존 화폐법(Ley de Monetaria) 및 중앙은행법(Ley Orgánica del Banco de Guatemala) 등을 개정하여 국내적으로는 상당한 실효를 거두었다.

그러나 2001년 외환거래법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시중은행의 Offshore 영업에 대한 감독 기능 미비로 은행 부실화가 초래되고 있다. 최근 사례로는 2006년 10월 당시 4위 규모의 Bancafé가 중앙은행 통화위원회(Junta Monetaria)의 영업정지 명령으로 도산했으며, 2007년 1월에는 상업은행이 도산하였다.

최근에는 그동안 지연되어 온 금융기관 합병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2006년 말 Citigroup이 Uno은행과 중미 전역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Cuscatlán은행을 매입함에 따라 유일한 외국계 은행인 Citi은행은 자산규모 5위로 상승하였다. 자산규모 2위의 G&T Continental은행(Continental은행과 G&T은행이 합병)은 2006년 12월 Banex은행을 매입하였다. 자산 측면에서는 산업은행(Banco Industrial)이 가장 큰 규모이다.

2) 단기금융

과테말라 은행은 외국기업에 대해 자국기업과 차별 없이 단기금융을 지원하나 단기금융 자체가 180일로 제한되며 11~15%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커미션 및 요금도 부과된다. 이에 따라 많은 외국기업은 모기업으로부터 기업 간 대부 및 공급자 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민간 상업은행이 단기금융의 주요 공급원인데 특정 산업단체나 기업그룹이 상업은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금융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제2 금융권 역시 자신들이 속해 있는 경제단체의 회원업체에 대해 주로 대부를 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이용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3) 중장기금융

중장기 금융은 대부분 은행과의 협약으로 단기금융이 수차례 반복된 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외국업체가 중장기 금융을 얻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국책은행은 외국기업에 대해 중장기 금융을 지원하지 않는다.

4) 국제금융기관

- 중미경제통합은행(BCIE/Banco Centroamericano de Integración Económica)
 - 1960 년 중미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설립된 동 은행은 현재 과테말라를 비롯한 중미 5 개국 및 멕시코, 대만 등 역외 5 개국 총 10 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금융지원 대상은 회원국내의 민간기업, 은행 및 금융회사들로 직접금융, 코파이낸싱, 민간 상업은행을 통한 금융, 신디케이트 금융 및 EXIM Bank 보증을 통한 금융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며 무역촉진을 위한 단기금융도 실시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 Libor 금리 기준 18 개월~12 년간 지원하며 미달러화 또는 현지화(환 리스크 포함) 지원 가능하다. 민간기업 및 은행에 대한 지원금액은 최소 100 만 달러이며 조합 및 비은행 금융 기관에 대해서는 2 만 5,000 달러 수준이다.
- 미주투자공사(IIC/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 IIC 는 미주개발은행(IDB)의 자매기관으로 1989 년부터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 개발을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IIC 지원은 주로 역내·외 자본 및 금융시장에서 중장기 대부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직접금융, 지분투자, 역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및 투자기금에 대한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지원대상 프로젝트는 고용증대, 순외환수입 창출, 현지자원 활용, 저축증대, 중남미 경제 통합 촉진 등 역내 경제발전 기여도를 감안하여 결정된다. 환경영향 평가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 수혜업체는 원칙적으로 연간 매출 500 만~3,500 만 달러 수준이어야 하며 IIC 26 개 회원국 국민이 다수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IIC 지원은 현지화 또는 외화로 이루어지며 고정자산 투자, 상설운전자본 또는 사전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 국제금융공사(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 세계은행 자매기구인 IFC 도 2007.8 월 과테말라에 중미지역 사무소를 개설하고 금융지원을 실시하며 니카라과에도 지소를 두고 있다.
 - 이와 같이 IFC 가 중미지역 활동을 강화하는 이유는 지난 10 년간 중미지역이 정치·경제적 안정을 이룩한 데다 최근 DR-CAFTA(중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 IFC 는 중미지역에서 은행, 농업(주로 사탕수수), 부동산 및 관광 분야 등에 투자했는데 향후로는 에너지 및 주택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 IFC 금융지원은 IIC 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대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수혜업체는 연간매출 최소 2,000 만 달러 수준이어야 하며 지원액은 원칙적으로 최소 1,000 만 달러 수준이다. 공식적인 지원 상한선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1 억 달러 수준이며 수혜업체 지분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자율은 Libor 금리 기준이며 기간은 7~10 년이다. 과테말라 및 코스타리카에서는 현지 통화 환율 안정으로 현지화 지원도 가능하다.
 - IFC 는 은행, 인프라, 농업 등의 분야에서 매우 전문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며, 경기 변동에 따라 대출을 감소하는 민간 상업은행과는 달리 지역적 또는 전 세계적 경제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국제금융기관 현황

명 칭	설립 연도/사무국	기 능	최근 금융지원 사례
BCIE 중미경제통합은행	1960년/온두라스	중미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금융지원	- 과테말라 La Aurora 공항 리모델링프로젝트(4,100만 달러) - 온두라스 Multiplaza Mall 등
IIC 미주투자공사	1989년/워싱턴	중남미지역 민간 자본투자촉진	- 니카라과 Cone Denim 사 (3,700만 달러)
IFC 국제금융공사	1956년/워싱턴 (2007. 8월 중미사무소 개설)	저개발지역의 생산적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	- 니카라과 Pantaléon Sugar Mill(5,000 만 달러) - Nicaraguan Sugar Estates (3,750만 달러)

자료: Central America 지 2008 년 2~3 월호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개황

과테말라는 중미 5개국 중 최대시장으로 2007년도 수입은 13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취약으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전체 수입시장의 34%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식품, 음료, 봉제, 신발 등 경공업 중심으로 제조업도 성장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원부자재 산업이 취약하여 대외 의존도가 높으며 자본가 계층도 제조업 보다는 유통, 금융, 수입 등 환금성이나 자본회전이 빠른 분야에 투자하는 경향이다.

지정학적, 경제구조적으로 미국 경제권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DR-CAFTA로 향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이애미의 소량 다품종 오더의 신속한 중계 공급기지로서 마이애미의 수요 및 기호 변화에 민감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중산층 형성이 미약한 상·하층의 2단계 소득분포 구조로 국내 생산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많지 않으며 수도권 및 극히 제한된 도시권에 유효 구매수요가 밀집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매우 가격경쟁적이면서 동시에 좋은 품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산이 양호한 시장 성가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아시아산 제품도 양호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과테말라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일단 매우 경쟁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테말라는 중미의 견본시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테말라에서 시장성이 있는 제품은 인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과테말라를 기점으로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시장을 점진적으로 공략한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유통구조

1) 개 황

과테말라는 생산자(또는 수입상)-도매상-소매상의 유통구조가 정착되어 있으나 대체로 유통마진이 높은 편으로 최근에는 중간 유통과정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 소비재의 경우는 생산자(또는 수입자)로부터 도매상, 소매상을 통해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 이나, 최근 대형 슈퍼마켓의 발달로 도소매상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으며, 특히 기계류, 부품 등 자본재의 경우는 수입상이 중간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보통이다.

과테말라의 상권은 유태계, 아랍계, 독일계와 스페인계가 대략 삼분하고 있는데, 특히 유태계는 금융권, 아랍계는 의류 등 일반 소비재, 스페인계는 식음료계를 움직이고 있으며 독일계 및 일부 스페인계 등은 산업계와 커피 등 농업계를 장악하고 있다.

과테말라의 유통업계는 소량 다품종이 일반화된 관행이고 또 이는 소득계층이 상류와 빈곤층으로 대별되고 중산층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특성에 기인된 것으로 한국상품처럼 아직 브랜드 성가 정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는 중급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입지가 어려운 시장이기도 하다.

2) 도소매상간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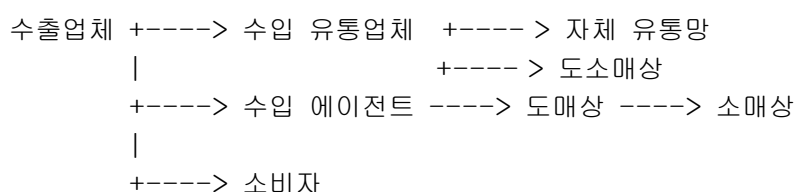
유통마진은 단순 소비재의 경우 수입가격대비 총 100~150% 정도이며 내구성 소비재 또는 공업용 시설재 및 원부자재의 경우는 30~70%가 상례화 되어 있다. 단 에이전트 커미션은 송장가격의 5~10%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수입상이나 디스트리뷰터는 무역업체보다는 제조업체와 직접적인 접촉을 희망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 직접 대리점을 운영하는 케이스는 없으며 대부분 에이전트나 독점 수입상을 두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 외국기업들은 현지법인 형태로 직접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시장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과테말라에는 대형 슈퍼체인이 7개 정도, 대형 쇼핑센터가 12개 정도 운영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현지 소비자들은 중산층 이상의 경우 백화점이나 대형 슈퍼 체인점을 주로 이용하며 저소득층은 구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상가를, 극빈층은 재래식 시장을 주로 이용한다.

3) 수입품 유통구조

수입업체들은 대개 도소매상에 납품하거나 자체 유통망을 보유하고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수입 에이전트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직접 도소매상에 공급하기도 한다. 수입업체가 직접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대형 슈퍼마켓 등과 같이 자체적인 창고시설과 판매장을 보유한 경우이다. 유통구조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다. 유망상품

품목 명	유망 사유
타이어 및 튜브	현지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요 지속 증가세
PVC 프로파일	현지의 건축경기 활성화로 많은 수요가 있으나 유럽산은 고가이고 저가 중국산은 품질이 떨어져 한국산 선호
플라스틱 레진	과테말라산 플라스틱 제품이 인근국으로 많이 수출됨에 따라 원자재인 레진 수요 풍부
철강제품 (와이어, 플레이트, 빔 등)	현지 건축경기 활성화로 수요 증대
케이블 및 전선	현지 전력청의 송배전용 수요 증대
섬유원료 (파이버 및 필라멘트)	DR-CAFTA 규정상 섬유원료는 제3국산 사용 가능함에 따라 현지 직물생산업체 수요 풍부

2. 물가정보

항 목	기준 품목	금액(USD)	품목 내역
식 품 기호품	김치찌개	5.22	1인분
	햄버거	2.57	맥도날드 빅맥 1개
	수입담배	1.83	말보로 라이트 1갑, 20개피
주 택 사무실	고급아파트 월 임차료	2,000	150m2/월, Semi-furnished
	중급아파트 월 임차료	1,600	150m2/월, Semi-furnished
	사무실 임차료	1,800	150m2/월
교 통 차 량	자동차 2000cc	17,000	한국산, 오토, 에어컨
	시내버스 요금	0.13	1구간
	택시요금	3.2	기본요금
	택시요금	0.5	추가요금, Km당
통 신 전 기	시내전화요금	0.08	시내, 3분
	국제전화(할인)	0.19	현지-서울, 3분
	전기요금	0.14	가정용, 1Kwh
	인터넷 사용료	62	High Speed / 1개월
교 육	현지사립학교 수업료	2,125	초등 1년간
	외국인학교 수업료	9,752	초등 1년간, American School
레저·오락	골프장 그린피	65	비회원, 18홀 1라운드
	영화관람료	5.22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의 료	병원진료비	20	의료보험 제외, 몸살감기, 내과초진
호 텔	특급호텔 숙박료	120	할인, 싱글 1박
	중급호텔 숙박료	95	할인, 싱글 1박
임 금	사무실비서 월 급여	500	초임, 학력 불문
	사무실직원 월 급여	1000	대졸, 초임

3. 바이어 발굴

가.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과테말라의 주요 경제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업체를 찾을 수 있다.

- 상업회의소(Cámara de Comercio de Guatemala) 홈페이지
- URL: www.negociosenguatemala.com
- 수출협회(Asociación Guatemalteca de Exportadores) 홈페이지
- URL: www.agexport.org.gt
- 섬유조합(VESTEX) 홈페이지
- URL: www.apparel.com.gt
- 건설협회(Cámara Guatemalteca de la Construcción) 홈페이지
- URL: www.cgc.guatemala.org
- 과테말라 공업회의소(Cámara de Industria de Guatemala) 홈페이지
- URL: www.industriaguatemala.com
- 과테말라 전경련(CACIF/농·공·상·금융 회의소) 홈페이지
- URL: www.cacif.org.gt

나. 오프라인 통한 바이어 발굴

1) 옐로우 페이지 활용

전화번호부의 옐로우 페이지를 통해 모든 분야별 바이어 명단을 찾을 수 있다. 전화번호부 제작업체는 다음과 같다.

- Publicar 사
- 5av 5-55, Zona 14 Edificio Euro Plaza Torre 4 5to nivel
- Tel: 2384-5500
- Fax: 2384-5550
- URL: www.publicar.com

2) 전시회 활용

주요 전시회 참가를 통해 바이어 발굴도 가능하다. 2008년 주요 전시회는 다음과 같다.

□ Apparel Sourcing Show 2008

- 기간: 2008.5.13~15
- 장소: Gran Tikal Futura 호텔
- 전시품목: 의류봉제 산업의 원부자재, 기계류 등 전반

- 개최주기: 매년
- 부스임차료(3m x 3m): U\$1,650
- 홈페이지: www.apparelexpo.com
- 주최자: VESTEX (섬유조합 / Guatemala Apparel and Textile Industry Commission)
- 주소: 14 calle 14-30, zona 13, Guatemala, C.A.
- 전화: (502) 2410-8323
- 팩스: (502) 2410-8320
- 홈페이지: www.apparel.com.gt

□ X Feria del Comercio(제10회 유통산업전)

- 기간: 2008.7.11~20
- 장소: Parque de la Industria
- 전시품목: 식음료, 가정용품, 전자제품, 의류, 장신구, 서적, 선물용품 등
- 개최주기: 매년
- 부스임차료(3m x 3m): U\$1,000
- 홈페이지: www.feriasenguatemala.com
- 주최자: 상업회의소(Cámara de Comercio de Guatemala)
- 주소: 10 calle 3-80, zona 1, Guatemala C.A.
- 전화: (502) 2417-2700
- 팩스: (502) 2417-2700
- 홈페이지: www.negociosenguatemala.com

□ Feria del Calzado 2008(2008 신발전시회)

- 기간: 2008.8.5~8
- 장소: Parque de la Industria
- 전시품목: 신발, 원부자재 및 기계류 등
- 개최주기: 매년
- 부스임차료(3m x 3m): U\$1,200
- 홈페이지: 없음
- 주최자: Gremial de Fabricantes de Calzado (신발조합/공업회의소 산하)
- 주소: Ruta 6, 9-21, zona 4, Guatemala, C.A.
- 전화: (502) 2334-6877
- 팩스: (502) 2334-1090
- 홈페이지: www.industriaguatemala.com

□ FERIA ALIMENTARIA 2008(2008 식품전시회)

- 기간: 2008.9.7~10
- 장소: Grand Tikal Futura 호텔
- 전시품목: 각종 식·음료, 원부자재, 포장재, 관련기기 및 기계류 등
- 개최주기: 매년
- 부스임차료(3m x 3m): U\$1,250
- 홈페이지: www.feriaalimentaria.com
- 주최자: CCI (전시전문업체 / Congresos, Convenciones e Incentivos)

- 주소: 3 avenida 13-49, zona 9, Guatemala, CA
- 전화: (502) 2362-5179
- 팩스: (502) 2334-1357
- 홈페이지: www.cci.guatemala.com

□ FERIA DE LA FERRETERÍA 2008 (2008 철물전시회)

- 기간: 2008.11.13~16
- 장소: Grand Tikal Futura 호텔
- 전시품목: 각종 건축기자재, 공구 및 철물 등
- 개최주기: 매년
- 부스임차료(3m x 3m): U\$1,200
- 홈페이지: www.ferretexpo.com
- 주최자: Aces Marketing (철물 전문 마케팅업체)
 - 주소: 18 ave. B, 5-52 A zona 15, Vista Hermosa I, Guatemala, C.A.
 - 전화: (502) 2385-7287
 - 팩스: (502) 2385-7016
 - 홈페이지: www.ferretero.com

4.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가. 비즈니스 에티켓

항상 “감사합니다(Gracias)”, “안녕하십니까(Buenos Días/Buenas Tardes/Buenas Noches)”, “제발-좀 부탁드립니다(-por favor)” 등의 언어가 생활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방문 시 정장을 갖추는 것이 예의이며, 또 대우를 받게 되므로 덩더라도 공식 약속은 넥타이를 갖춘 정장이 일반적이다.

방문 시에는 사전 약속이 원칙이며, 오래 전에 이루어진 약속은 2~3일 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테말라인의 시간관념은 다소 희박한 편이나 상호 중요한 약속일 경우 늦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미리 짐작해 늦게 나가는 등의 태도는 극히 위험하며, 이는 자기와의 거래를 상대가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

첫 대면 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등으로 반갑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초면부터 농담으로 시작하는 것은 불쾌감 또는 경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상담 시 정장 차림이 원칙이며, 상대가 불쾌할 정도로 다리를 꼬거나 의자에 등을 기대서 앉는 등의 태도는 절대 삼가야 한다. 상담 시작 전 상담 테이블에 샘플이나 카탈로그 등 상담자료를 바이어가 보기 쉽도록 lay-out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바이어의 얘기를 충분히 경청한 후 대답하되, 도중에 말을 가로채거나 일방적으로 상담을 이끌어 가는 등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상대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물어보아 바이어가 요구하는 내용에 정확히 답변할 필요가 있으며, 대강 추측해 답변하거나

이해할 경우 추후 거래 과정에서 상호 간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영어 사용을 선호하는 현지인에 대해서는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상호간 교육 받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영어로 대화를 하더라도 간혹 간단한 스페인어를 사용한다면 심리적인 호감을 유발할 수 있다.

상대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거나 또는 내용을 잘 몰라서 상담진행이 안 될 경우에도 상대가 불쾌할 정도로 내색을 하거나 표현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예의 바른 표현으로 정중하게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요한 바이어인 경우 상담과는 별도로 저녁식사 등에 초대하여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예의로 받아 들여질 수 있다.

나. 문화적 금기사항

특별한 금기사항은 없으나, 과테말라 내전이나 원주민 등 인종 간 갈등문제, 미국 불법체류 중인 중미인 추방문제 등 민감한 정치, 사회상황 또는 특정 종족을 대화의 소재로 삼는 행위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과테말라인은 서양식 에티켓에 익숙해 있으므로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내어 음식을 먹는 행위, 호텔에서 고추장 등 한국음식을 먹는 행위 등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상담/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1) 가격 우선 그러나 품질 경쟁력 인정

일반적으로 과테말라 시장은 매우 가격경쟁적이면서 동시에 좋은 품질을 요구한다. 전통적으로 미국산이 양호한 시장 성가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아시아산 제품도 양호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바 과테말라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일단 매우 경쟁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과테말라 바이어들은 가격이 높더라도 그 이상의 장점이 있다고 확신하면 거래 제의에 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취급상품의 장점과 차별성, 경쟁력 등을 부각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2) T/T 거래 선호

과테말라의 많은 업체는 금융비용 및 복잡한 절차 등으로 L/C 개설을 회피하며 T/T 거래를 선호한다. 선금 30%, 선적 후 70% 등의 방식이다. T/T 송금 후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에게 Commercial Invoice, B/L, Packing list 등의 서류를 보내야 한다.

만약 L/C 거래 시 과테말라 은행의 대외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미국소재 외국은행을 통한 CONFIRMED L/C 개설이 안전하다.

3) 초기 소량 오더 일반적

과테말라 수입상들은 대개 처음은 소량 오더가 일반적이며 특히 시장조사와 소비자 기호 파악을 위한 시험구매가 일반적이므로 처음부터 많은 물량을 기대하고 상담에 임하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처음에는 소량 오더를 소화하겠다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4) 중미의 견본시장

중미지역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큰 과테말라의 많은 수입업체는 인근 중미국에도 판매장이나 거래선을 두고 있으며 과테말라에서 시장성이 있는 제품은 인근국가로 확산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과테말라를 기점으로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시장을 점진적으로 공략한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상표등록 직접 실시

상표등록(Registro Mercantil)시 수입업체 또는 에이전트에게 맡기지 말고 현지 변호사 협조로 한국업체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거래 거부 의사 간접적 표현

과테말라 수입상들은 상담 약속이나 거래 추진을 원치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약속시간을 변경하거나 혹은 “나중에 보자”, “담당자가 없다”는 등으로 간접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 재차 연락하는 등 헛수고를 하게 하므로 성사여부를 미리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무역,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과테말라의 소득계층이 상류와 빈곤층으로 대별 되고 중산층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가 높지 않고,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중급 또는 고급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시장개척이 쉽지 않다. 또한 원격지로 인한 A/S 및 부품의 적기 공급, 회신 지연, 언어장애 등으로 개척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또한 현지 관공서 및 기업체의 일 처리 속도가 대체로 늦다는 점을 미리 각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관의 경우 화물통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통관업체의 말만 믿고 있다가 지정된 기일까지 화물이 나오지 못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며 세관에서 자체 설정한 통관요건도 까다로워서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급행료 명목으로 추가적인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험 많은 통관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체로 거래관계에서도 인간적인 유대감을 중시하므로 평소 바이어와의 친분을 돈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사소한 이해관계로 대립하기 보다는 당장은 양보하지만 차츰 보상 받는다는 자세로 상호 간의 신뢰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1) 성공 사례

과테말라의 Zeta La Unión 자유무역지대에서 남자용 우븐 의류를 807 베이스 임가공 형태로 생산하는 Bonaparel 사는 2007 년말 기준 종업원 1,400 명, 연간매출액 2,000 만불 규모의 한국계 업체이다.

당초 설립시에는 Calimero 라는 상호로 종업원 300 명을 고용, 여자용 바지를 생산하여 미국 Kellwood 사에 납품하였는데 2000 년 상호를 현재의 Bonaparel S.A.로 바꾸고 남자 의류를 생 산하고 있다.

설립후 지금까지 20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Bonaparel 사 매출액은 연간 40 만불에서 2,000 만불로 확대되었다. 2000 년대 들어 지속된 근로자 임금상승 및 2005 년 이후 중국산 의류의 미국시장 진출급증 등으로 많은 과테말라 진출 봉제업체들이 폐업하거나 중국, 베트남 등으로 생산거점을 옮기는 상황에서도 Bonaparel 사 매출이 지속 증가하는 이유는 철저한 현지 화에 있다.

현지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관리자에 의한 작업장 내의 억압적 분위기는 제품의 불량률을 높이고 이는 결국 품질불량 및 딜리버리 지연으로 귀결되어 바이어가 발길을 돌리게 되는 봉제산업의 특성을 감안, Bonaparel 사에는 한국인은 총감독 1 인 뿐이며 봉제 기술을 이전받은 현지인이 라인반장 등 관리를 담당하는 자율규제 위주 현지화 전략을 통해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아직까지 별다른 노동문제가 없으며 생산성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

캐주얼 바지(리바이스, Dockers 등)를 예로 들면 미국 바이어가 지불하는 임가공비는 90 년 대에는 1 장당 3 불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의 영향으로 2 불 정도인데 Bonaparel 사는 1 라인당 생산량을 종전 1 일 500 장에서 현재는 1,200 장으로 2 배 이상 증대시킴에 따라 임가 공비 하락을 충분히 상쇄시키는 생산성 향상을 이루고 있다.

또한 현지의 많은 업체들이 원부자재를 파키스탄 및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구입, 의류를 생산하는 Full Package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Bonaparel 사는 오랜기간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바이어 Dickies 사가 제공하는 미국산 원단 및 현지 원단을 사용함으로써 DR-CAFTA(중미자유무역협정)의 무관세 혜택을 받는 점도 미국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힘이 되고 있다.

폴리카튼 혼방 바지의 경우 Full Package 제품은 對미 수출시 FOB 29.5%의 관세가 부과되 나 Bonaparel 사 제품은 무관세이기 때문에 아시아산 대비 다소 고가인 미국산 원단을 사용 하더라도 미국시장에서 충분히 가격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채임덕 사장은 밝히고 있다.

2) 실패 사례

한국 J 기업과 과테말라의 N 기업 간에 의약품 분쟁 사례가 있었다. 한국 J 기업은 과테말라 N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이미 선금까지 받은 상태였으나 제품 실험을 이유로 1~2년 더 수출 시기를 지체하자 N 기업이 J 기업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되었다. 이 사건은 1년 이상 중재 기간이 걸렸는데 결국 J 기업이 패배를 인정함으로써 N기업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구하기

현지 정착에 필요한 구좌개설, 전화신청, 비자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거를 정하여야 한다.

주거를 물색할 때는 현지 부동산 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소개료는 임대인이 첫 달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임차인은 내지 않는다. 대체로 여러 곳의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주일 정도 돌아본 후 가장 적합한 곳으로 정한다.

월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평균 800~1,500달러 정도이나 최근 사회치안 악화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치안이 안전한 지역의 고급 아파트는 2,000 달러 이상인 경우도 많이 있다.

과테말라 시내에서 거주지역으로는 ZONA 14 지역과 ZONA 15 지역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이는 과테말라의 신시가지인 ZONA 10 등과 가깝고 치안이 우수하며 주변 조경도 훌륭하여 거주지로는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차료가 비싸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가격은 다소 저렴하나 ZONA 9, 10, 13, 11 등의 지역도 비교적 치안상태가 양호하고 조용한 곳도 있으므로 잘 판단하여 선택한다.

다만 주택을 고를 때 유흥업소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 인접한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이면 버스 정류장 앞 등도 삼가는 것이 안전하다. 또 한가지는 과테말라 시내 공항에서 비행기의 항로나 이착륙 루트에 위치한 주택은 소음이 굉장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고급주택의 경우 자동차 차고(1가구당 1~2대)를 갖고 있으며 차고임차료는 주택임차료에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소 수준이 떨어지는 주택은 별도의 차고가 없어 거리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차고가 있고 경비원이 상주하는 주택을 구한다.

FULL-FURNISHED 주택은 거의 없고 주방에 필요한 일부 가구(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만이 비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거실이나 침실 등에 가구를 갖춘 주택이 있으나 임차료를 더 비싸게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계약시에 1명의 보증인(과테말라인 또는 현지거주 한국인)을 세워 함께 서명해야 하며 첫달은 해당월 임차료와 1달치 임차료에 해당하는 보증금(DEPOSITO)을 내야 한다.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면 미납 전화료, 전기료 등을 공제하고 집 내부 수리비를 공제한 후 돌려준다. 임차인은 주택을 임차 당시의 상태로 돌려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원상회복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주시에 벽의 못구멍이나 흠집, 바닥의 하자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미리 사진을 찍어두고 주인에게 통보해줄 필요가 있다.

계약기간은 1년이 보통이며, 당사자간 합의로 2년 또는 3년 계약도 가능하다. 계약서는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계약수수료로 800 께찰을 내야 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1,000 께찰을 더 내야 한다.

나. 비자

한국과 과테말라는 상호 90일간 무비자로 입국, 체류할 수 있으며 90일 만료 전에 이민청(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에 가서 1회에 한해 재차 9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후 2년간 임시체류(Residencia Temporal)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후에는 5년간의 영주권(Residencia Permanente)을 받을 수 있다.

각각의 경우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비자발급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비자 연장(90일간)

□ 제출서류

- 비자연장 신청서
- 여권 원본
- 신용카드 또는 여행자수표

□ 제출기한 및 소요기간

- 제출기한: 무비자 입국일 만료 3일 전까지
- 소요기간: 1일

2) 임시체류 허가(2년간)

□ 제출서류

- 임시체류허가 신청서
- 최근 상반신 증명사진
- 여권 원본
- 여권 전체 페이지 사본(변호사 공증 필요)
- 여권 유효 증명서(대사관 발행)
- 무범죄 경력 증명서(대사관 발행, 2개월 소요)
- 현지인 또는 법인의 신원보증서
 - 현지인 보증 시: 보증인의 부가가치세(IVA) 및 소득세(ISR) 납세증명서, NIT 사본(변호사 공증), 재직증명서, 월수입 확인서, 신분증(Cédula) 사본(변호사 공증) 포함 제출
 - 법인 보증 시: 법인 재무제표(또는 재무부 추천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혹은 관련 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증명서), 상업등기 등록증 사본(변호사 공증), 법적 대표자의 여권 사본 또는 영주권 사본, 법적대표자 증명서(변호사 공증), 노동허가서(노동부 발행) 포함 제출

□ 제출기한 및 소요기간

- 제출기한: 비자 연장기한 만료 15일 전까지
- 소요기간: 3개월

3) 영주권 신청(5년간)

□ 제출서류

- 상기 임시체류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임시 비자

□ 제출기한 및 소요기간

- 제출기한: 임시체류 비자 만료 1개월 전까지
- 소요기간: 3개월

□ 참 조

- 영주권 취득 시 과테말라 신분증(Cédula)을 취득하며 "과테말라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됨.
- 국외체재 허용기간: 1년
- 재입국 허가제도: 없음
- 법적지위: 과테말라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 (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 연락처

- 기관명: 이민청(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 관련부서: Departamento de Extranjería (외국민국)
 - 주소: 6 avenida 3-11, zona 4, Guatemala, C.A
 - 전화: 2411-2411(대표전화)
 - FAX: 2411-2411 ext. 6008 (전화번호와 동일하며 신호가 떨어지면 6008 을 누름)
 - 홈페이지: www.migracion.gob.gt

다. 은행구좌 개설

외국인들도 자유롭게 현지화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여권과 약간의 예치금을 가지고 가서 구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약 3~4일 내에 달러화 및 현지 께찰화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시 은행에 따라 다르나 보통 500~2,000 께찰의 구좌개설 수수료를 받는다. 구좌가 개설되면 수표책을 발급받아 사용하며 별도로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 카드 신청 시 1명의 보증인을 요구한다.

개인수표는 일부 상점이나 식당 등에서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신용카드는 대부분 별 문제 없이 통용된다. 현지 한국식당에서는 카드 수수료로 5%를 더 받기도 한다.

라. 전화, 휴대폰, 인터넷 설치

과테말라 전화회사 (TELGUA) 에 여권사본,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증인을 세우면 가설할 수 있다. 신청시 2,000 께찰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기간은 3-5일 정도 소요된다. 주택 임차 시에는 별도 전화가입 신청은 필요 없으며 임대한 집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휴대폰 서비스는 Sercom, Comcel, Telefónica 3개사가 실시하고 있다. 통화요금 지불 방식은 전화카드를 통한 사전요금지불(선불카드) 방식이 대부분이며 통신회사와 계약을 맺고 사후에 요금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다. 요금은 선불카드 사용시 100 께찰당 100분 통화가 가능한데 3개사간 경쟁으로 1주일중 특정 요일에는 300분 통화가 가능한 카드를 판매하기도 한다. 사후요금 지불방식은 다양한 옵션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일례를 들면 월 120 께찰로 300분 통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인터넷은 Telgua(인터넷 서비스 명칭 Turbonett), Convergence 등과 같은 ISP 업체에 의뢰하는데 설치에 15일 정도 소요되며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각종 옵션이 있다.

마. 자동차 구입

인근의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계상 또는 신문광고 등을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기도 한다. 신차의 경우 할부로도 구입이 가능한데 이 경우 은행 거래증명이나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신차 가격은 비싼 편으로 소형차(예: TOYOTA YARIS) 가격이 대략 1만3천 달러 수준이다.

□ 운전면허 발급 절차

○ 한국 면허증

-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면허증이나 일반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과테말라 도착 후 90 일간은 별도 허가 없이 운전이 가능하나, 반드시 입국소인이 날인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 임시 운전허가증 (Permiso de Conducir)

- 한국의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임시 체류비자(2 년)를 가진 경우 운전면허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찰청 교통국(Departamento de Tránsito de la Policía Nacional Civil)에 하며 신청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보증서, 여권용 사진 2 매, 시력검사 소견서(공인된 병원 또는 Mycom)를 준비해 가면 된다. 수수료는 30 께찰/1 개월+4.25 께찰, 즉 1 년에 364.25 께찰이며 회수에 제한 없이 갱신 가능하다. 운전면허 발급센터(Mycom / Centro de Emisión Licencias de Conducir)에서 면허증을 교부 받는다.

○ 운전면허 (Licencia de Conducir)

- 한국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영주권자는 과테말라 운전면허를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 교통국(Departamento de tránsito)에 신청하며 Mycom 에서 면허증을 교부 받는다. 유효기간은 1 년에서 최대 4 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갱신 또한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영주비자, 영주권(Cédula) 사본,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및 영사 확인이 된 스페인어 번역문과 수수료 1 년(100 께찰)-4 년 (320 께찰)이 있으면 된다.

○ 운전면허증 미소지자

- 한국 운전면허증 미소지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정규 면허시험을 치러야 하며 영주권이 필요하다. 운전면허가 없는 임시거주 비자를 가진 한국인은 허가된 운전학원에서 필기, 실기시험을 치른 후 경찰청 교통국에서 운전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적법한 운전면허증이 없이 운전시 300 께찰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바.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

과테말라의 가구는 대부분 미국, 멕시코, 이태리 등에서 수입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삿짐으로 부칠 물건과 현지에서 구입할 물건을 잘 선택해 둘 필요가 있다.

가구는 PROCERES 거리의 전문 가구매장(PLAZA DE INMUEBLES)이 가장 다양하고 폭넓은 가격대의 제품을 판매한다. 고가인 만큼 선불리 선택하기 보다는 이곳 저곳을 둘러본 후 충분히 검토하여 구입하는 것이 좋다.

가전제품은 대형 슈퍼마켓 CEMACOL나 전문 양판점인 LA CURACAO, THAT'S HOLLYWOOD 등에서 구입하면 무난하다. 대체로 110V이나 일부 220V 겸용인 제품도 나오므로 귀국 후 사용할 수 있는 지도 함께 검토함이 좋다.

사. 병원

병원은 개인의원 중에도 외국인을 전문으로 상대하는 우수한 의원이 있으며 종합병원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다. 병원은 대체로 상류층이나 외국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의료수가가 매우 높은 편이다. 현지 의료보험은 본인 부담액이 높아서 의료보험의 가치가 유명 무실하며 대형사고시나 유효한 실정이다.

간단한 약(두통, 소화제, 감기약 등)들은 처방전 없이도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 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생산된 의약품도 신뢰 할 수 있다.

○ 주요 국립병원 연락처

- Hospital General San Juan de Dios (2253-0423, Zona 1)
- Hospital Roosevelt (2471-1441, Zona 1)

○ 기타 주요 병원

- Centro Medico(2279-4949, Zona10)
- Hospital Herrera Llerandi(2384-5969, Zona10)
- Hospital Novicentro(2381-1700/2381-1723, Zona11)
- Hospital Multimedia(2385-7877, Zona 15)
- Sanatorio Nuestra Senora del Pilar(2420-0000 / 2279-5000, Zona 15)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 특성

과테말라는 해안 지방에서부터 최고 4,000m의 산악지대까지 걸쳐 있어 매우 다양한 기후 조건을 갖고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1500미터 이상 고지대는 최고 25/30도, 최저 12/15도, 연 평균 18/20도내 외의 온대성 기후를 보여 "상춘의 나라"로 불리기도 하나, 해안지방이나 저지대의 경우에는 최고 35도, 최저 25도, 연평균 28도 내외의 열대성 기후를 나타낸다.

우기는 5월에서 10월 사이로 흐린 날이 많고 하루에 한차례 이상 소나기가 내린다. 과테말라 시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원의 연평균 강우량은 약 2,000mm내외이며 70-80% 내외의 습도를 나타낸다. 반면 11월-4월 기간은 건기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며 40-60% 내외의 습도를 보인다.

2) 주요도시 기후

□ 과테말라시티

수도 과테말라시티는 1,300-1,500m의 고지에 위치한 관계로 연평균 기온 차이는 크지 않으나 겨울(12-2월)에는 밤 기온이 다소 떨어지며 일교차가 심해 감기에 걸리기 쉽다. 계절은 크게 여름과 겨울로 나뉘는데, 11월-4월은 건기, 5월-10월은 우기로 하루에 한차례 이상씩 비가 내린다 (현지인들은 우기를 겨울, 건기를 여름이라고 부른다).

□ 출장 시 추천 복장

과테말라에서는 아무리 춥다 하더라도 두꺼운 외투는 필요치 않으나, 겨울철(11월-2월)의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춥고 일교차가 심해 하복 정장의 경우 감기에 걸릴 수도 있으므로 동복 (필요 시 조끼 또는 내복)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름철의 경우는 반팔 티셔츠로 충분하나 우기의 경우에는 체감온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간편한 점버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한편 고도가 없는 해안가로 내려갈 경우 연중 매우 더운 아열대성 기후를 나타내므로 간편한 티셔츠 차림으로도 충분하다.

나. 시차 / 근무시간

1)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15시간으로 과테말라의 아침 9시는 한국의 다음날 밤 12시가 된다.

2) 근무시간

과테말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이나 대부분의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 기업체 근무시간은 08:00-17:00시이며 점심시간은 12:00-13:00(또는 13:00-14:00)이 보통이다(일부 기업체는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18:00시까지 근무하기도 한다).

관공서의 근무시간은 08:00-16:00시이나 일부 정부부처는 09:00-17:00시로 조정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은행 근무시간은 은행별로 매우 다양하다. 본점의 경우 보통 08:30(또는 09:00)-18:00까지 근무하며 일부 은행은 20:00시까지 근무하기도 한다. 한편 지점의 경우는 09:00-15:00시, 또는 09:00-17:00시까지 근무하며, 對고객 업무는 09:30부터 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과테말라의 일부 은행은 토요일도 영업을 하는데 근무시간은 09:00-13:00시이다.

CEMACO, PAIZ 등 대형 쇼핑센터는 통상 09:00(10:00)시부터 21:00시까지 영업하며, 일반 상점의 경우는 보통 20:00시까지 문을 연다.

식당은 오전 11:00시부터 22:00시까지 영업하며 주말은 23:00시까지 연장하기도 한다.

다. 주요 단위

무게 단위	환산치
○ 톤	1000 킬로그램, 2204파운드
- 킬로그램	1000 그램
- 리브라 (Libra)	0.45 킬로 그램(파운드)
- 낱말(Quintal)	100파운드
○ 길이 단위	
- 미터	100센티미터
- 야드	91센티미터
- 뽀에(Pie, 피트)	30센티미터
- 뽀가다(뽀가다, 인치)	2.5센티미터
○ 부피 단위	
- 갤런	3.78 리터
- 리트로(리터)	0.26 갤런

라. 출입국 / 비자

1) 비자

한국과 과테말라는 상호 90일간 무비자로 입국, 체류할 수 있으며 90일 만료 전에 이민청(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에 가서 1회에 한해 재차 9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후 2년간 임시체류(Residencia Temporal)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후에는 5년간의 영주권(Residencia Permanente)을 받을 수 있다(7. 이주정착 가이드 참조).

2) 출입국 절차

과테말라시티의 라아우로라(La Aurora) 공항은 2007년 말 1차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깨끗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 출국

출입국에 특별한 절차는 없으나, 과테말라도 출국시 보안검사가 강화되었다. 일단 항공사 탑승수속을 마친 다음 보세구역 내에 들어가기 전 출국세 납부창구에서 1인당 U\$3의 출국세를 납부하고 납부 증명서를 받아 보안요원에게 제시한다. 이후 엄격한 보안검사를 마친후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여 보세구역 내에 들어가서 탑승하면 된다.

□ 입국

입국시는 기내에서 배포하는 입국 및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고 비행기에서 내려 통로를 따라 한참 걸어오면 입국심사대(Imigración)가 나타난다.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시하여 심사대

를 통과하면 짐을 찾을 수 있는 컨베이어가 있다. 짐을 찾은 후 나오면 세관(Aduana)이 보이는데 기내에서 작성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면 별 문제없이 통과된다. 그러나 짐이나 카톤 박스 등이 많으면 상업적 물품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히 검사하기도 한다.

세관을 나오면 간단한 환전소가 있으므로 적정액을 현지화(캐찰)로 환전하는 것이 좋다. 공항에서 호텔이 많이 있는 Zona 10 지역까지 택시비가 70캐찰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영접하는 사람이 없으면 10불 정도 환전하여 택시비를 지불하면 된다.

택시 기사에게 호텔명만 말해주면 찾아 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혹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주소도 함께 알려주는 것이 좋다. 공항에서 호텔 지역까지는 10분 내외의 가까운 거리이다. 택시에 보통 미터기가 없으므로 사전에 기사에게 요금을 문의해야 하는데 호텔지역까지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보통 70 캐찰 정도를 요구한다.

마. 환전

1) 화폐단위

화폐단위는 캐찰(Quetzal)로서 약칭은 Q이며, 1캐찰은 100센타보(Centavos)이다. 지폐는 5, 10, 20, 50, 100캐찰이 있으며, 주화는 1, 5, 10 25센타보와 1캐찰로 되어 있다.

2) 환율

과테말라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비교적 환율이 안정된 나라의 하나이다. 2001년 말 수출 부진에 따른 외환 유입액 감소와 국제 외환유동성 위기 등의 영향으로 U\$1=Q7.98을 기록한 적도 있었으나 그후 정부의 환율 안정을 위한 시장개입으로 부분적인 등락세를 보이면서 장기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7월말 현재는 U\$1=Q7.44 수준이다.

3) 환전요령

공항 내 은행이나 호텔근처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호텔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환율상 유리하며 호텔비도 현지화로 지급하면 다소 경제적이다. 환전 시에는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별도의 환전수수료는 없다.

바. 교통/통신

1) 우리나라와의 교통

우리나라에서 가는 직항 항공편은 없으며, 캐나다의 밴쿠버, 미국의 L.A, 마이애미, 뉴욕 및 멕시코, 파나마 등지에서 비행기편을 이용할 수 있다. 통상 미국 L.A.에서 직항으로 5시간, 마이애미나 멕시코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된다. 정상요금은 L.A구간이 \$750불(세금 포함) 내외, 마이애미 구간이 \$550 내외이나 시즌별 항공사별로 큰 차이가 난다. L.A. 왕복이 U\$350 인 경우도 있다.

2007년 중반 라아우로라 공항에는 13개 항공사가 취항하였으나 2008.9월 이후에는 9개 항공사만 남게 된다. 2007.10월 Aeroméxico가 운항을 중단했으며 2008.6월에는 Interjet이 중단하였다. United Airlines 및 US Airways는 9.2일부로 중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American Airline, Delta, COPA, TACA, Continental Airline, Spirit Airline, Aero Cubana, Iberia, Mexicana 등 9개 항공사만 취항한다.

2) 국내교통

□ 택시·렌트카

국내에서는 치안불안 및 간혹 발생하는 외국인 피습사건 등을 대비 택시나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택시도 일반택시보다 콜택시를 부르는 것이 안전하다. 가격은 비슷하다. 택시요금은 승차 전 협상을 해야 하는데 공항에서 Zona 10 지역의 유명호텔까지는 10달러 수준이며 시외로 나갈 때는 거리별로 협상을 해야 한다. 한편 AVIS, BUDGET, DOLLAR, AHORRENT 등 렌터카가 많이 있으며 경승용차부터 왜건, 4WD까지 골고루 갖추어져 있다.

콜택시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Taxis Amarillo Express
 - 주소: 10 C 3-17, Zona 10 Edif AGenera, Guatemala, C.A
 - 전화: (502) 2332-1515
- Taxis Verde Express
 - 주소: Av. Ferrocarril 17-13, Zona 12, Guatemala, C.A
 - 전화: (502) 2475-9595

□ 시내 대중교통

과테말라의 시내버스 요금대에 따라 1.25께찰과 2께찰(야간요금)의 두 종류가 있다. 1.25께찰 버스는 대체로 노후화되어 이용을 권장기 어려우나, 1께찰 버스는 최근 신형 버스로 비교적 깨끗해 이용할 만하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급적 버스는 이용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야간에 임의 이동 또한 위험도가 높다. 최근에는 많이 줄어 들었으나 버스 내에서 강도사건이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며, 가급적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에이전트나 기타 동반자와 동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 사정은 과테말라 국내 총 연장거리가 26,429Km인데 반해 포장도로는 2,869Km내외로 도로 포장률이 11%에 불과하다.

3) 통신

DHL, UPS, FEDEX 등 특사운송은 일반소포의 경우 한국까지 U\$40~50 수준이며 전화로 요구하면 방문하여 픽업한다. 국내전화 요금은 1분당 U\$0.04, 국제전화는 1분당 미국 U\$0.1, 한국 U\$1 수준이다. 국제전화는 143 또는 147을 누르고 00을 누른 다음 국가 코드-지역코드-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사. 호텔 / 식당

1) 호텔

외국인은 안전상 신도심지인 Zona 9 또는 Zona 10 지역 소재 호텔에 투숙하는 것이 좋다. 유학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투숙하는 경우에는 아파트형 호텔도 권할 만하다.

- Westin Camino Real
 - 주소: Calle Camino Real 0-20, Zona 10, Guatemala, C.A
 - 전화: (502) 2410-5000 / 2337-4406

- 팩스: (502) 2368-3741
- 가격: 싱글 및 트윈 \$115 + 22% Taxes

- Vista Real
 - 주소: Km. 9 Carretera El Salvador, Guatemala, C.A
 - 전화: (502) 2427-0000
 - 팩스: (502) 2427-0001
 - 가격: 싱글 \$92, 트윈 \$102 + 22% Taxes (아침식사 포함)

- Inter-Continental
 - 주소: 14 Calle 2-51, Zona 10, Guatemala, C.A
 - 전화: (502) 2379-4444
 - 팩스: (502) 2379-4445
 - 가격: 싱글 \$127, 트윈 \$142 + 22% Taxes (아침식사 포함)

- Marriott Guatemala City
 - 주소: 17 Avenida 15-45, Zona 9, Guatemala C.A
 - 전화: (502) 2410-1777
 - 팩스: (502) 2332-1877
 - 가격: 싱글 및 트윈 \$120 + 22% Taxes (아침식사 포함)

- Clarion Suite
 - 주소: 14 calle 3-08, Zona 10, Guatemala, C.A
 - 전화: (502) 2421-3333
 - 팩스: (502)2363-3303
 - 가격: 싱글 \$99, 트윈 \$109 + 22% Taxes

- Grand Tikal Futura
 - 주소: Calzada Roosevelt 22-47, Zona 11, Guatemala, C.A
 - 전화: (502) 2410-0800
 - 팩스: (502) 2440-2180
 - 가격: 싱글 및 트윈 \$65 + 22% Taxes(아침식사 포함 시 + \$10)

- Princess Reforma
 - 주소: 13 Calle 7-65, Zona 9, Gutemala, C.A
 - 전화: (502) 2334-4545 / (502) 2423-0909
 - 팩스: (502) 2334-4546
 - 가격: 싱글 \$70, 트윈 \$75 + 22% Taxes (아침식사 포함)

- Holiday Inn Guatemala
 - 주소: 1Avenida 13-22, Zona 10, Guatemala, C.A
 - 전화: (502) 2421-0000
 - 팩스: (502) 2332-2584
 - 가격: 싱글 및 트윈 \$75 + 22% Taxes (아침식사 포함)

- Radisson
 - 주소: 1 Avenida 12-46, Zona 10, Guatemala, C.A
 - 전화: (502) 2421-5151

- 팩스: (502) 2332-9772
- 가격: 싱글 \$70, 트윈 \$73 + 22% Taxes (아침식사 포함)

□ 아파트형 호텔

- Apart Hotel Suites Reforma
 - 주소: Avenida Reforma 12-51, Zona 10, Guatemala, C.A
 - 전화: (502) 2334-3280
 - 팩스: (502) 2383-6343
 - 가격: 싱글 \$60, 트윈 \$65 + 22% Taxes (아침식사 포함)
- Apartamento Las Torres
 - 주소: 13 Calle 0-43, Zona 10, Guatemala, C.A
 - 전화: (502) 2332-0536
 - 팩스: (502) 2332-0536
 - 가격: 싱글 \$38.50, 트윈 \$60

2) 식당

□ 한식

- 고려정
 - 주소: 4a. Ave. 12-63, Zona 9, Guatemala, C.A
 - 전화: (502) 2362-5558
 - 갈비, 안창살, 활어회 등
- L.A. 가든
 - 주소: 34 Ave. 1-65, Colonia Toledo Guatemala, C.A
 - 전화: (502) 2384-0178
 - 갈비 전문
- 순풍식당
 - 주소: 32 AVENIDA 1-34, ZONA 7, GUATEMALA , C.A
 - 전화: (502)2433-1995
 - 순대국밥, 머리고기, 설렁탕, 야채불고기 등
- 호돌이
 - 주소: 13 Calle 3-20, Zona 9 Guatemala, C.A
 - 전화: (502) 2331-3429
 - 복사시미, 활어회 등
- 서울가든
 - 주소: 46 Calle 1-79, Monte Maria, Zona 12, Guatemala, C.A
 - 전화: (502) 2479-1664
 - 한정식, 활어회, 보쌈 등

○ 과테골

- 주소: 46 Calle 6-87, Zona 12, Colonia Maria III, Guatemala, C.A
- 전화: (502) 2477-2638
- 복사시미, 아구썸 등

○ 한국관

- 주소: 2a Calle 33-14, Zona 7, Calz mateo Flores
- 전화: (502) 2431-3947
- 숯불갈비, 냉면 등

□ 중식

○ Lai Lai

- 주소: 12 Calle 5-27, Zona 9, Guatemala, C.A
- 전화: (502) 2331-6507/2334-4988
- 한국인 기호에 맞는 중국요리

○ 帝苑酒家(JADE ORIENTAL)

- 주소: 12 Calle 6-42, Zona 9, Guatemala, C.A
- 전화: (502)2331-1429

○ Restaurante Mongolia

- 주소: Avenida Las Americas 2-50, Zona 13, Guatemala, C.A
- 전화: (502) 2345-589
- 징기스칸식 부페요리

○ 중국성

- 주소: 16 Calle 36-61, Zona 7, Guatemala, C.A
- 전화: (502)2362-5172 / 5173
- 한국인이 운영하는 중국요리집. 자장면, 짬뽕 등

□ 양식

○ KACAO

- 주소: 2a Avenida 13-44, Zona 10, Guatemala, C.A
- 전화: (502)2337-4188
- 과테말라 전통요리

○ LA MEDIA CANCHA

- 주소: 13 Calle 04-71, Zona 9, Guatemala, C.A
- 전화: (502)2331-6463
- 스테이크 전문

○ HACIENDA REAL

- 주소: 13 Calle 1-10, Zona 10, Guatemala, C.A
- 전화: (502)2333-5408/9, 368-1168
- 스테이크 전문

- MONTANO STEAK HOUSE
 - 주소: 12 Calle 3-28, Zona 10, Guatemala, C.A
 - 전화: (502)2332-6832
 - 스테이크 전문
- DONOSTI
 - 주소: 13 Calle 2-75, Zona 10, Guatemala, C.A
 - 전화: (502)2334-3884
 - 스페인요리 전문
- TRE FRATELLI
 - 주소: 2 DA Avenida 13-25, Zona 10, Guatemala, C.A
 - 전화: (502)2366-3168
 - 스파게티 등 이태리 요리

아. 관공서 관행

1) 민원 처리기간

최근 관공서 민원창구의 일 처리 습관이나 태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이 사실이나 아직까지 속도가 느린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민원서류는 약 5일 내외에서 복잡한 서류의 경우에는 최소 30일에서 60일까지 걸린다고 보면 된다.

무비자 협정으로 입국 시 비자가 필요 없으나, 연장 시 이민청에서 즉시 발급해 주며 거주 비자의 경우는 6개월 정도 걸리며, 등기소에 서류를 등기하거나 증명서를 발급 받는 데도 5일에서 15일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세관의 경우 2일내 통관을 원칙으로 하는데 서류상의 하자나 규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일이 더 소요된다.

계약체결 시 필요한 변호사의 공증 등은 소요기간이 들쭉날쭉한 것이 현실이다. 공증인 사무실에 다른 서류에 밀려 오래 대기 상태로 남을 경우 몇 달씩 소요되기도 한다. 따라서 급한 서류인 경우 본인이나 담당직원 인편으로 직접 서류를 전달하여 가급적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요령이다.

2) 관공서 방문 시 유의사항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방문객의 옷차림이나 태도, 사회적인 지위 등에 따라 대우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관공서를 방문할 때에는 가급적 정장 또는 단정한 차림으로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의에 벗어나는 듯한 언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대체로 원칙에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억지를 쓰거나 애원하듯 부탁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별로 없으므로 사안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

일반 민원창구가 아닌 담당공무원 면담 등의 경우 사전약속이 원칙이므로 늦어도 3-4일 전에 시간을 정하도록 하며, 약속한 경우에도 간혹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요한 약속인 경우는 출발 전에 컨펌하는 것이 좋다.

자. 공휴일

1) 공휴일 지정방식

전국적인 공휴일과는 별도로 주 또는 도시별로 별도의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 부활절을 제외하고는 공휴일이 몇 월 몇 일 식으로 매년 동일하다.

2008년도 공휴일

명 칭	일 자
신정	1/1
부활절	3/20-21(매년 변경됨)
노동절	5/1
국군의날	6/30
성모승천일	8/15(과테말라시티만 해당)
독립기념일	9/15
혁명기념일(1944년 혁명)	10/20
만성절(한식)	11/1
성탄절	12/25
연말휴가	12/31

주: 12.24일(Nochebuena) 및 12.31일은 정규 공휴일은 아니나 관례적으로 전일 휴무 또는 오후 휴무함.

2) 출장 지양기간

매년 부활절 주간(Semana Santa)은 관공서, 은행, 기업체 등 모두가 휴가에 들어가며, 일부 개인업체의 경우에는 1주일 전체를 휴무하기도 한다.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1달간은 과테말라의 휴가철로서 각 기관에서는 15일 내외의 휴가를 떠나므로 현지 연락이나 접촉은 거의 불가능하며, 동 기간 중 항공편 예약도 피크를 기록한다.

차. 여행 시 유의사항

1) 의복 준비

과테말라는 해발 0미터에서 최고 4000미터까지 분포되어 있어 기후가 매우 다양하며, 따라서 여행지에 따라 복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과테말라시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경우 해발 1500m의 고지로서 연중 기온변화가 크지 않으나 11월~2월에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을 나타내므로 동복 정장 또는 스웨터, 조끼, 점퍼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2) 전기규격

주파수는 60Hz로 한국과 같으므로 사용에 문제가 없으나, 가정용 기기의 전압은 110V로서 220V제품은 변압기가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 한편, 산업용으로는 120, 240, 440V를

사용한다. 또한 전압이 불안정해 전압안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단전이 자주 일어나므로 UPS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여행여건

□ 치안

Antigua시 및 Tikal 마야 유적지 등 유명 관광지를 제외하면 과테말라의 치안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으므로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

초행자든 현지 거주자든 누구를 불문하고 주간이든 야간이든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은 삼가해야 하며 시골여행도 단독으로 하는 것은 습격이나 강탈을 당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008.7월 미국에서 봉사하러 왔던 한국인들이 빼펄(Peten) 지역에서 주민들에 의해 오해로 감금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도권에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재래식 시장이나 구도심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

여행 시 귀중품을 다수 소지하거나 달러화를 다량 소지하는 등의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시내 이동 시는 호텔에서 주선해 준 택시를 이용하되 시외, 시내버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주택도 공동거주 주택의 경우 경비원이 상주하므로 안전한 편이나 단독주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렌트카로 여행시도 야간이동은 가급적 삼가야 하며 현지인 동행 또는 안내인이 동승하는 것이 안전하다.

□ 응급

국번 없이 125 또는 128을 누르면 구급차를 부를 수 있다. 병원은 개인의원 중에도 외국인을 전문으로 상대하는 우수한 의원진이 있으며 종합병원으로는 AURORA, HERRERA, PILAR, CENTRO MEDICO 등이 있다. 대체로 상류층 또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의료수가가 매우 높은 편이다. (예: 간단한 중기수술비가 U\$1,000 내외로 청구됨). 현지 의료보험은 본인 부담이 진료 건당 U\$300 내외로 의료보험으로서의 가치가 유명 무실하며 대형 사고시나 유효한 상황이다.

간단한 두통, 소화제, 감기약 정도는 처방전이 없이도 가까운 약국(Farmacia)에서 구입 가능하며 의약품 수준은 신뢰할 수 있는 편이다. 감기약, 해열제, 두통약은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나 U\$10~30 정도로 비싼 편이며, 호텔 투숙 시는 호텔에서 구급약을 지원 받거나 리셉션 데스크에 문의하면 안내해 준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음과 같다.

○ 복음의원

- 주소: 2 Calle 35Ave. 2-90, Zona 7, Residenciales, Guatemala, C.A
- 전화: (502) 2439-4545

○ 중화한방병원

- 주소: 2a Calle 34-15, Zona 7, Colonia Toledo, Guatemala, C.A
- 전화: (502) 2439-3252 / (502) 5105-4317

○ 동서한의원

- 주소: 30 Avenia 6-30, Zona 11, Residencial 5, Guatemala, C.A (CANAL 3 방송국 옆)
- 전화: (502) 2439-5029 / (502) 5528-4503

□ 팁 관행

모든 부문에서 팁이 완전히 보편화된 것은 아니나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는 팁이 일반화되어 있다. 공항에서 수하물용 카트와 짐을 운반해 주는 경우 U\$1 정도의 팁이면 되며, 호텔에서는 U\$ 1~2 수준, 일행이 많을 경우도 U\$5 내외면 적당하다. 음식점에서는 식대에 비례하여 U\$ 50~60 미만은 10%, U\$100 이상은 5% 내외면 적당하며, 택시의 경우 U\$1 미만의 잔돈을 남기면 충분하다. 일부 식당의 경우 서비스료로 10%를 청구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별도의 팁이 필요 없다.

□ 식수

과테말라의 물은 석회질이 함유되어 있어 식수로 적합치 않으며 따라서 끓여서 마시거나 생수(미네랄워터)를 구입해 마시는 것이 좋다. 식당에서는 일반적으로 물을 무료로 제공하나 특별히 생수를 주문하면 돈을 내야 한다. 일반 가정에서도 보통 생수를 배달하여 마시는 것이 보통이다.

□ 이발소

한국인이 운영하는 이발소도 6곳 정도가 있으며, 현지인 이발소는 보통 남녀 구분이 없는 UNISEX가 일반적이며 요금은 업소에 따라 다르나, 보통은 30~40께찰 선이며 다소 비싼 곳은 80께찰까지도 한다. 이발 전후로 머리를 감겨주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 값은 다소 올라 간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주요 이발소는 아래와 같다.

○ 종로 이발관

- 주소: 32 Ave. Col. Utatlan1, Zona 7, Guatemala, C.A
- 전화: (502) 5407-1053

○ 미로 헤어샵

- 주소: 2 Calle 35-78, Zona 7, Mateo Flores, Guatemala, C.A
- 전화: (502) 2439-2715

○ 에바 미용실

- 주소: 4 Calle 32-79, Zona 11, Utatlan 2, Guatemala, C.A.
- 전화: (502) 2434-7154

○ 윤진화 헤어샵

- 주소: Calzada Aguilar Batres 43-35, Zona 12, Comercia Plaza Monte Maria Guatemala, C.A
- 전화: (502) 2479-1120

○ 까꼬보꼬

- 전화: (502) 2434-7454

□ 구두닭이

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구두닭이를 많이 볼 수 있으며, 가격은 보통 3개찰 정도로 싼 편이다. 구두만을 전문적으로 닭는 가게는 없으며 대개가 거리에서 잠깐 시간을 내어 구두를 닭는 것이 일반적이다.

카. 유용한 연락처

1) 한국기관

- 주 과테말라 한국대사관
 - 주소: 5 Ave. 5-55, Zona 14, Edificio Europlaza, Torre 3, Nivel 7, Guatemala, C.A
 - 전화: (502) 2382-4051~5
 - 팩스: (502) 2382-4057~8
 - 홈페이지: gtm.mofat.go.kr
 - 이메일: korembasy@mofat.go.kr
- KOTRA 과테말라 한국무역관
 - 주소: 13 Calle 3-40, Zona 10, Edif. Atiantis, Oficina 605, Guatemala, C.A
 - 전화: (502)2367-2347/48/49
 - 팩스: (502) 2367-2350
 - 홈페이지: www.kotra.or.kr
 - 이메일: kotra1@newcomgua.com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과테말라 사무소
 - 주소: 5 Ave. 5-55, Zona 14, Edificio Europlaza, Torre 3, Nivel 7, Guatemala, C.A
 - 전화: (502) 2382-4061~2
 - 팩스: (502) 2382-4063
 - 홈페이지: www.koica.org.gt
 - 이메일: info@koica.org.gt

2) 한인단체

- 한인회 (회장 유동렬) 전화: (502) 2439-2978/80
- 과테말라 평통위원
 - 김태현: (502) 5990-0079
 - 서 목: (502) 5990-7914
 - 안승로: (502) 5353-7477
 - 이수덕: (502) 5807-0784
- 대한체육회 과테말라지회(회장 김권식) 전화: (502) 5619-1234
- 한인 섬유산업협회(회장 채임덕) 전화: (502) 5409-0610
- 과테말라 한국학교(교장 장경선) 전화: (502) 2437-6160 / (502) 5519-5560
- 한과정보(대표 김덕일) 전화: (502) 2479-1394
- 한인일보(대표 박활) 전화: (502) 2369-2961

3) 비즈니스 관련 현지기관

- 과테말라 투자청(Invest in Guatemala)
 - 주소: Edif. Aseguradora General, Nivel 4, 10 calle 3-17, Zona 10, Guatemala, C.A.
 - 전화: (502) 2421-2484 (PBX)
 - 팩스: (502) 2421-2480
 - 홈페이지: www.negociosenguatemala.com
- 과테말라 상업회의소(Cámara de Comercio de Guatemala)
 - 주소: 10 Calle, 3-80, Zona 1, Guatemala, C.A.
 - 전화: (502) 2384-8888
 - 팩스: (502) 2220-9393
 - 홈페이지: www.negociosenguatemala.com
- 과테말라 공업회의소(Cámara de Industria de Guatemala)
 - 주소: Ruta 6, 9-21, Zona 4, Guatemala, C.A.
 - 전화: (502) 2380-9000 (PBX)
 - 팩스: (502) 2334-1318
 - 홈페이지: www.industriaguatemala.com
- 과테말라 수출협회(AGEXPORT / Asociación Guatemalteca de Exportadores)
 - 주소: 15 Ave. 14-72, Zona 13, Guatemala, C.A.
 - 전화: (502) 2410-8232 (PBX)
 - 팩스: (502) 2410-8320/1
 - 홈페이지: www.agexport.org.gt
- 전국경제인단체연합회(CACIF / Comité Coordinador de Asociaciones Agrícolas, Comerciales, Industriales y Financieras)
 - 주소: Ruta 6, 9-21, Zona 4, Guatemala, C.A.
 - 전화: (502) 2332-1794
 - 팩스: (502) 2334-7025
 - 홈페이지: www.cacif.org.gt
- 섬유조합(VESTEX)
 - 주소: 15 Ave. 14-72 Zona 13, Guatemala, C.A.
 - 전화: (502) 2410-8323
 - 팩스: (502) 2410-8320/21
 - 홈페이지: www.apparel.com.gt

4) 비상연락처

현지 비상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국번 없음).

- 화재신고: 122/123
- 구급차: 125/128
- 범죄신고: 110/120

- 마약신고: 1577
- 소비자안내: 1544
- AIDS 신고: 1540
- 전화고장신고: 1566,

타. 기타 유용한 정보

1) 물가

과테말라의 물가는 결코 만만치 않다. 서울의 물가와 비슷하거나 일부 품목은 더 비싼 경우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쇼핑장소

과테말라 시내에 우리나라의 백화점에 해당하는 쇼핑센터로는 Mira Flores, SIMAN 등이 있으며, 대형 할인매장 형태인 CEMACO, PAIZ, LA TORRE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약국 체인점인 MEYCOS, 향수전문 체인점인 KLEE, 가정용품 체인점인 HOME CENTER 등이 있다. 품목별 전문 체인점의 경우에도 품목의 제한 없이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외에 구도심(ZONA 1)지역에는 민예품, 토산품 등을 파는 메르까도(Mercado)가 있으며, 기타 각종 생활용품 등을 파는 재래시장도 발달해 있다.

또한 한국인을 위한 대형식품점이 4곳, 반찬백화점, 베이커리 등도 있어 식품조달에는 문제가 없으나 가격은 한국의 2배 정도로 비싼 편이다. 현지주요 한국 슈퍼마켓, 잡화점, 반찬 가게는 아래와 같다.

- 한양슈퍼
 - 주소: Calzada Aguilar Batres 43-35, Zona 12, Comercia Plaza Monte Maria Guatemala, C.A
 - 전화: (502) 2479-1126
- 다솜 종합슈퍼
 - 주소: 2a Calle 34-38, Zona 7, Guatemala, C.A
 - 전화: (502)2599-6660
- 로데오 한국마켓
 - 주소: 37 Ave. 2-15, Zona 7, Col. El Rodeo Guatemala, C.A
 - 전화: (502) 2433-9015~20
- 보물창고
 - 주소: Anillo Periferico 22-29, Zona 11, Centro Comercilal San Jorge, Guatemala, C.A
 - 전화: (502) 2473-8264 / (502) 2473-8222

3) 특산품

과테말라의 특산품 중 대표적인 것은 커피로서 최대 수출품이기도 하다.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다양한 편이나, 비교적 값은 싼 편이어서 283g짜리 인스턴트 INCASA 커피의 경우 약 32개찰 수준이다.

인디오 여자들이 손으로 직접 짠 우이필(블라우스)이나 수직 테피스트리, 테이블보 등도 대표적 특산품인데 다양한 색상으로 화려하게 수놓은 것이 특징이다. 면으로 짠 것 보다는 양모로 짠 것이 더 비싼데 가격은 10~600 켈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 외에도 마야의 문양으로 조각한 목각, 석재, 금속 인형과 가면, 테라코타 등도 많으며 특히 과테말라의 옥석(현지어로 하데, JADE))을 가공하여 제작한 목걸이, 반지 등 귀금속, 인형, 마스크 등도 유명한데 가격은 매우 비싼 편이다.

파. 관광명소

1) 과테말라 시내 관광명소

구도심인 ZONA 1 지역에는 상점가, 영화관 등이 밀집되어 있어 활기가 넘치는 곳으로 이중 중앙공원 주변은 중앙정부청사(PALACIO NACIONAL), 까테드랄(CATEDRAL), 민예품 시장 등이 위치하고 있다. 시내 남쪽에 위치한 아우로라 공원은 숲으로 둘러 쌓여 있으며 민예품시장, 동물원, 박물관 등이 있어 하루를 보내기에 적합하다. 이외에도 국립고고학 박물관, 뽀뽀 부 박물관, 익스첼 민속의상 박물관 등에서는 마야문명과 인디오의 생활상을 볼 수 있어 방문해 볼 만 하다.

2) 시외 관광명소

□ 안티구아(Antigua)

과테말라시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안티구아市는 1543년 스페인 침략기에 건설된 옛 수도로서 1773년 대지진에 의해 큰 피해를 입어 폐허가 되었으나 과거 스페인식 교회나 성당 등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고도로 1979년 UNESCO에 의해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았다.

주요 유적지로는 중앙공원에 있는 까테드랄과 샌프란시스코 교회, 산타클라라 수도원, 산토 도밍고 교회(지금은 호텔) 등이며, 박물관으로는 무기박물관, 고서박물관, 민속음악 박물관, 식민지박물관 등도 있다.

□ 아티틀란(Atitlán) 호수

과테말라시에서 북쪽으로 147Km 거리에 있는 이 호수는 해발 1,562m에 위치하고 주변에 3,000m급 이상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라고 불리고 있다. 또한 주변에는 인디오의 마을들이 많이 있어 시간을 내어 둘러보기 좋은 곳이다.

호반에 위치한 주요 도시는 빠나하첼, 솔룰라, 산타 까타리나 빨로뽀, 산 안토니오 빨로뽀, 산티아고 아티틀란 등으로 인디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으며, 특히 인디오들이 수놓은 아름다운 색상의 우이필 및 목각 등 토산품 등을 볼 수 있다.

□ 띠칼(Tikal)

과테말라 북쪽 페텐(Peten)주에 위치한 최대 마야 유적지로 마야 문명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1979년 UNESCO에 의해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았다. 과테말라시에서 버스로 12~14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므로 항공편으로 다녀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야 유적은 20~30m 높이의 정글 속에 묻혀 있는데 약 16Km의 공간에 3,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건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유적지로는 그란 플라자, 1, 2, 3, 4, 5호 신전, 사우스 아끄로폴리스, 센뜨랄 아끄로폴리스, 7개 신전의 광장, 잊혀진 세계, 비명의 신전, 박쥐의 궁전, 노스 아끄로폴리스 등으로 매우 많다.

띠칼 관광은 보통 플로레스시를 기점으로 시작하며, 그 외에도 주변에 산따엘레나, 산베니또 등의 도시도 있다.

□ 리오둘세(Rio Dulce)

과테말라 북쪽 이사발(Izabal) 호수 인근에 위치해 있다. 천혜의 원시림과 자연풍경을 간직한 곳으로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 중의 하나이다. 주변에 이사발 호수, San Felipe 성, 카리브 해에 접한 리빙스톤 등은 방문해 볼 만하다.